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운영과
급제자 실태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이 규 복

2011년 8월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운영과 급제자 실태 분석

지도교수 권인혁

이규복
1952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이규복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의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년 8월

Analysis of the Mungwa Operation and Passers of the
Mungwa Examination of the Jeju Region in the Joseon
Dynasty

LEE KUY-BOK

(Supervised by Professor KWON IN-HYU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1. 8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nalysis of the Mungwa Operation and Passers of the Mungwa Examination of the Jeju Region in the Joseon Dynasty

As a system for understanding the *yangban* (aristocrats) bureaucracy, the ruling class of the Joseon society, which was a feudal society, research on *mungwa* have most commonly been conducted on specific time periods and from a central perspective, and there are few *mungwa* studies from a provincial asp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providing a lead for identify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Jeju society during the Joseon Dynasty by finding loc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mungwa* operation mode of the Jeju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time and region of those from Jeju who passed the *mungwa* via review of case-studies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preceding studies.

First, the focus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of the *mungwa* operation mode of the Jeju region and then to identify the trends of passing the examination per period and the places of residence of those who passed the examination per region in the Jeju region in order to analyze the stats of those who passed the *mungwa* in the Jeju region.

The decisive *mungwa* program that allowed test-takers from the Jeju region to pass the *mungwa* was the *sijae* (test for talents) and *jikbujeonsi* (right to apply directly to the final test for ranking). Like other provinces, *mungwahyangsi* (local *mungwa* examinations) also existed in the Jeju region, but due to geographical problems, it was not utilized as a practical system. Ultimately, the *woebangbyeolgwa* (*mungwa* in provincial areas) starting with the grace of the *sijae* since the reign of *Injo* in the 17th century to the reign of *Cheoljong* played a big influence on the passing rate of the examinations in the

Jeju region. This is backed up by the start of the increase of test passers of the *sogwa* (another type of examination for state official) that was lacking prior to the reign of *Gojo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number of those passing the *mungwa* in the Jeju district with only the *mungwa* operation mode. In order to explain th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social and policy trends of each era and make analysis through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of those who passed the *mungwa* examination.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of each person who passed the examination, it was possible for the powerful groups of the Jeju region to identify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such as academic relations, weddings, and blood relations.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places of residence of test-passers on the trends of passing the examinations through the residential areas of test-passers at the time of applying for the test. Through this, the changes of the ruling forces in the Jeju society and why test-passers were fostered could be confirmed.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mungwa* operation and research on test-passers in the Jeju region with just one reas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ju area can be identified only after sufficient analysis of the change of the policy form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per period for the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conditions, and the ensuing changes of the powerful forces of the Jeju region.

목 차

Abstract

I. 머리말	1
II.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문과운영	5
1. 제주지역의 문과향시(文科鄕試)	5
2. 시재설행(試才設行)과 직부전시(直赴殿試)	12
III.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 분석	26
1. 문과 급제자	28
2. 시기별 분석	39
3. 지역별 분석	68
IV.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출사	78
V. 맺음말	83
부록	87
참고문헌	93

<표> 목차

<표 1> 제주지역의 어사과견시 문과 급제자	14
<표 2>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 중 직부전시자 목록	16
<표 3> 각 사료별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 명단	30
<표 4>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성관((姓貫)	39
<표 5>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성관((姓貫)별 시기별 분포	40
<표 6>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전자(前資)	44
<표 7> 제주지역 시기별 소과 급제자 명단	65
<표 8> 제주지역 소과·문과 급제자의 급제당시 연령	66
<표 9>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지역별 거주현황	70
<표 10>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관직	79

<그림> 목차

<그림 1> 경주 김씨 현마공신 김만일 가계도(김석겸, 김경희, 김경초)	36
<그림 2> 제주지역 17세기 문과 급제자 관계도	51
<그림 3> 제주지역 18세기 숙종후반기 문과 급제자 관계도	54
<그림 4> 제주지역 18세기 영·정조기 문과 급제자 관계도	56
<그림 5>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거도주지 분포도	71
<그림 6> 조선시대 제주지역 학제를 중심으로 한 문과 급제자 분포도	74

I. 머리말

조선시대는 양반관료가 지배층인 중세봉건사회였다. 과거제도는 새로운 인재의 등용을 위한 본질적 목적을 두고 있으나 지배층인 양반들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도 사용되었다. 당시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은 무과(武科)·잡과(雜科)에 비하여 당시 사회 이념이었던 유학을 근본으로 하는 문과(文科)를 중시하였다. 사대부¹⁾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과란 관료 선발에 있어 중요한 시험이었고,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치로서 활용되어졌다.²⁾ 따라서, 문과는 조선의 정치세력·지배계층·지배이념과 그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주제로 인식되어진다.

현재까지 조선시대 문과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제도사적 측면에서의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을 이용한 문과 급제자에 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들을 통하여 제도적·현실적 측면에서의 응시자격 조건, 문과의 준비에 있어서 필요한 학제(學制) 등 문과의 운영 실태와 급제자의 성분, 급제자의 분과와 진출에 대해서 대체적인 윤곽이 밝혀져 있다.³⁾

그런데 선행연구들의 경우, 특정 시기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적

- 1) 사대부(士大夫)는 본래 5품이하의 관리인 ‘士’와 4품이상의 관리인 ‘大夫’라고 하는 문신관료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문신관료만의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문신관료를 배출할 수 있는 독서인층(讀書人層)과 나아가서 문·무관료를 배출할 수 있는 가문이라는 뜻으로도 쓰였다.(李成茂, 「15세기 양반론」, 『朝鮮兩班社會研究』, 一潮閣, 1995, 28쪽.)
- 2) 李成茂, 앞의 책, 26~60쪽.
- 3) 金町洛, 「朝鮮時代 科學制度에 關한 一考」 『論文集』 第6輯(대구보건대학, 1983).
金昌鉉, 『朝鮮初期 文科及第者研究』(一潮閣, 1999).
朴弘甲, 「조선초기 문과 급제자의 분과와 진출」 『사학연구』 50권(한국사학회, 1995).
이원재, 「朝鮮前期 別試 研究」 『史學研究』 第50號(연세대학교 교육연구, 1998).
鄭時采, 「朝鮮王朝時代의 科學制度研究」 『論文集』 第10輯(건국대학교, 1979).
車美姬, 「英正祖의 科學改革政策 -科弊釐正論音을 中心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5).
車長燮, 「朝鮮前期 文科及第者의 成分」 『論文集』 第27輯(三陟大學校, 1994).
_____, 「朝鮮後期 文科及第者의 成分」 『大邱史學』 第47輯(대구사학회, 1994).
한만봉, 정덕희, 김진옥 「조선왕조 과거제도 인사정책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15권(한국국정관리학회, 2005).
_____, 김진옥, 「朝鮮朝 科學試驗 方式의 政策的 분석」 『論文集』 第23輯(혜전대학, 2005).
(이상 원창애, 「문과 급제자의 전력 분석」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2003, 60쪽.)

입장에서의 연구, 응시자격에 관한 주된 관심, 특정집단의 문과 급제자를 분석하는 편중적 성향의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

특히, 지방사적인 측면에서 문과연구는 미약한 상태이며,⁴⁾ 제주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나, 양진건의 제주지역의 문과운영과 급제자의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인 『제주교육행정사』⁵⁾,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⁶⁾과 김동전의 『제주유백 육백년사』 「조선조 제주의 과거운영과 입격자」⁷⁾, 『심재집』⁸⁾과 『탐라실록』⁹⁾ 등이 선행 연구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양진건의 『제주교육행정사』,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의 유학교육을 설명하는데 있어, 제주지역에서 치러진 문과운영과 『진신선생안(縉紳先生案)』과 『사마선생안(司馬先生案)』을 통하여 문과 급제자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의 주제가 ‘교육사’에 중점을 두어 문과운영의 정책적 성향에 의한 문과실행과 급제자의 목록만을 나열하는 단편적 실태분석만이 이뤄져 있다.

김동전은 『제주유백 육백년사』 「조선조 제주의 과거운영과 입격자」에서 조선시대 제주지역 과거의 운영실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조문과방목』과 『탐라기년(耽羅紀年)』, 『진신선생안』에서는 급제자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간략한 설명과 함께 문과급제증서인 백패식(白牌式)·홍패식(紅牌式)을 제시하고, 제주지방의 과거운영에 대하여 다양한 사료의 분석을 통해, 방목(榜目)과 과거답안지인 시권(試券)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급제자의 분석에 있어서는 『사마선생안』, 『진신선생안』, 『국조문과방목』, 『탐라기년』을 비교한 명단을 제시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피하였으며, 『사마선생안』과 『진신선생안』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국조문과방목』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급제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른 사료에 제시되는 고득중, 고태필, 고태정에 대하여 이들이 제주지역 향시의 실행이전의 급제자인 관계로 제외시키며 급

4) 정훈, 「조선시대 남원지역 문과급제자에 대한 고찰」, 『전북사학』 제29호(전북사학회, 2007).

박노석, 「조선시대 전주출신 문과 급제자 현황」, 『전북사학』 제30호(전북사학회, 2007).

5) 梁鎭健, 『濟州教育行政史』(제주문화, 2001).

6) _____, 「朝鮮朝 濟州教育史 形成의 政策的 動因」 『韓國教育史學』 第21輯(한국교육사학회, 1999).

7) 金東柱, 「朝鮮朝 濟州의 科擧運營과 入格者」 『濟州濡脈六百年史』(學文社, 1997).

8) 金錫益 著, 杏文會 편저, 『心齋集』 2(제주문화사, 1990).

9) 韓致文, 『耽羅實錄』(韓進文化社, 1973).

제자의 시기별·연령별·전자(前資)·역관(歷官)·성씨별 분류를 통한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무과 급제자를 통틀은 연구라는 점에서 문과 급제자의 분석에서 다소 간략한 면이 있다. 이외에 『심재집』과 『탐라실록』에서도 제주인으로 문과에 급제한 인물들의 명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본고는 이렇게 선행되어진 연구들에 유의하면서,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문과운영과 제주인으로 문과에 입격한 급제자들을 시기별·지역별로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제주지역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이에 문과 급제자들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문과운영 고찰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본고에서는 급제자 인원 파악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조문과방목』,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진신선생안』, 『사마선생안』, 『탐라기년』, 『탐라관풍안(耽羅觀風案)』을 중심으로 참고하였으며, 이들 자료와 선행연구들을 비교·재확인하여 급제자의 인원수를 산정·분석해 보았다.¹⁰⁾

현재까지 조선시대 제주지역에서 파악된 문과 급제자의 인원수는 자료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선 초기에 제주인으로서는 문과에 급제한 제주 고씨 4인의 경우, 제주지역에서 향시(鄉試)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점에 따른 급제의 포함 여부와 『국조문과방목』과 다른 자료에서 중복되지 않는 인물에 대한 포함 여부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의 인원은 총 58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급제 인원수의 파악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선행연구와 각 자료에 나타난 인원수와 서로 다른 인물들의 기재방법에 따른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중심이 되는 기본자료로서 『국조문과방목』에 기록된 문과 급제자에 문제점이 있는 입격자를 『조선왕조실록』과 다른 자료의 비교확인 작업을 통하여 급제인원수를 산정하였음을 밝힌다.

이렇게 문과 급제자를 58인으로 산정한 이유는, 『국조문과방목』에서 거주지에

10) 본고에서 인용한 『조선왕조실록』은 2007년 12월 2일자 온라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을 참조하였고, 『국조문과방목』과 『사마방목』의 경우는 온라인 한국학 DB 조선문과방목과 사마방목을 참조하였다. 또한 『승정원일기』는 온라인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를 참조하였고, 『탐라기년』의 경우 1993년에 한국인문과 학원에서 편찬한 『한국근대읍지』 48권 전라도 15편을 참조하였다. 『탐라관풍안』의 경우는 1992년 제주문화원에서 편찬한 『심재집』 2를 참조하였다. 『탐라지초본』은 2007년과 2008년에 제주교육박물관에서 편찬한 『탐라지초본』상·하를 참조하였다.

따라 제주·정의·대정의 인물을 구분하여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일치여부와 방목의 기록이 명확하지 않을시 다른 사료와 실록의 기록 비교를 통한 판단, 마지막으로 제주인인지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II장에서는 선행되어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사료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선시대 문과운영의 개괄적 내용설명과 제주지역의 문과운영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지역에서 선행된 문과고시를 통하여 급제자가 배출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III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급제인원을 『국조문과방목』을 중심으로 사료의 재확인작업을 통해 산정된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 58명을 시기·지역별 분류를 통하여 급제자의 각 성관과 전자(前資)와 교육수준을 통한 실태 파악을 하고 급제자의 인간관계를 통한 제주지역의 유력세력의 변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V장에서는 급제자의 향후 출사를 통하여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처럼 본 논문은 앞서 연구되어진 자료를 재검토하여 제주지역의 특징적인 문과운영과 급제자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만이 가지고 있던 특수성과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운영양상의 변화와 급제자들의 특징을 찾고,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제주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II.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문과운영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문과운영에 대한 선행되어진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진다. 문·무과를 통틀어 조선시대 과거운영을 정리한 『제주유맥육백년사』 「조선조 제주의 과거운영과 입격자」와 교육사적 측면의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을 들 수 있다. 이 둘의 선행연구들은 제주지역의 문과운영 양상에 있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조선조 제주의 과거운영과 입격자」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과거운영에 있어, 제주지역의 지역적 불리함에 따른 향시(鄕試)의 실행과 별견어사(別遣御史)의 파견에 따른 시재실행(試才設行)을 설명하면서 국왕들에 의한 제주지역 급제자들의 혜택을 예로서 들고 있다.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에서 역시 제주지역 문과운영에서 향시실행과 시재실행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주지역 시재실행의 경우, 기근 또는 재난, 혹은 변란 등의 사건에 따른 민심동요를 막기 위한 회유책의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견해 차이는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두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본고 II장의 제주지역 문과운영에 대한 설명에서 앞선 선행연구들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사료를 통한 정치·사회적인 상황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음을 밝힌다.

1. 제주지역의 문과향시(文科鄕試)

조선시대는 과거(科擧)를 통한 관직진출을 중요시하던 양반관료사회(兩班官僚社會)였다. 관직진출에 있어 문음(門蔭)이 존재하였으나, 과거를 통한 입신을 영예롭게 생각하였고, 음서로 관직을 진출하였던 이들도 재임 중 과거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¹¹⁾ 그만큼 조선시대 과거는 양반관료사회에서 지배층으로의 진입

11) 三年一試 前秋初試 春初覆試殿試 文科前通訓以下(同武科) 生員進士通德 以下許赴(守令則勿生員進士試). (『경국대전』 권3 「예전」 제과조).

에 필수요소였다.

조선시대 과거의 응시자격은 제도상으로 고려시대보다 그 폭이 넓었다.¹²⁾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제과조(制科條)에는 범제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¹³⁾ 그러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문무과, 생원진사시에는 양반들이, 잡과에는 중인들이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⁴⁾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文科)·무과(武科)·잡과(雜科)가 있었다. 예조(禮曹)에서 주관한 시험은 문과와 잡과였고, 무과는 병조(兵曹)에서 주관하였다. 이 중 문과는 예비고시(豫備考試)의 성격을 갖는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가 있었다. 이를 소과(小科) 혹은 사마시(司馬試)라 하였다. 생원시는 경술(經術)을 고시(考試)하였고, 진사시는 시(詩)·부(賦) 등의 문학을 고시하였는데, 처음에 단일과였으나, 태종 14년(1414)부터 초시·복시의 2단계의 응시절차에 의해 급제의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¹⁵⁾ 소과에서 합격한 100명은 생원·진사의 칭호와 함께 성균관 입학자격이 주어졌다. 대과는 소과에 대한 명칭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과를 말한다. 문과는 초장(初場)에 강경(講經), 중장(中場)에 시(詩)·부(賦)·표(表), 종장(終章)에 책(策)을 시험하였고, 무과와 마찬가지로 초시·복시·전시의 세 차례의 시험에 의해 33인을 뽑아 문관임명의 자격을 준 고시였다.¹⁶⁾

문과의 종류에는 크게 정규시험인 3년마다 치르는 식년시와 설행시기가 일정치 않은 비정규시험인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외방별시(外方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春塘臺)·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전강(殿講)·문신

원유계자(元有階者): 현직관료나 관계소유자가 문과에 응시할 경우를 이들을 말한다. 원유계자의 문과 응시는 고려부터 시작하였고, 조선시대에 확대되었다. 고려의 경우 참서관인 6품이상의 현직 관료이었던 것에 반하여 조선의 경우 정3품 통훈대부 이하로 규정되어 응시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196~197쪽, 원창애, 앞의 책, 62쪽.)

12) 고려과거의 응시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사료는 없지만 『선거지』에 합격자를 바탕으로 유추하면 양인이라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許興植, 『高麗科擧制度史 研究』, 一潮閣, 1981, 204~212쪽)

13) 罪犯永不敘用者 贓吏之子 再嫁失行婦女之子孫及 庶孽子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 (『경국대전』 권3 「예전」 제과조).

14) 李成茂, 앞의 책, 114~170 쪽.

15) 始行生員漢城試鄉試之法 用全州教授官鄭坤之言也 先是 權遇爲大司成 嘗建此議 河崙深以爲然 至是乃行之 依科擧額數加二倍. (『태종실록』 권27 14년 1월 20일 을미조).

16) 三年一試, 前秋初試 春初覆試殿試. (『경국대전』 3권 「예전」 제과조).

初場五經四書疑義或論 中場賦頌銘箴記中一篇 表箋中一篇 終場對策一篇. (『경국대전』 권3 「예전」 제과조 문과초시).

三十三人(甲科三人乙科七人丙科二十三人). (『경국대전』 권3 「예전」 제과조 문과진시).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朝鮮 兩班官僚國家의 社會構造』, 『韓國史』10, 探究堂, 1984, 122~123쪽.)

중시(文臣重試) 등이 있었다.¹⁷⁾

이렇듯 문과는 다른 과중에 비하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무과·잡과와 달리, 예비고시인 소과와 출사를 위한 대과로 구분되어 있었고, 총 5단계의 응시절차를 거쳐서 합격할 수 있었다.¹⁸⁾

조선시대의 제주지역은 함경·평안 지역과 더불어 최 변방지역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은 문과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중앙과의 거리차로 인하여 문과의 근간이었던 유학(儒學)교육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결국, 제주지역 유학교육의 낙후화를 가져왔고, 15세기 문과 급제자들은 지방 유력세력인 토호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행정적 요인으로 조선시대 제주는 전라도에 편제되어 있었다. 정규시험이었던 식년문과에서 초시인 향시(鄉試)는 전라도 관찰사의 주재에 의하여 시행되었고,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선 험난한 교통사정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외방별시를 제외한 증광·별시·알성 등의 각종 부정기시험도 도성인 한양을 중심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제주지역 응시자들이 문과에 응시하기란 쉽지 않았다.¹⁹⁾

제주지역에서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소과에 입격 후 성균관 입학을 하여 문과에 응시를 하거나²⁰⁾, 문과 초시인 향시를 치른 후 복시인 회시(會試)를 치르기 위하여 서울로 상경하여야 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거리상의 문제가 문과응시에 걸림돌로 작용되었다.²¹⁾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다.

(가) 제주(濟州)는 아득하게 바다 밖에 있어 국가의 이목(耳目)이 혹 미치지 못하는 때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세 고을 수령(守令)들이 기탄(忌憚)할 바가 없사와 무마하고 사랑하는 데에 게을러서 백성을 병들게 합니다.²²⁾

17) 曹佐鎬, 「學制와 科擧制」, 『한국사 10』(국사편찬위원회, 1977), 133~155쪽.

18) 모든 이가 5단계의 응시절차를 통하여 문과에 급제하진 않았다. 학교에 적(籍)을 둔 유학(幼學)이 그러했다. 국초에 예조에서 식년시에 한하여 과거법을 제정하길, 소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입학 후 원점 300점을 얻어야 문과초시의 응시자격을 주었지만, 별시의 증가와 원점봉괴는 조선후기 문과응시에 있어 원점과 생원·진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車美姬, 『朝鮮時代 文科制度研究』, 국학자료원, 1999, 23~66쪽, 車長燮, 「朝鮮後期 文科及第者 性分」, 『大邱史學』 47, 대구사학회, 1994, 114~116쪽).

19) 하지만, 예외는 있었다.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들 중 철종 10년(1859)년에 급제한 이도남(李道南)은 춘당대(春塘臺)에서 치러진 인일제(人日製)에서 직부전시의 특권을 부여받고 기미증광시(己未增廣試)에 급제하였다. 또한, 고종시기 급제자인 이면제(李勉宰)·백약순(白樂舜)·홍현일(洪顯一)은 각각 고종조에 도성에서 열린 경과정시(慶科庭試)에서 급제하였다.

20) 李秉杰, 「麗末鮮初 官學의 實態와 科擧教育」, 『東洋文化研究』 2(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75), 115~116쪽.

21) 金東柱, 앞의 책, 424쪽, 426쪽, 梁鎭健, 앞의 책, 510쪽.

(나) 정문형이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세 고을은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수로(水路)가 험악(險惡)하기 때문에 교수(教授)·훈도(訓導)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꺼리니, 박천(博川) 서쪽과 함흥(咸興) 북쪽의 예(例)에 의하여 품계(品階)를 더하여서 말을 주어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²³⁾

(다) 제주(濟州)에서 표몰(漂沒)한 17인을 경외(京外)에서 특별히 홀전(恤典)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호남 도신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어사 박사륜(朴師崙)의 일행이 풍랑에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박사륜이 겨우 면하여 추자도(楸子島)에 도착했다는 어사의 장문(狀聞)을 보기에 이르러 임금이 크게 놀라 가엾게 여겨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²⁴⁾

(라) 제주(濟州)의 세 고을에 윤음(綸音)을 내렸는데, …(중략)… 그곳은 토지(土地)가 척박하여 모맥(麩麥)과 두속(豆粟) 만이 생산되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어 뱃길에 기탁하고 있으니, 아! 또한 위태롭고도 험난하다.²⁵⁾

위의 기록에서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지리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가), (나)는 제주지역을 막재해외(邈在海外), “육지와 떨어진 바다 밖의 섬”이라 표현하고 있다. (다), (라)는 험난한 바닷길에 의한 왕래의 불편함을 보여준다. 특히, (다)는 제주에 파견한 어사 박사륜이 풍랑을 만나 표류한 끝에 추자도에 정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제주지역은 바닷길로 인한 내륙지방과 왕래의 불편함에 따른 지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파견되는 관리들 중 차송을 거부하는 이도 있었고, 감찰관이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하였다.²⁶⁾ 그것은 제주가 조선시대 최고의 유배지였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에서는 조선 개국 후 제주유배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순종 2년(1909) 일본에 사법

22) 濟州邈在海外 國家耳目 或有不及 緣此三邑守令等無所忌憚 怠於撫字 以致民病. (『성종실록』 권103 26년 1월 17일 정묘조).

23) 文燭又啓曰 濟州三邑 邈在海外 水路險惡 故教授訓導 人皆厭憚依博川以西 咸興以北例 加階給馬以送何如. (『성종실록』 권238 21년 3월 6일 무오조).

24) 特命濟州漂沒十七人 自京外恤典舉行 先是因湖南道臣狀啓聞 御史朴師崙一行漂風 師崙僅以身免 到楸子島及覽繡衣狀聞 上大加驚惻 有是命. (『성종실록』 권113 45년 9월 12일 신묘조).

25) 下綸音于濟州三邑曰[…]抑海島之一都會也 第其壤地嶮嶠 惟麩豆粟生之經紀契活 寄于本道 吁亦危乎崎哉. (『정조실록』 권11 5년 6월 26일 정유조).

26) 汝國人崔溥等漂流到浙江地面 浙江總兵官等奏本 下本部 崔溥信汝國人乎 賢孫請見奏本 則乃濟州敬差官崔溥與其同舟四十三名 漂流到泊浙江事也 員外郎言曰 崔溥出送節次 俟溥到京 當奏達擬議施行 汝等可先去. (『성종실록』 권215 19년 4월 15일 무신조).

권이 이양될 때까지 261명이라는 인물들이 유배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²⁷⁾ 실제로 제주는 바다를 낀 먼 지역이었기에 유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이러한 제주지역의 인식은 제주인들의 현실이었고, 과거의 응시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다)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향교의 관원인 교수·훈도가 제주지역에 차송되기 꺼려했다는 것은 제주지역에 유학교육의 낙후화로 이어졌다. 결국, 조선전기 제주지역에서 문과에 합격한 급제자들도 유력 토성집단이었던 제주 고씨만이 존재하였다.

숙종 27년, 조정에서는 제주과시(濟州科試)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다.²⁸⁾ 전라도(全羅道)의 문과 초시 정원 중 1액(額)을 제주로 옮겨, 문신이 목사일 때는 교수(教授)와 함께 시취하고, 무신이 목사일 때에는 판관(判官)이 문신이 되어 교수와 함께 시취하는 규식(規式)을 정하게 되었다.²⁹⁾

이에 앞서, 제주지역에는 승보시(陞補試)가 있었다. 승보시는 소과초시인데, 초시는 서울의 한성시(漢城試)와 외방(外方) 8도의 향시(鄉試)를 두어 정액(定額)을 배정하였다. 승보시는 제주지역에서 설행된 소과향시였다.³⁰⁾ 다음은 『탐라기년』의 승보시에 대한 기록이다.

(가) 목사 심연(沈演)이 아뢰어 승보초시(陞補初試)를 설치하고 해마다 두 사람을 시취(選取)하였다. 시험과목은 시(詩), 부(賦)로서 오직 문관 재임시만 그러하기로 하였다.(안건대 세종(世宗) 무오(1438)에 생원진사초시(生員進士初試)를 설치하고 갑자(1444)에 정지하였다가 신미(1451)에 복설(復設)하고, 이어 정지하였는데, 이 해에 이르러 심연이 계(啓)하여 유생승보초시(儒生陞補初試)를 두게 되었다.)³¹⁾

(나) 승보초시(陞補初試)의 시관(試官)이 미비(未備)하여 모자라 이해에 이르러 시행

27) 김재형,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5~6쪽.

28) 今許以全羅道文科初試一額 移于濟州 文臣爲牧使則與教授試取 武臣爲牧使則判官當爲文臣 與教授 又可以試取 宜以此爲式 從之. (『숙종실록』 권35 27년 6월 10일 병인조).
牧使南至薰啓設式年文科初試. (『탐라기년』 권3 기묘 숙종 25년).

29) 金東柱, 앞의 책, 435쪽, 梁鎭健, 앞의 책, 512쪽.

30) 續額數十人 補增二人 開城府四人 濟州二人 賦一篇 古詩一篇 每年大司成 課試四學儒生共十次 增今爲十二次 歲抄計 赴式年生進覆試 從自願啓下後 毋得移錄 學製公都會同 開城府則 留守試取 濟州則牧使以文官差遣時 設行補濟州牧使雖武官判官若文官則以單試官設行. (『대전회통』 「예진」 제과조 승보).

31) 牧使沈演啓陞補初試歲取二人 試課以賦計畫惟文官在任時爲然(按世宗戊午設生進初試甲子停後辛未復設又仍停 至是沈演又啓說儒生陞補). (『탐라기년』 권2 무인 인조 16년).

하지 못하여 폐하게 되니 본주의 공사(貢士)가 단시관(單試官)을 두어 설행(設行)하는 것이 편함을 상서(上書)하여 대신(大臣)이 경연(經筵)에 아뢰어 윤택하였다.³²⁾

위의 (가), (나)의 기록을 통하여 제주지역에서 설행된 소과향시 승보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가)는 승보시가 세종 20년(1438) 생원진사초시의 설행을 시작으로 중단과 복설(復設)을 반복하다, 인조 16년(1638)에 다시 복설되었다는 기록이다. (나)는 그렇게 복설되었던 승보시가 국방상 요충지였던 제주지역이 목사와 판관이 모두 무관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철종 1년(1850)에는 1인의 시관만으로 시행되었다는 내용이다.

승보시는 이형상(李衡祥)이 제주목사 재임시절에 작성한 『탐라순력도』에도 「승보시사(陞補試射)」로 기록되어 있다.³³⁾ 이때 기록된 승보시는 문관이었던 이형상 목사가 시관이 되었을 때의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었다. 이처럼 승보시는 제주목사가 문관이었을 시에 시행되었고 목사가 무관이라도 판관이 문관이면 양현의 헌감을 시관으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국방상 요충지였던 제주지역은 목사와 판관이 모두 무관이었던 때가 많았다. 결국, 영조 44년(1726) 이후로는 시행되어지지 않았고, 철종 1년(1850)에 비로소 1인의 시관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승보시는 출사의 당락을 결정하는 고시가 아니었다. 또한, 초시인 향시였다는 점에서 위의 문과향시의 설행처럼 복시인 회시(會試)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상경해야만 했다. 결국, 제주지역에서 향시설행은 급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것은 이후 문과 급제자를 분석함에 있어 기본적 응시절차인 향시->회시->전시의 3단계를 거쳐 입격한 급제자가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조 51년(1775)의 급제자인 장한철(張漢哲)과 정조 19년(1795)의 급제자 변경붕(邊景鵬)은 표해록(表解錄)과 개인문집에서 제주지역의 향시입격이 부질없는 일임을 다음과 같이 단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가) 내가 이전에 여러 차례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서울로 시험을 치르러 갈 수 없었

32) 陞補初試以試官未備欠廢不舉是歲因 本州貢士上書大臣以單試官設行事筵 奏蒙允. (『탐라기년』 권4 경술 철종 1년).

33) 壬午閏六月十七日 副試官濟州判官李泰顯 叅試官大靜縣監崔東濟 八場十二人收卷十二人 入格詩賦各一人 連三日試取. (이형상, 『탐라순력도』 승보시사).

던 것은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고 집안이 한두 섬의 쌀도 없어서 짐을 싸서 멀리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³⁴⁾

(나) 간신히 공시(貢試)할 때는 하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여 시부(詩賦) 10여 수로 한정하고 연습 삼아 지어서 내면 다행히 백지를 내는 것을 면하였고, 혹 합격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5~6년 사이에 내손을 거쳐 향시에 합격한 사람이 다섯 명 이었고, 나 역시 두 번 합격하였다.³⁵⁾

(가)는 장한철의 『표해록』, (나)는 변경봉의 개인문집의 기록이다. (가)에서 장한철은 향시에 여러번 합격하였으나 그때마다 빈곤한 집안 살림과 과거로의 떠나면 여정에 의하여 회시를 포기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나)에서 변경봉은 5~6년 사이에 향시에 두 번 합격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회시응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가)와 (나)의 기록은 문과향시 1액을 제주에 정해졌어도 실질적으로 제주인의 사정상 회시응시는 힘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승보시의 설행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 소과 급제자의 기록인 『사마방목(司馬榜目)』과 『사마선생안(司馬先生案)』의 명단을 통하여 파악되는 급제 인원은 총 29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 19세기 이전의 급제자는 6명에 불과하다. 결국 응시절차에 있어 대과와 마찬가지로 회시응시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탐라순력도』 「승보시사」에는 숙종 28년(1702) 시관 목사 이형상·부시관 관관 이태현·참시관 대정현감 최동제가 3일간 시취(試取)한 승보시에서 시(詩)·부(賦)에서 각각 1인을 선정하였지만, 『사마방목』과 『사마선생안』의 기록에서 급제자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출사와 관련이 없는 소과회시에 응시보다 시재라는 단일과의 존재는 소과급제에 동기부여를 할 수 없고, 이는 16세기 별시의 증가에 따른 응시자 중 유학(幼學)의 증가와 같은 현상으로 풀이된다. 결국 문과에서 소과란 16세기 이후부터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17세기 이후 제주지역에서도 시재설행에 영향으로

34) 余之赴前屢中鄉試 不得赴試于京者 以其路隔千里之遠 家乏儋石之資 無以贏裏遠遊也。(張漢喆, 『表解錄』). (이상 장한철 저, 김봉옥 외 역, 「장한철의 (유구) 표해록」,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 연합 제주도지회, 2001, 201~202쪽, 351쪽.)

35) 然間當貢試則技癢不禁 時賦限十餘首 習述而進 則不但幸免曳白之患 亦或得中者屢矣 五六年間 由吾手得鄉解者 凡五人 余亦再中也。(邊景鵬, 『通政大夫司憲府掌令邊景鵬文集』 登科時夢兆錄). (이상 변경봉 저, 허남춘 외 역, 『통정대부 사헌부장령 변경봉 문집』, 탐라문화연구소, 2010, 59~63쪽, 194~196쪽, 339~341쪽, 399쪽.)

19세기 이전까지 소과 급제자의 인원수가 6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향시가 제주지역에서 설행되었지만, 회시를 치르기 위하여 도성인 한양으로의 과거노정(科擧路程)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제주인으로서 문과급제에 대한 열의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결국, 제주지역에서 통상적인 응시절차에 의한 문과급제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각종 별시의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급제자 증가와는 반대로 제주지역에서는 문과 급제자를 배출해 내지 못한다. 그러던 중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주지역 문과운영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별견어사(別遣御使)의 파견에 의한 시재설행(試才設行)과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특권이였다.

2. 시재설행(試才設行)과 직부전시(直赴殿試)

중앙집권 국가였던 조선왕조는 수령들의 탐학과 민생안정 등에 있어 감찰관을 파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어사(御史)였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227 「직관고」 권설직 어사안³⁶⁾에는 어사에 관하여 암행어사는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을 순행(巡行)하면서 관리의 득실과 생민의 질고를 염찰하는 특사(特使)였고, 별견어사(別遣御史)는 특별한 임무를 맡아 지방에 파견되는 특사로, 주어진 임무에 따라 순무(巡撫), 안집(安集), 균전(均田), 시재(試才), 감진(監賑), 안핵(按覈), 감시(監市), 독운(督運) 등으로 불리었다. 암행어사는 숙의(繡衣)·직지(直指)라고도 하였으며, 별견어사에 당상관을 임명하였을 시에는 어사(御使)라 기록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임무에 따라 호패(戶牌)·순찰(巡察)·안핵(按覈)·시재(試才)·독운(督運)·감진(監賑) 등의 다양한 어사들이 파견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파견된 어사들의 임무 중 시재(試才)에 관한 것이다.

36) 本朝御史以堂下侍從官特命之 號暗行御史 廉察官吏得 失生民疾苦 黜陟糾理無不總管 有事則別遣巡撫安集均田試才監賑按覈監市督運等 御史者命送堂上官則補使(『증보문헌비고』 권277 「직관고」14 권설직 어사안). (이상, 高昌錫, 「자료소개」 濟州巡撫御史 林天衡의 書啓, 『濟州島史研究』 8집(제주도사연구회, 1999), 66쪽.)

1) 별견어사(別遣御使)의 파견과 시재설행(試才設行)

『인조실록』 3권, 1년 9월 23일 경술조와 동년 윤10월 2일 무자조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가) 시재 어사(試才御史) 최진운(崔振雲)이 제주(濟州)에서 병으로 죽었다.³⁷⁾

(나) 제주도에 관원을 보내어 유생을 시험보이고 그 시권을 가져다가 대제학에게 명하여 등제를 매기게 한 다음 진사 오섬(吳暹)은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³⁸⁾

(가), (나)는 제주지역 문과설행을 위하여 조정에서 최진운(崔振雲)을 시재어사(試才御史)로 파견하였다는 것과 오섬(吳暹)의 급제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6세기에 단절되었던 문과 급제자가 17세기 오섬의 급제를 통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별견어사의 파견에 의한 시재설행에 대하여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문과의 종류에 외방별과(外方別科)의 항목이 나온다.

평안도·함경도·강화·제주 등지에는 특지(特旨)가 있어야 설행(設行)한다. 혹 중신을 특별히 보내면 시권(試券)을 거두어 상송(上送)하고 명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방목(放榜)케 하며 혹은 어사를 보내면 시권을 거두어 상송하되 제학(提學)을 패초(牌招)하여 과시(科試)의 차례(次第)를 정하여 전시(殿試)에 직부(直赴)케 하고 초시(初試)는 모두 설행(設行)하지 아니한다.³⁹⁾

위 기록에서 외방별시는 평안, 함경, 강화, 제주지역의 경우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실시하는 별시(別試)로서 직부전시에 의하여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외방별시(外方別試)가 최초로 시행되었던 시기는 세조 6년(1460)에 평양에 행차하여 별시를 시행한데서부터 시작되었는데,⁴⁰⁾ 이것이 최초

37) 試才御史崔振雲病死於濟州. (『인조실록』 권3 1년 9월 23일 경술조).

38) 遣官濟州 試儒生 取其試券 命大提學考其等第 賜進士吳暹直赴殿試. (『인조실록』 권3 1년 윤10월 2일 무자조).

39) 平安道咸鏡道江華濟州等地 有特旨乃行 或別遣重臣則試取上送 名卽其地放榜 或別遣御史則收券上送 牌招提學科次 直赴殿試 無初試設行. (『대전회통』 권3 「예전」 제과조 외방별시).

40) 賜文科柳自漢等二十二人 武學崔至剛等一百人及第. (『세조실록』 권22 6년 10월 22일 갑자조).

의 외방별시였다. 이후 국왕이 몽진을 하거나 능침을 행하였을 때, 행재소(行在所)에서 시재(試才)를 설행하여 급제를 주었고, 제주지역에서도 인조 1년 별견어사의 파견에 의한 시재(試才)가 설행되었다.

<표 1> 제주지역의 어사파견시 문과 급제자⁴¹⁾

어사	시기	급제자
최진운	1623(인조 1)	오섬
윤심	1664(현종 5)	문영후, 문징후, 고흥진 ⁴²⁾
이하	1671(현종 12)	김계룡, 김계창 ⁴³⁾
이선	1675(숙종 1)	김계홍, 고기중 ⁴⁴⁾
이증	1680(숙종 6)	정희량 ⁴⁵⁾
이해조	1706(숙종 32)	오정빈, 정창선, 고만첩 ⁴⁶⁾
황구하	1716(숙종 42)	정창원, 고만갑, 고처량 ⁴⁷⁾
김상석	1623(인조 1)	변시중 ⁴⁸⁾
이도원	1738(영조 14)	이구성, 양덕하, 이수근, 김계중 ⁴⁹⁾
이수봉	1763(영조 39)	변성운, 변성우, 김형중 ⁵⁰⁾
홍상성	1774(영조 50)	강봉서, 김경희, 장한철 ⁵¹⁾
박천형	1781(정조 5)	변경우, 김용, 강성익 ⁵²⁾
심낙수	1794(정조 18)	홍달훈, 이태상, 고명학, 부종인, 변경봉, 정태언, 김명현 ⁵³⁾
조정화	1822(순조 22)	신상흠 ⁵⁴⁾
총		37명

<자료: 『조선왕조실록』, 『탐라기년』, 『탐라관풍안』, 본고 <부록 2, 3, 4> 참고>

- 41) 金東柱, 앞의 책, 437~441쪽.
- 42) 濟州試才御史尹深復命 進儒生製述及武士試才單子 上命大提學科次儒生試券 選取文榮後 文徵後 高弘進等三人 竝賜直赴殿試. (『현종실록』 권9 5년 11월 10일 정유조).
- 43) 賜濟州儒生金繼隆 金繼敞直赴殿試. (『현종실록』 권20 12년 12월 30일 정미조).
- 44) 濟州金繼興等二人以直赴附. (『숙종실록』 권5 2년 1월 26일 기유조).
- 45) 竝付濟州試才 賜第三人. (『숙종실록』 권10 6년 9월 18일 계유조).
春巡撫御史李增試取 賜鄭希良後改希寬吳湜金礪三人 吳金二人以外場事覺啓削科. (『탐라기년』 권3 숙종 6년).
- 46) 濟州御史李海朝入來 命招藝文提學崔錫恒 科次試券 賜鄭敞選吳廷賓高萬瞻三人第. (『숙종실록』 45권 33년 1월 21일 을해조).
- 47) 濟州別遣御史黃龜河還朝 齋進濟州學子試券 上命大提學宋相琦科次 賜幼學高萬瞻等三人直赴殿試. (『숙종실록』 권58 42년 9월 8일 갑자조).
- 48) 命禮曹 濟州試入格人邊是重 直赴殿試. (『영조실록』 권12 3년 7월 26일 경진조).
- 49) 濟州試才御史李度遠收試券還 梁德夏李壽根李九成賜第金繼重以年過. (『영조실록』 권49 15년 4월 19일 을미조).
- 50) 濟州直赴七十二歲者金衡重 命單付典籍 年五十者陸六. (『영조실록』 권105 41년 3월 6일 신사조).
- 51) 冬遣巡撫御史洪相聖來[...]設科呈券令監牧官金義河封上試取文科 賜姜鳳瑞金慶會張漢喆三人. (『탐라기년』 권3 영조 50년 갑오조).
- 52) 輪對 仍召見濟州御史 命文任 科次濟州儒生試券 居首幼學金墉邊景祐 康聖翊直赴殿試. (『정조실록』 권13 6년 1월 12일 기유조).
- 53) 濟州御史沈樂洙 試取儒生收券上送 親臨科次 論居首大靜幼學邊景鵬 策居首旌義幼學夫宗仁 詩居首旌義幼學高鳴鶴 賦居首濟州幼學洪達勳 銘居首濟州幼學李台祥 頌居首濟州幼學鄭泰彥 并直赴殿試 策之次大靜幼學金命獻 以八十一歲 特賜第. (『정조실록』 권39 18년 4월 21일 정축조).
- 54) 敎曰 濟州牧試取 製述居首幼學慎尙欽 直赴殿試. (『순조실록』 권26 23년 2월 24일 갑자조).

<표 1>은 『조선왕조실록』과 『탐라기년』, 『탐라관풍안』의 기록을 통해 작성되었다. 당시 제주에 파견된 어사들은 주된 임무에 따라 명칭이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시재(試才)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인조 이후 제주지역에 파견된 별견어사들에 의해 설행된 시재에서 급제한 인원은 37명으로 제주지역의 문과급제자의 총 수인 58명의 절반을 넘는 63.8%에 이른다.

인조~순조의 기간에 제주지역에 열린 고시를 시재(試才)였다면 철종 조에 들어서면서 제주지역의 시재는 외방별시(外方別試)로 승격되는데, 철종 5년(1854) 갑인제주별시방(甲寅濟州別試榜), 철종 14년(1863) 계해제주별시방(癸亥濟州別試榜)이란 명칭에서 나타난다.⁵⁵⁾ 여기서 철종 이후 제주지역에서 직접 행해진 문과 고시의 급제인원을 포함시키고, 직명이 어사가 아닌 감찰관으로서 시재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경우⁵⁶⁾를 포함한다면 향시설치 이전의 조선전기 급제자 4인, 철종시기 인일제 급제자 이도남, 고종시기의 급제자 3인을 제외하면, 제주지역에서는 시재설행에 의하여 급제자가 배출되었고, 문과 급제자들의 입격(入格)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처럼 별견어사의 파견에 의한 시재의 설행은 17세기 이전의 문과 급제자들이 배출되기 어려웠던 두 가지 원인인 지역적 단절성과 그에 따른 정책·행정상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줌으로써 조선 후기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의 증가의 한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어사의 파견에 의한 시재만으로는 제주지역의 문과급제자 배출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직부전시(直赴殿試)이다.

2) 직부전시(直赴殿試)

- 55) 濟州牧別科文科榜.(『국조방목』 권20 철종조 갑인 7월 29일).
 濟州牧別科文科試取榜.(『국조방목』 권20 철종조 동치 2년 6월 초2일).
 濟州別科 取金命岳等三人. (『순조실록』 권6 5년 7월 29일 병인조).
 察理使李建弼設文武試取 士文科宋祥淳金炳洙高景峻慎哉祐韓錫胤五人 武科梁濟廈等三十人也 文武科壯元特授典籍主簿. (『탐라기년』 권4 철종 14년 1월 6일 계축조).
- 56) 순조 14년(1863)의 찰리사(察里使) 이재수에 의한 시재에 급제한 김영집·김영업·변경준·강계우 4인과 순조 25년(1825)의 예조좌랑(禮曹佐郎) 이필옥에 의한 시재에 급제한 김유가 있다.
 濟州儒武試取 儒生金英集等四人 武士金明勳等一百九十三人 并直赴殿試. (『순조실록』 권17 14년 4월 19일 갑자조).
 命科次濟州儒生試券 居首金柔 射居首朴景信 竝直赴殿試. (『순조실록』 권27 25년 12월 15일 정묘조).
 別遣禮曹佐郎李必玉賚 題以來令敬差官設場收試取 文科賜金柔一人. (『탐라기년』 권4 순조 25년 을유조).

『국조문과방목』, 『조선왕조실록』를 살펴보면 직부전시(直赴殿試), 직부(直赴), 혹은 직부급제(直赴及第)가 등장한다. 직부란 시험절차상 특혜를 주었던 제도로써 초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직부회시, 초시와 복시를 거치지 않고 전시에 응할 수 있는 직부전시(直赴殿試)가 있었다. 전시(殿試)⁵⁷⁾가 임금이 친림하여 행하던 최종시험으로 등급만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전시에 직부한다”는 것은 곧 급제를 의미하였다.

『국조문과방목』에서 제주직부(濟州直赴)가 기재된 인원은 28명인데, 이는 급제자의 49.1%로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실록과 15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방목에서 누락의 가능성이 있기에 실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겠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중 직부전시의 특권을 얻은 자는 총 43명으로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74.1%에 해당한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의 제주지역 직부전시자를 나타내는 표이다.

<표 2>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 중 직부전시자 목록

순번	성명	시기	순번	성명	시기
1	오섭	1623(인조 1)	23	김형중	1763(영조 39)
2	문영후	1664(현종 5)	24	장한철	1774(영조 50)
3	고홍진	1664(현종 5)	25	강봉서	1774(영조 50)
4	문징후	1664(현종 5)	26	김경희	1774(영조 50)
5	김계룡	1671(현종 12)	27	변경우	1781(정조 5)
6	김계창	1671(현종 12)	28	김용	1781(정조 5)
7	김계홍	1676(숙종 2)	29	강성익	1781(정조 5)
8	고기중	1676(숙종 2)	30	홍달훈	1794(정조18)
9	정희량	1680(숙종 6)	31	이태상	1794(정조18)
10	오정빈	1706(숙종 32)	32	고명학	1794(정조18)
11	정창원	1706(숙종 32)	33	부종인	1794(정조18)
12	고만참	1706(숙종 32)	34	김명헌	1794(정조18)
13	정창선	1716(숙종 42)	35	변경봉	1794(정조18)
14	고만갑	1716(숙종 42)	36	정태언	1794(정조18)
15	고처량	1716(숙종 42)	37	강계우	1814(순조 14)

57) 其科擧之法 本以爲國取人 其稱座主門生 以公擧爲私恩 甚非立法之意今後內而成均正錄所 外而各道按廉使 擇其在學經明行修者 開具年貫三代及所通經書 登于成均館長貳所試講所通經書 自四書五經通鑑已上通者 以其通經多少 見理精粗 第其高下爲第一場 入格者 送于禮曹 禮曹試表章古賦 爲中場 試策問爲終場 通三場相考入格者三十三人 送于吏曹 量才擢用 監試革去 其講武之法 主掌訓練觀 以時講習武經七書及射御之藝 以其通經多少 藝能精粗 第其高下 入格者三十三人 依文科例 給出身牌以名送于兵曹 以備擢用. (『태조실록』 권11년 7월 28일 정미조).

三十三人(甲科三人乙科七人丙科二十三人). (『경국대전』 권3 「예전」 제과조 문과전시).

額數三十三人, 甲科三人, 乙科七人, 丙科二十三人. (『대전회통』 권3 「예전」 제과조 식년문과전시).

16	변시중	1728(영조 4)	38	변경준	1814(순조 14)
17	이구성	1738(영조 14)	39	김영집	1814(순조 14)
18	양덕하	1738(영조 14)	40	김영업	1814(순조 14)
19	이수근	1738(영조 14)	41	신상흠	1823(순조 23)
20	김계중	1738(영조 14)	42	김유	1825(순조 25)
21	변성운	1763(영조 39)	43	이도남	1859(철종 10)
22	변성우	1763(영조 39)	총	43명	

<자료: 『국조문과방목』, 『조선왕조실록』, 본고 <표 1>, <부록 1> 참고>

<표 2>에서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직부전시자가 총 43명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도남(李道南)은 인일제(人日製)에 의한 직부전시인으로서,⁵⁸⁾ 제주지역의 고시가 외방별시로 승격되었던 관계로 철종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유일한 직부전시인이었다. 이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직부전시자들은 제주지역 시재의 급제자들이었고 직부전시의 특권이 내려졌다. 직부전시의 특권은 향시가 설행이 없었던 16세기 이전과 외방별시로 승격된 철종조와 문과설행이 없었던 고종조를 제외하고 인조~순조의 문과 급제자들에게 내려졌음을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직부전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은 성균관 유생이었다. 하지만 양난을 거치고, 직부전시는 지방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특정지역에서 실시된 시재에 직부전시의 특권이 이용되었다. 제주지역도 직부전시가 급제자 배출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제주지역의 직부인이 전시를 치른 후, 과차(科次)를 통하여 보면 쉽게 해석할 수 있다.

방목에서 확인되는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 중 57인의(김명현은 제외) 과차는 갑과 4명, 을과 4명, 병과 49명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갑과 4인은 조선 전기의 고득중, 고태정과 외방별시의 급제자 김명약, 송상순이었기에 가능하였다. 을과의 경우도 변성우와 백약순을 제외하고, 오승현, 고경준 역시 외방별시의 등수였다. 이들을 제외한 49명은 모두 시재에 의한 급제자로서 병과로 입격하였다. 여기에는 시재자체가 제술(製述)에 의해서만 치러진 고시였다는데 기인한 영향이 컸고, 조선 후기 급제자의 자질을 저하시켰던 원인으로서 나타난 현상이었다.⁵⁹⁾

외방별시는 지역에서 어사화(御史花)와 홍패(紅牌)⁶⁰⁾를 하사(下賜)받는 방방례

58) 御春塘臺 行人日製 賦幼學李道南鄭己龍 并直赴殿試. (『철종실록』 권11 10년 1월 27일 무술조).

59) 이원재, 앞의 책, 161쪽, 한만봉·정덕화·김진우, 앞의 책, 170~171쪽.

60) 홍패(紅牌): 『대전회통』 예전 새보(璽寶)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 시권과 홍패·백패(紅牌·白牌)에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홍패(紅牌)란 급제자에게 어사화(御史花)와 함께 수여한 문서였고 백패는 소과 급제자에

(放榜禮)가 시행되었지만, 시재의 직부전시는 도성인 한양에서 전시를 응시하여야만 급제의 당락이 결정되었다. 이때, 초시·회시를 거친 입격자들과 함께 과차를 정하였는데, 제주지역 급제자의 98%가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는 급제자로서 기본 자질의 문제성을 의미하였고, 17세기 이후의 급제자는 시재와 직부전시의 특권이 있었기에 입격이 가능했음을 뜻한다.

결국, 『현종실록』 6년 1월 7일 갑오조의 기사에서 사간원에서 일개 섬지역이 도과(道科)와 같은 3인의 직부인을 취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며 제주지역의 직부전시인 중 2인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⁶¹⁾ 하지만 당시 국왕 현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제주지역의 시재는 보통 2~3인의 급제와 직부전시의 특권이 상례화 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현종은 제주직부인에게 쌀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영조시기에도 제주직부인에 대한 배려차원의 식량지급이 있었다.⁶²⁾ 정조 18년 3월에는 유생의 시권(試卷)을 임금의 직접 채점하는데 대한 논의에서 제주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볼 수 있다.

(가) 신의 생각에는, 이 다음부터는 임금이 성적을 매겨서 반포한 뒤에 회시에 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거나 점수를 줄 사람에게는 직부첩(直赴帖)의 규정을 대략 모방하여 본각(本閣)에서 제때에 즉각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본각과 예조에서 각각 명부를 만들어 비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중략)...만일 실제 사고가 있어서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원시험이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이 진시(陳試)를 보는 예에 따라 서울은 예조에 그 사유를 제출하고 시골은 본관(本官)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본관은 이를 순영(巡營)에 보고하고 순영은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따로 그 명부를 만들어 제하한 뒤에 다음 번 과거에 응시하게 허락해야 합니다....(중략)...

게 수여하는 문서였는데, 『경국대전』 3권 예전에 홍패식(紅牌式)에는 다음과 같은 약식을 취한다.

교지(教旨)

구관(具官) 아무개는 문과(文科)의 병과(丙科) 제(第) 몇 인(人)으로 급제(及第) 출신(出身)한 자이다.
년(年)보(寶) 월(月) 일(日)

61) 諫院啓曰 頃於北關設科時 纔有三人賜第之命 今又有濟州儒生文榮後等三人 竝賜直赴殿試之命 臣等固知聖上此舉 實出聳動南北之盛意 而第念海外一島之試才 與關北一道設科宜有輕重之分 恩賞重典 不可濫施 居首儒生文榮後外 其餘二人 請還寢直赴殿試之命 上不從. (『현종실록』 권9 6년 1월 7일 갑오조).

62) 特命賜米于濟州登科者之父母 先是 濟州人登科 前典籍宋尙周上 疏請賜米以勸之 上問于領相洪命夏 對曰 此乃法外 雖不可擬之五子登科之類 遐荒子弟之登科 異於他處 惟在上特施恩典耳 上乃賜米. (『현종실록』 권14 8년 10월 11일 임오조).

上御崇賢門 親受文武科謝恩 命給濟州直赴人回糧. (『영조실록』 권105 41년 3월 29일 갑진조).

(이상 金東柱, 앞의 책, 429~430쪽, 梁鎭健, 앞의 책, 512~513쪽.)

전교하기를 “제주(濟州) 등에 특별히 어사를 파견하여 보인 시험에 합격하여 전시에 곧바로 응시하게 된 사람들도 증명서를 만들어 지급하라.” 하였다.⁶³⁾

(나) 어제(御題) 시(詩) 궐포귤유(厥包橘柚) 유학(幼學) 고명학(高鳴鶴)

四隰既宅九州同 네 모퉁이에 이미 집을 지으니 구주와 같고,

厥貢處處車馬走 곳곳에서 공물을 나르는 수레와 말이 달리도다.

團團霜橘一片島 서리 맞은 감귤은 한 조각 섬이고,

莫非聖恩天同覆 성인의 은혜는 하늘과도 같도다.

旁根洞庭雨未培 향기로운 나무뿌리는 통정에 비오지 않아 북돋지 못하고,

香實淮濱秋不秀 향기로운 열매는 회수의 물가에 돋지 못하여 시름이로다.

乾坤萬里水中浮 우주만리 아득히 물위에 떠있고,

路阻莫階如日就 험한 길은 명협같이 싹트고 짐을 헤아려 알도다.

天晴四海玉帛通 하늘 개이니 옥백 예를 통하고,

水低三江卉木茂 물 낮은 삼강은 초목(草木)이 무성하네.⁶⁴⁾

(가)에서 직부첩(直赴帖)이란 일종의 증명서 발부를 논의하고, 국왕 정조가 제주 시제에서 급제한 직부전시인에게 증명서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탐라빈홍록(耽羅賓興錄)』에 나오는 정조 19년(1795)의 급제자 고명학(高明鶴)의 시문(詩文)으로 순문어사(巡撫御史) 심락수(沈樂洙)가 도래(渡來)하여 시제설행시 시부(時賦)시험에서 고명학이 제출한 시권(詩卷)의 일부이다. (가)에서 국왕 정조는 직부첩을 만들어야한다는 중론이 모아져 이를 허락하고, 바다 건너 제주지역의 급제자들에게 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게 증명서 발부를 명하였다.

(나)에서 당시 시제(詩題)는 ‘궐포귤유(厥包橘柚)’였다. 이때 고명학은 시에서 ‘삼중(三中)’점수로 수석하게 된다.⁶⁵⁾ 그런데, 『탐라빈홍록』에는 제주지역의 과차점수 중 이 삼중(三中)이상의 점수를 받은 이가 없었다. 오히려, 국왕정조는 차하

63) 臣意則此後御考頒下後 直赴及給分人 略倣直赴帖之規 自本閣隨即成給 帖文亦自本閣禮曹 各爲成置案冊[……] 成給帖文事 定式施行 臣意則試考直赴給分人 亦當有帖文矣[……]如有有實故未赴者 依元榜初試陳試之例 京則呈于禮曹 鄉則呈于本官 轉報巡營 巡營報于禮曹 自禮曹別修成冊啓下後許赴後科[……]教曰 “濟州等別遣御史試取 直赴殿試者 亦爲成給帖文”. (『정조실록』 권39 18년 3월 3일 경인조).

64) 四隰既宅九州同 厥貢處處車馬走 團團霜橘一片島 莫非聖恩天同覆 旁根洞庭雨未培 乾坤萬里水中浮 路阻莫階如日就 天晴四海玉帛通 水低三江卉木茂. (『탐라빈홍록』 어제 시 궐포귤유 유학 고명학).

65) 조선시대 문과의 채점방법은 상중(上中)·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갱(更)·외(外)의 14등으로 나누어 삼하(三下) 이상, 즉 9등 이상의 점수를 뽑는 것이 관례였다. (曹佐鎬, 앞의 책, 167쪽.)

(次下)의 점수도 받지 못한 변경봉을 특별히 급제시키고 있다.⁶⁶⁾ 이는 국왕 정조의 특별한 배려로 당시 국왕들의 제주직부인에 대한 배려는 남달랐다.

특히, 현종 7년에는 갑진년(현종 5, 1664)의 제주무과 급제인이 태풍에 의하여 식년전시에 응시하지 못하자 특별히 별시전시에 응시하게 하였고,⁶⁷⁾ 문과는 숙종 2년(1676)에 나이 77세의 고령의 나이였던 제주직부인 김계중(金繼重)을 정시에 응시하게 하였다. 원래 직부전시자는 이듬해 식년전시에 응시가 원칙이었다. 『숙종실록』 51권 38년 2월 2일 을묘조의 기사에는 “처음에 문·무과 직부전시자는 다만 식년(式年)에만 나아가고 다른 시험에는 나아감을 얻지 못하였는데 증광시(增廣試) 및 별시(別試)에 나아가게 하였다.”⁶⁸⁾는 기록이 있다.

제주는 이미 현종조에 국왕의 배려로 별시전시에 응시할 수 있었고, 이후 제주 지역의 직부인들은 이듬해 봄의 식년전시를 벗어나 이외의 별시·정시의 전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⁶⁹⁾ 또한, 위의 기사처럼 증명서의 발부를 통한 직부인의 전시응시에 있어 천재지변 등의 사고에 의한 전시응시가 힘든 경우, 증명서의 발부를 통하여 다음 문과전시에 응시하게 하였고, 이때 제주직부인 7인 중 정태언(鄭泰彦)은 방목에 다른 동방 급제인들과 3년 늦은 정조 22년(1798)에 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증명서 발부에 의한 특권으로 뒤늦게 전시에 응시하여 문과에 급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숙종 32년(1706)에 직부전시인이었던 고만첨(高萬瞻) 역시 다른 동방 급제자 2인보다 1년 늦은 숙종 34년(1708)에 전시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역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국왕의 제주직부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보여진다. 결국, 국왕의 제주인에 대한 애민은 왕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제주지역에 대한 배려심에 기인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제주지역은 별건어사의 파견에 의한 시재설행과 직부전

66) 余文則初入外軸 不得次下之等矣[……]更令進其落軸 睿閱亂卷 特命擢置臣景鵬之文 以寶朱大書三下居魁. (邊景鵬, 『通政大夫司憲府掌令邊景鵬文集』 甲寅年設科時說).

67) 因司諫呂聖齊奏達 命賜額于鄭文學祠宇 聖齊啓曰 統制使鄭傳賢逐年之耗 違令不減 使朝廷德意 格而不行 請拿問定罪 上命姑先推考 兵判洪重普曰 濟州甲辰年直赴之人 當付於今春式年 而武舉子 阻風不及來 今者呈狀願付於別試 雖非常例 海外之人 宜有變通之道 上命從其願. (『현종실록』 권12 7년 9월 11일 무자조).

68) 初 文武科直赴殿試者 只赴式年 不得赴他榜 中間又命許赴增廣及別試. (『숙종실록』 권51 38년 2월 2일 을묘조).

69) 別試殿試 文科取柳命天等二十一人(內居末二人 濟州製述直赴) 武科取朴廷元等五百十三人. (『현종개수』 권 26 13년 10월 21일 임술조).

設文科庭試 取吳始萬等七人 濟州金繼興等二人以直赴附. (『숙종실록』 권5 2년 1월 26일 기유조).

先是濟州直赴四人中有金繼重者 年七十七 上以其年老 特命賜第且以遠在絕海 故命付於庭試矣. (『영조실록』 권50 15년 9월 28일 임신조).

시의 특권이 상례화되기 시작하였다.⁷⁰⁾

하지만, 이 같은 이유만으로는 제주지역의 문과운영양상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10~20년을 주기로 하는 간헐적인 시재설행의 또 다른 이면에는 각종 재난과 변란에 따른 민심동요를 막기 위한 회유책이란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시재설행 시 제주지역에 파견된 13명의 어사들은 위유(慰諭)·선유(宣諭)·순무(巡撫)·별견(別遣) 등 다양한 직책으로 각각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시재의 임무가 주된 최진운, 윤심, 김상석, 이도원의 4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어사들은 제주지역에 발생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파견되었는데,⁷¹⁾ 당시 제주의 상황은 기근에 의한 아사자(餓死者)의 속출로 진휼을 위한 어사의 차송, 제주지역의 변란⁷²⁾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어사파견, 수령의 실정(失政)에 대한 조사에 대한 안사(按査)의 임무를 부여받은 어사의 파견, 돌림병이 창궐하여 많은 인명피해에 따른 민심위유의 어사파견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9명의 어사들의 임무 중 하나가 시재였는데, 회유책으로서 시재가 사용되고 있다. 즉, 시재어사를 제외한 각 파견어사들은 임무의 수행과 해결함에 있어

- 70) 이러한 제주지역문과 실행에 대한 견해는 선행연구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朝鮮朝 濟州의 科擧運營과 入格者」에서는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를 국왕이 지방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차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朝鮮朝 濟州教育史 形成의 政策的 動因」에서는 회유책의 일환에 의한 시재의 실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바탕에 당시 시대·정치적 상황을 통하여 제주지역 문과운영을 설명하고 있음을 밝힌다.
- 71) 遣副校理李夏 宣諭濟州 朝廷以濟州三邑 尤甚饑荒 人民多死 不可無慰諭之舉 遂以夏爲宣諭御史 往諭之. (『현종실록』 권19 12년 9월 16일 갑자조).
濟州巡撫使李選 相繼出去 節目則同 濟州則設文武科取人 且以辛亥年 糶穀一併除豁之意 別諭以遣 從廟堂議也. (『숙종실록』 권3 1년 3월 9일 정묘조).
濟州別遣御史黃龜河請對言 濟州饑民之數 至於四萬七千餘口[...]請令廟堂 加給三千石 上許之. (『숙종실록』 권57 42년 1월 22일 계축조).
以李壽鳳爲濟州慰諭御史 仍令試才 蓋新經逆變 島民疑懼故也. (『영조실록』 권102 39년 10월 3일 병술조).
本州遐遠 王化不及 前後守宰 亦未能宣揚朝廷之德意 故島俗之愚迷實由於此 御史今行 非但勞來安集而已 民隱之未能上達 獄訟之不得斷決者 亦爲一一探探究覈 使遐氓 咸知朝家德音. (『정조실록』 권11 5년 6월 20일 신묘조).
掌令姜鳳瑞上疏曰 耽羅一島 屢值凶荒 去年秋事之大無 前所未有 自冬至夏 民人饑死 不知幾千名 今年八月 又連日大風 旌義大靜 殆同赤地 濟州左右面 被災亦酷 來春呼飢必倍於今年. (『정조실록』 권38 17년 11월 11일 경자조).
敎曰 今見濟州牧使狀辭 沴氣熾盛 蕞爾小島 人命之損 至過數千不勝驚慘 令廟堂 差送慰諭御史 與濟牧 設行慰安祭 以慰島民生死之心 仍察民間疾苦以來 以趨庭和 啓差慰諭御史. (『순조실록』 권25 22년 10월 19일 경신조).
- 72) 上御太僕 親鞫罪人榮集·榮喆陽復及濟州人姜翊·周·月中梅·榮集·榮喆 泰考之孫也 先是榮得既謀逆伏誅 而辭連於諸囚 至是拿至 上親臨鞫之 鞫畢 命囚榮喆·榮集于王府 陽復嚴刑三次 黑山島爲奴 月中梅黑山島爲婢 姜翊周嚴刑二次 鍾城府勿限年定配. (『영조실록』 권102 39년 11월 20일 계유조).

제주민들, 특히 지방의 유력세력들의 회유의 방법으로 시재를 실행하였고, 양반 계층들은 이 시재를 자신들의 권력유지, 혹은 입신양명의 기회로서 이용하였다. 결국, 시재는 인재를 가려 뽑기 위한다는 과거의 본질과 함께 제주민을 향한 회유책이란 정치목적이 있었으며, 실효를 거두었다.

실제로 순조시기, 제주지역에 일어난 양제해(梁濟海)의 모변(謀變)은 차임(差任)을 둘러싼 인사문제, 수령과 이교배(吏校輩)들의 부정, 수취체제의 문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⁷³⁾ 후술하겠지만, 문과 급제자의 동향을 살펴보면 17세기 이후 제주지역은 혈연·혼인·학연으로 연결된 인척관계의 형성에 의하여 문과 급제자의 다수가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인척관계형성은 급제를 통해 양반 신분을 유지시킴으로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유력세력으로 존속하게 하였다. 결국,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기타 성관들은 문과급제에서 도태되고, 지배계층에 대한 열망과 불만의 표출로서 변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향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문과급제는 지배계층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고, 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재가 사용되었다.⁷⁴⁾ 이는 각 어사를 파견했을 당시에 국왕이 직접 보낸 위유서(慰諭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⁷⁵⁾

제주지역의 시재실행은 영·정조 시기의 과거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영조와 정

73) 權仁赫, 「19세기초 梁濟海 某邊의 實狀과 그 性格」, 『耽羅文化』 7호(탐라문화연구소, 1987), 128~136쪽.

74) 이원재는 별시자체가 무일관성을 보이고, 별시의 원래목적인 성균관 유생의 교육활성화의 의미가 사라지고 전국의 유생에게 개방되면서, 응시자에 의하여 별시의 실시가 좌우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결국 조정에서는 응시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민심 회유의 방편인 정치적 수단으로서 시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원재, 앞의 책, 144~155쪽.)

75) 至於試取文武 既令遵舊例矣 甄拔人才 亦將疏滯鬱矣 冤而不暴者予當伸之 弊之未祛者 予當鑷之 惟爾士民 勿以予爲空言 而體予至意 少紓愁冤之氣 無懷渙散之念 安其田里保其 家室 以副予惻怛撫循之意焉. (『숙종실록』 권57 42년 2월 2일 계해조).

吁嗟彈丸一島 麥事又歉 每覽狀聞 若痛在己 儲穀枵然 玉食奚甘罪謫相望 主客俱困 而梟獍餘種 隱匿負犯 誑惑島民 逮捕至及於座首官吏 一州之民 豈不搔擾 念及於此 丙枕靡安 茲遣御史 先行慰諭 仍命試才 深念本州民向國之誠 豈一毫疑也 咨爾島中大小民 咸聽此諭 各安其心故茲教示 想宜知悉. (『영조실록』 권102 39년 10월 7일 경인조).

又命前弘文館應教朴天衡 爲御史 往布予心腹 仍令設科試取 此正有願必送 有才必用之會也 咨爾大小軍民 靜聽予申懇之諭 克體予採訪之意 無隱于予. (『정조실록』 권11 5년 6월 26일 정유조).

迺有臺言出 而疑信多端 民之云苦 若已推諸 茲命弘文館校理沈樂洙爲御史 往哉汝覈有罪無罪 無漏無濫 俾既厥事 又思之 耽羅之見繡衣 在十有二年之後 抑關於 於其行也衆瘼詢咨也 苦役釐革也 庶獄伸理也 人才搜訪也 高年晏樂也 善惡彰擿也 文武試取也 田政浦政戎政 馬政之飭勸也 邑守 鎮帥之臧否黜陟也 爰命壽司之 臣條列齋其行. (『정조실록』 권38 17년 11월 24일 계축조).

諭濟州大靜旌義民人等 教曰咨爾耽羅民人 爾所居 卽重溟一島遼矣之鄉也 飢焉待哺而惠不及施 窮斯望濟而 仁不暇恤[...]. 特命司憲府執義趙庭和 爲慰諭御史 往布予數心之諭 仍與本牧 設祭以慰安之 兼察爾等疾苦以來. (『순조실록』 권25 22년 10월 19일 경신조).

조 시기에는 제주지역 직부전시 평균인원이 4~6인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과거정책이 있었다. 당시 중앙정치는 노론(老論)에 의한 일당집권(一黨執權)을 형성하였다. 영·정조는 신권(臣權)성장에 대한 대책으로 탕평책(蕩平策)을 이용한 과거정책으로 선발된 신진관료를 국왕의 직속관료단(直屬官僚團)으로 구성하여 신권의 의도적 세력 균등을 통한 왕권강화에 이용하였다.⁷⁶⁾ 당시 18세기에 제주지역에서도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47.4%에 해당하는 27명이라는 급제자가 배출되고 있었다. 영·정조시기만을 놓고 보아도 전체 급제자의 1/3에 해당하는 36.8%인 21명이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정책목적이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인원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렇게 과거정책에 따른 시재설행과 직부전시의 남용은 많은 급제자를 양산하였으며, 이는 관직의 배분에도 큰 문제를 나타나게 된다.⁷⁷⁾

전술하였지만, 직부전시는 원래 이듬해의 식년에 있는 전시에 출석하여 고시를 치르는 것이 전례(前例)였다.⁷⁸⁾ 하지만, 이러한 통례(通例)는 점차 바뀌게 된다.⁷⁹⁾ 『영조실록』 28년(1752) 9월 19일 병자조의⁸⁰⁾ 기사를 보게되면 “금일 정시의 전시에 친림하여 이명환(李明煥) 등 20명과 직부한 사람인 이우(李堦) 등 5명을 뽑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그러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 기사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또 다른 사실은 숙종조 이전의 직부전시 인원이 3명을 넘지 못했으나, 이때에 이르러 직부전시인이 5명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정조실록』 39권 18

76) 車美姬, 앞의 책, 7~14쪽.

77) 兩司啓李芑事 不允 諫院啓曰祖宗朝舊章 後嗣 所當遵守而勿失者也 若因一時之議 而或開變法之端 則弊將無所不至 豈不慎重 國家文武科額數 昭載法典 直赴三人 命取於三十三人之外 大非先王舊章 前者偶用一人於額外 今至竝用三人 弊端一開 將至於十倍其數 請速還收成命 憲府啓曰 文科三十三人 武科二十八人 祖宗朝酌定其數 載在令甲 堅如金石 不可以一時之議 有所增減 以啓後日毀法之端 今以大臣之啓 直赴殿試儒生三人 命取於三十三人之外 大違遵守祖宗成憲之意 設令後日直赴者 其數倍多於此 而竝令許赴於數外耶 請速還收成命 答曰文武直赴人數外試取 此非新法 自先王朝有之 大臣議而啓之 不須改之. (『명종실록』 권13 7년 3월 15일 정유조).

憲府啓曰大臣請以直赴三人 取於三十三人定額之外者 此乃廣取之意也 臺諫請取於定額之內者 此乃執法之意也 既以大臣之議 命取於額外 而臺諫論啓 則武科出榜之時 更稟上命可也 監試官等 既與同僚 同議論啓 而反從額外之議 遽即出榜 至爲非矣 請遞 此事雖不大關 臺諫失體而在職未安 故敢啓 答曰 文武一體 文科已令數外取之 武科獨不用之於數外乎不允 後累啓依允. (『명종실록』 권13 7년 3월 17일 기해조).

78) 諫院啓曰凡直赴殿試儒生 例於式年許赴 其來已久 今次別舉 以該曹所啓 曾爲直赴殿試人等(趙光玉洪曇)徑許入試 科舉重事 別開新例 恐有後弊 且恩命 當自上出 而該曹擅啓 至爲非矣 請收成命 答曰直赴殿試人 例用於式年 而不用於別試矣 禮曹來啓時 予亦以爲不可也 然禮曹非擅啓之乃見朝議如是 故啓之耳 如是則明年式年之數 亦似恢廣也 不允. (『중종실록』 권92 34년 11월 23일 병진조).

79) 上下教曰 直赴殿試人 今此別試許赴. (『인조실록』 권45 22년 9월 2일 정해조).

80) 上親臨庭試殿試 取李明煥等二十人直赴李堦等五人. (『영조실록』 권77 9월 19일 병자조).

년(1794) 4월 21일 정축조의 기사⁸¹⁾에는 제주에 차송된 별견어사 심낙수에 의하여 시재가 설행되어 7인이 급제자를 배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직부전시인 7명은 직부인의 증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직부전시인의 증가는 19세기 조선의 인사문제의 문란이었던 과거제의 문란과도 연결이 되는 한 가지의 전례로서 영향을 주게 된다.

19세기 철종이후 고종조에 들어서면, 제주지역의 문과운영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고종실록』 권11 4월 21일 계유조의 기사⁸²⁾에는 시권(試券)에 소속 도(道)와 함께 제주와 개성 역시 지역을 쓰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을 특별히 지목하여 그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고종조 제주지역 고시설행을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혜는 사실상 무용지물로서 당시 과거제의 문란에 악용되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이다.

(가) 제주(濟州)의 응시자들은 바다를 건너 멀리서 응시하기 때문에 노고가 하도 딱 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권(試券) 첫머리에 고을 이름을 쓰게 하였는데, 이것은 특별히 진념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속임수로 차지하는 폐단이 있게 되어 본주(本州)의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마침내 낙방하는 탄식이 있게 하였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구성희(具星喜)를 원래의 방목에서 빼 버린 뒤에 제주목(濟州牧)에 충군(充軍)하여 그 지방 선비들의 마음에 사과하도록 하라.⁸³⁾

(나) 과거를 볼 때에 도호(道號)를 쓰도록 명하고 또 제주(濟州)라고 특별히 쓰라는 명이 있었던 것은, 대개 먼 데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골고루 입히시려는 성대한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의 간사한 무리가 함부로 제주라고 써서 요행히 속여서 대과(大科)와 초시(初試)에 급제한 자가 수십 명뿐만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래 거주하는 사람은 번번이 낙방하였으나 궁벽한 시골에서는 억울한 마음을 품고도 멀어서 상달(上達)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조(禮曹)에서 ‘제주’ 두 자를 새겨 직인을 만들어 제주 유생에게 내려주어 시권(試券) 첫머리에 찍게 한다면, 먹으로

81) 濟州御史沈樂洙 試取儒生收券上送 親臨科次 論居首大靜幼學邊景鵬策居首旌義幼學夫宗仁 詩居首旌義幼學高鳴鶴 賦居首濟州幼學洪達助 銘居首濟州幼學李台祥 頌居首濟州幼學鄭泰彥 并直赴殿試 策之次大靜幼學金命獻 以八十一歲 特賜第. (『정조실록』 권39 18년 4월 21일 정축조).

82) 今番覆試 異於他試 書頭各書道號 又書濟州開城 精白對揚 以示同慶之意. (『고종실록』 권11 11년 4월 21일 계유조).

83) 濟州舉子 駕海遠赴 勞苦可悶 使之頭書邑名 特出軫念 而乃有此偽冒圖占之弊 使本州儒生 竟抱漏榜之歎 豈非可痛乎 具星喜原榜目拔去後 濟州充軍 以謝一境人士之心. (『고종실록』 권1 1년 5월 14일 계축조).

제주라고 쓴 것은 속인 것이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⁸⁴⁾

위의 (가), (나)의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고종시기 제주지역에서 별도의 고시가 설행되지 않았고, 대신 시권(試券)의 첫머리에 ‘제주(濟州)’란 거주지를 기입함으로써 제주지역 응시자에게 혜택을 주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의 구회성의 예와 (나)의 상소처럼 과거제의 문란속에서 거주지의 표시는 과거부정에 악용되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되고 이었다. 이러한 과거제의 문란으로 문과급제를 통한 등용문의 한계는 조선말에 소과 급제자의 증가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제주지역에서 문과 급제자가 배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조원년을 시작으로 제주지역의 문과운영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외방별시의 일종인 별견어사(別遣御史)의 파견과 시재설행(試才設行)은 제주지역의 문과고시 응시자들에게 불편을 덜어주었고, 동시에 제주지역내에서의 경쟁과 제술(製述)에 의한 시험, 단일과의 성향, 직부전시의 특권은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배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84) 科試時命書道號 則又有特書濟州之令者 蓋欲使遐遠之地 均被寵拔之盛意 而他道奸僞輩 冒書濟州 幸竊大科及初試 不翅爲數十名 由是原居人 每每漏榜 窮鄉齋鬱 遠莫上達矣 特自禮曹刻爲濟州 二字圖書 下給濟州儒生 踏於券首 則其於墨書 僞冒自現矣. (『고종실록』 권23 23년 3월 3일 병신조).

Ⅲ.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 분석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를 기록한 사료로는 『국조문과방목』, 『조선왕조실록』, 『탐라지초본』, 『진신선생안』, 『탐라기년』, 『탐라관풍안』이 있다. 전술하였지만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실태파악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제주유맥육백년사』, 『탐라실록』, 『제주교육행정사』, 『심재집』,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에 급제자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분석에 있어서 앞선 선행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술한 기본사료를 재확인작업을 통하여 급제자의 실태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의 분석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급제인원수의 파악이다. 문과 급제자들의 인원은 선행연구와 각 사료마다 그 수와 인물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제주유맥육백년사』 「조선조 제주의 과거운영과 입격자」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한 정확한 실태 파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신선생안』과 『사마선생안(司馬先生案)』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조문과방목』 중심으로 인원을 분류하고 있다.⁸⁵⁾ 여기서 본고의 인원수와 차이를 나타내는데, 본고에서 급제자로 포함하고 있는 고득중(高得宗), 고태필(高台弼), 고태정(高台鼎)은 향시설행 이전을 이유로 제외하여, 『국조문과방목』에 거주지가 기재된 총 53명을 급제자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의 조사에서 고득중 일가 4명을 제외하여도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는 총 54명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급제자의 인원수 차이는 순조 17년(1817)의 급제자 ‘김영업(金英業)’의 차이로 나타난다. 『제주유맥육백년사』에서는 『진신선생안』, 『탐라기년』의 급제자 명단에 김영업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국조문과방목』의 명단에는 김영업이 누락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김명헌(金命獻)’에게서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 조사 수집한 바로는 김명헌은 방방(放榜) 되기 전에 졸(拙)하여 방목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다른 사료에서는 그의 급제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김명헌과 김영집이 기입에서

85) 金東柱, 앞의 책, 455~459쪽.

본고와 조사과정의 차이에 의하여 급제인원의 산정결과에서 본고와 1인의 인원 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교육행정사』와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에서는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인원수를 『진신선생안』의 명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⁸⁶⁾ 여기서 또한, 『진신선생안』의 급제인원 중 숙종 33년(1707)에 시행된 시재의 급제자인 오정빈(吳廷賓)·정창원(鄭敞遠)·고만첨(高萬瞻) 3명을 빼놓고 있다. 또한,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에서 역시 『진신선생안』의 예를 들어 문과 급제자를 53명이라 소개하고 있다.⁸⁷⁾ 하지만, 숙종 33년(1706)의 급제자 오정빈·정창원·고만첨의 3인의 급제자를 빼놓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여기서 숙종 6년(1680) 숙종경신방(肅宗庚申榜)의 급제자 정희관(鄭希寬: 希良)을 숙종 33년(1706)의 급제자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조 제주의 과거운영과 입격자」와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3인은 『진신선생안』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진신선생안』의 명단에 수록된 급제연도 미상인 김계충(金繼忠)과 세종 17년(1435)의 급제자 고득중(高得中), 선조 34년(1601)의 급제자 정응정(鄭應禎)은 다른 사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국조문과방목』에 기록된 철종 10년(1859)의 급제자 이도남(李道南), 고종조 급제자인 이면재(李勉宰)·백악순(白樂舜)·홍현일(洪顯一)에서 본고의 급제인원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조사과정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이외에 『탐라실록』과 『심재집』에서는 각각 52명, 56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탐라실록』은 단종 2년(1454)년의 급제자 고태익(高台翼), 세조 5년(1459)의 급제자 고태정, 철종 10년(1859)의 급제자 이도남, 고종조 급제자인 이면재·백악순·홍현일이 제외되었고, 『심재집』에서는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관풍안』을 그대로 제시하여 본고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⁸⁸⁾

이렇게 선행연구들의 급제자 인원수의 차이를 나타나게 된 이유로는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각 사료의 인원수와 급제 인물의 차이에 따른 조사방법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 문과 급제자의 실태분

86) 梁鎭健, 『濟州教育行政史』(제주문화, 1991), 137~138쪽.

87) _____, 「朝鮮朝 濟州教育史 形成的 政策的 動因」『韓國教育史學』21집(한국교육사학회, 1999), 513쪽.

88) 韓致文, 앞의 책, 98쪽, 金石益 著, 杻文會 편저, 앞의 책, 281~288쪽.

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각 사료를 통한 조선시대 문과급제 인원수의 산정이었다.

각 사료에 나타난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인원은 『국조문과방목』 57명, 『조선왕조실록』 49명, 『탐라지초본』 40명, 『진신선생안』 56명, 『탐라기년』 55명, 『탐라관풍안』 53명으로 서로 다르게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탐라기년』, 『진신선생안』의 경우 인원수는 같지만 급제자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조문과방목』에서 향시설행을 기준으로 거주지가 제주지역인 급제자를 파악하면, 다른 사료와 다르게 고득중·고태필·고태익·고태정은 급제인원에서 제외되며, 고종시기 급제자인 이면재·백약순·홍현일은 다른 사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명헌(金命獻)은 방방(放榜)이 되기 전에 사망하여 방목에서 제외되어 있고, 김경회(金慶會)는 본관(本貫)이 사료마다 다르게 기재되고 있다. 이들이 과연 동일 인물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석규(韓錫奎) 역시, 다른 사료에는 한석운(韓錫胤)으로 기재되고 있어 이들이 과연 동일 인물인지에 대한 논의도 풀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 문과 급제자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인원수 파악은 결코 쉽지 않다. 전술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의하여 선행연구들은 급제인원의 파악에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급제인원의 파악에 기준이 되는 사료의 선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인원수 산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사료로 『국조문과방목』을 택하기로 하겠다. 이는 선행연구인 「조선조 제주 의 과거운영과 입격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진신선생안』의 경우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점과 『탐라기년』과 『탐라관풍안』은 편찬연대에 따른 정확성에 따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⁸⁹⁾ 이에 반하여 『국조문과방목』은 관찬사서이자 급제

89) 金東柱, 앞의 책, 454쪽.

자의 출사와 직결되는 문과전시 급제자를 시기별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정확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급제 인원수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사료로 『국조문과방목』을 채택하였음을 밝힌다. 그렇다고 다른 사료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선행연구인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에서 사용되어진 『진신선생안』의 경우 국조방목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급제자가 등장하고 있음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조문과방목』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또 다른 관찬사서인 『조선왕조실록』을 비교하여 기록의 일치여부를 통한 자료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국조문과방목』의 급제자 기록을 중심으로 급제인원수를 산정할 것이다. 이후 방목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다른 사료에 기록되어진 급제자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비교하여 급제자로서 기록이 되어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며, 방목에는 기록되어있으나 거주지나 본관이 다르게 기록되어있는 급제자의 경우, 다른 사료를 통한 검증작업을 거쳐 그들이 제주인인지 확인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방목의 기록된 이름과 다르게 기록되어진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사료의 검증을 거쳐 확인하였음을 밝힌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문과 급제인원수 파악에 있어 급제자로서 포함여부에 기준이 되는 원칙을 정한다면 첫째, 기본사료로서 급제자명부로 저술된 관찬사서인 『국조문과방목』의 기록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제주지역인(정의·대정포함) 급제자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의 일치 확인여부, 둘째, 방목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다른 사료에 기록되어진 급제자의 기재내용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의 일치 여부, 셋째, 급제자가 확실한 제주인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원칙 중 두 가지 이상이 일치되는 급제자를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로 산정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문과 급제자의 인원수 파악에 있어 『사마선생안』의 자료를 인용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자료의 정확성문제와 문과(대과) 급제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과 급제자 중 중복되는 문과 급제자가 2인 뿐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사마선생안』의 기록은 생략하였고, 후술할 고종시기 문과 급제자를 설명할 때, 소과 급제자와 관련지어 설명하였음을 밝힌다.

다음은 각 사료에 나온 제주출신 문과 급제자의 명단을 나타낸 표이다.

<표 3> 각 사료별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 명단⁹⁰⁾

사료 년도	문과 방목	왕조 실록	탐라지 초본	진신 선생안	탐라 기년	탐라 관풍안
1414(태종 14)	고득중	고득중	고득중	고득중	고득중	고득중
1435(세종 17)	-	-	-	고득중	-	-
1451(문종 1)	고태필	고태필	고태필	-	고태필	고태필
1454(단종 2)	고태익	고태익	-	-	-	-
1459(세조 5)	고태정	고태정	고태정	-	고태정	고태정
미상(未詳)	-	-	-	고태필 고태정 김계충	-	-
1601(선조 34)	-	-	-	정용정	-	-
1623(인조 1)	-	오섬	오섬	오섬	오섬	오섬
1624(인조 2)	오섬	-	-	-	-	-
1664(현종 5)	-	문영후 문징후 고홍진	문영후 문징후 고홍진	문영후 문징후 고홍진	문영후 문징후 고홍진	문영후 문징후 고홍진
1666(현종 7)	문영후 문징후 고홍진	-	-	-	-	-
1671(현종 12)	-	김계룡 김계창	김계룡 김계창	김계룡 김계창	김계룡 김계창	김계룡 김계창
1672(현종 13)	김계룡 김계창	-	-	-	-	-
1675(숙종 1)	-	김계홍 고기중	김계홍 고기중	김계홍 고기중	김계홍 고기중	김계홍 고기중
1676(숙종 2)	김계홍 고기중	-	-	-	-	-
1680(숙종 6)	정희량	3인급제, 후에 2인 부정삭과	정희관	정희관	정희량	정희관
1706(숙종 32)	-	-	-	오정빈 정창원 고만첨	오정빈 정창원 고만첨	오정빈 정창원 고만첨
1707(숙종 33)	오정빈 정창원	오정빈 정창선 고만첨	오정빈 정창원 고만첨	-	-	-
1708(숙종 34)	고만첨	-	-	-	-	-
1710(숙종 36)	-	-	-	김계중	김계중	김계중
1716(숙종 42)	-	고만첨 고만갑 고처량	고만갑 고처량	정창선 고만갑 고처량	정창선 고만갑 고처량	정창선 고만갑 고처량
1717(숙종 43)	고처량 정창선 고만갑	-	정창선	-	-	-
1727(영조 4)	-	변시중	-	변시중	변시중	변시중

1728(영조 5)	변시중	-	변시중	-	-	-
1738(영조 14)	- - -	- - -	- - -	이구성 양덕하 이수근	이구성 양덕하 이수근	이구성 양덕하 이수근
1739(영조 15)	김계중 이구성 양덕하 이수근	김계중 이구성 양덕하 이수근	김계중 이구성 양덕하 이수근	- - - -	- - - -	- - - -
1763(영조 39)	- - -	위유어사 의 시재	- - -	변성운 변성우 김형중	변성운 변성우 김형중	변성운 변성우 김형중
1765(영조 41)	변성운 변성우 김형중	- - 김형중	변성운 변성우 김형중	- - -	- - -	- - -
1774(영조 50)	- - -	- - -	- - -	장한철 강봉서 김경희	장한철 강봉서 김경희	장한철 강봉서 김경희
1775(영조 51)	장한철 강봉서 김경희	장한철 강봉서 김경희	장한철 강봉서 김경희	- - -	- - -	- - -
1781(정조 5)	- - -	- - -	- - -	변경우 강성익 김용	변경우 강성익 김용	변경우 강성익 김용
1782(정조 6)	- - -	변경우 강성익 김용	- 강성익 -	- - -	- - -	- - -
1783(정조 7)	변경우 강성익 김용	- - -	- - 김용	- - -	- - -	- - -
1794(정조 18)	- - - - - -	홍달훈 이태상 고명학 부종인 변경봉 정태언 김명현	- 이태상 고명학 부종인 변경봉 - 김명현	홍달훈 이태상 고명학 부종인 변경봉 정태언 김명현	홍달훈 이태상 고명학 부종인 변경봉 정태언 김명현	홍달훈 이태상 고명학 부종인 변경봉 정태언 김명현
1795(정조 19)	홍달훈 이태상 고명학 부종인 변경봉	- - - - -	- - - - -	- - - - -	- - - - -	- - - - -
1798(정조 22)	정태언	-	정태언	-	-	-
1814(순조 14)	- - - -	- - 김영집 등 4인	- - - -	강계우 변경준 김영집 김영업	강계우 변경준 김영집 김영업	강계우 변경준 김영집 김영업
1815(순조 15)	강계우 변경준	- -	변경준 -	- -	- -	- -

1817(순조 17)	김영집 김영업	- -	김영집 김영업	- -	- -	- -
1822(순조 22)	-	신상흠	-	-	신상흠	신상흠
1823(순조 23)	신상흠	-	-	신상흠	-	-
1825(순조 25)	-	김유	-	김유	김유	김유
1829(순조 29)	김유	-	-	-	-	-
1854(철종 5)	김명악 오승현 박수용	김명악 등 3인 -	- - -	김명악 오승현 박수용	김명악 오승현 박수용	김명악 오승현 박수용
1859(철종 10)	이도남	이도남	-	-	-	-
1863(철종 14)	송상순 고경준 신재우 김병수 한석규	- - - - -	- - - - -	송상순 고경준 신재우 김병수 한석윤	송상순 고경준 신재우 김병수 한석윤	송상순 고경준 신재우 김병수 한석윤
1885(고종 22)	이면재	-	-	-	-	-
1887(고종 25)	백약순 홍현일	- -	- -	- -	- -	- -
총 인원	총 61명(중복인원 51명)					

(자료: 『국조문과방목』, 『탐라기년』, 『탐라관풍안』, 『진신선생안』, 『탐라지초본』, 『조선왕조실록』, 본고 <부록 1, 2, 3, 4> 참고, 이 글씨체는 문제점이 있는 인원 표시, 빈 곳은 -로 표시.)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심이 되는 기본사료인 『국조문과방목』과 중복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은 고득종(高得宗)·고대필(高台弼)·고대정(高台鼎)·오섬(吳暹)·문영후(文榮後)·문징후(文徵後)·고홍진(高弘進)·김계룡(金繼隆)·김계창(金繼敞)·김계흥(金繼興)·고기종(高起宗)·정희량(鄭希良)·오정빈(吳廷賓)·정창원(鄭敞遠)·고만첨(高萬瞻)·고처량(高處亮)·정창선(鄭敞選)·고만갑(高萬甲)·변시중(邊是重)·김계중(金繼重)·이구성(李九成)·양덕하(梁德夏)·이수근(李壽根)·변성운(邊聖運)·변성우(邊聖遇)·김형중(金衡重)·장한철(張漢喆)·강봉서(姜鳳瑞)·김경회(金慶會)·변경우(邊景祐)·강성익(康聖翊)·김용(金垆)·홍달훈(洪達勛)·이태상(李台祥)·고명학(高鳴鶴)·부종인(夫宗仁)·변경봉(邊景鵬)·정태언(鄭泰彦)·강계우(姜繼遇)·변경준(邊景俊)·김영집(金英集)·김영업(金英業)·신상흠(慎尙欽)·김유(金柔)·김명악(金

90) 『濟州濡脈六百年史』 「朝鮮朝 濟州의 科擧運營과 入格者」에서는 문과 입격자 명단을 『사마선생안』, 『진신선생안』, 『국조문과방목』, 『탐라기년』을 통하여 비교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조문과방목』에 거주지가 제주지역으로 표시된 53명의 문과 급제자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에서 실질적으로 출사와 관련이 없고 문과 급제자와 2명뿐 겹치지 않는 『사마선생안』은 제외하고, 『조선왕조실록』, 『탐라지초본』, 『탐라관풍안』의 급제자 명단을 추가하여 앞선 선행연구의 재확인작업을 함과 동시에 그를 통하여 급제자명단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힌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인 문과 급제자의 인원수 파악에서 선행연구와 같은 『국조문과방목』의 기록을 중심으로 다른 사료에서 방목과 중복되지 않거나 기록이 다른 문과 급제자의 급제인원 포함에 그 초점을 맞췄다.(金東桴, 앞의 책, 445~459쪽.)

命岳)·오승현(吳承鉉)·박수용(朴秀龍)·송상순(宋祥淳)·고경준(高景俊)·신재우(愼裁佑)·김병수(金炳洙) 51명으로 확인된다. 이들 51명은 확실한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국조문과방목』의 고태익·이도남·한석규·이면재·백악순·홍현일과 『진신선생안』의 고득중·김계충·정응정·김명헌·한석윤 11인의 급제인원의 포함여부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국조문과방목』의 기록을 중심으로 인원수 파악할 때, 거주지 문제나 다른 사료에 등장하지 않는 11명의 급제자 중 고태익·이도남·한석규·이면재·백악순·홍현일 6인을 포함시켜 급제자의 총 인원은 57명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진신선생안』의 고득중·김계충·정응정·김명헌·한석윤 5명의 포함여부이다. 이들을 급제자로서 포함시키에는 『진신선생안』의 사료적 정확성의 결여로 문제점을 안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종 사료를 통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전술한 『국조문과방목』의 급제자로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입격자를 재확인하는 작업역시 필요하다. 특히, 거주지가 미상인 고득중·고태필·고태정은 선행연구에서 향시이전의 급제자라는 점에서 제외되고 있다.⁹¹⁾ 그리고 김경희는 『국조문과방목』에서 본관이 ‘金海’로 기록되었으나, 『진신선생안』에서는 본관이 ‘慶州’로 기록되어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두 기록의 차이에 따라 서로가 동일인물인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제주지역 문과 급제인원수 파악에 있어 이들 불분명한 15명의 급제자의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이들 중 어떤 인물을 포함시키고 제외하느냐가 급제인원수의 파악에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향시설행 이전의 급제자인 제주 고씨 5인의 급제인원 포함여부를 시작으로 급제인원의 산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1) 향시설행 이전의 급제자 5인

고득중 일가의 문과 급제시기가 향시설행(鄕試設行)이전의 시기와 『국조문과방목』의 기록에 거주지가 미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은 고태익을 제외하고 각 사료에서 문과 급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탐라지초본』·『탐라기년』·『탐라관풍안

91) 金東柱, 앞의 책, 459쪽.

』에 고득중·고태필·고태정이, 『진신선생안』에는 세종 17년(1435)에 급제자로 고득중까지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고득중은 『조선왕조실록』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국조문과방목』에 급제사실 여부의 기록이 없기에 제외하도록 하겠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득중과 고태필이 제주인임을 기록하고 있다.⁹²⁾ 하지만, 고태정은 문과에 급제한 사실만 확인되고 출신지에 대한 언급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고득중의 자식이라는 점과 방목을 제외한 각 사료의 기록에 그가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급제인원에 포함시키기로 하겠다. 여기서 고득중의 자식인 고태익(高台翼) 역시 『국조문과방목』의 기록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⁹³⁾에 의하여 급제자로 포함하겠다.

따라서, 실록에서 이들을 제주인이라 명확히 밝혀주고, 방목을 제외한 다른 사료에서도 급제자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고득중과 그의 자식인 태필, 태익, 태정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이들의 중요성은 향시설행 이전의 유일한 제주지역 급제자였고, 이후에 변동되는 급제추이 양상을 설명하는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있다.

2) 김경희·김명현·한석규·한석윤 4인

김경희, 김명현, 한석규의 포함여부의 문제이다. 우선, 김경희⁹⁴⁾는 『국조문과방목』과 다른 사료에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로 기록되고 있다. 일단 그가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를 제주도과(濟州道科)의 급제자로 기록하고 있다.⁹⁵⁾ 그런데, 『국조문과방목』에서는 그의 본관을 ‘김해’로 밝히고 있다.⁹⁶⁾ 그리고 『진신선생안』에서 기재된 그의 본관은

92) 濟州人生員高得宗進馬三匹 賜米豆三十五石. (『태종실록』 권26 13년 11월 24일 경자조).

台弼濟州人 中樞得宗之子也. (『문종실록』 권8 1년 7월 11일 정미조).

93) 台翼濟州人予常護之 今日罪重將殺之. (『세조실록』 권28 8년 7월 29일 임술조).

94) 김경희는 원 사료인 『국조문과방목』, 『조선왕조실록』, 『탐라지초본』, 『진신선생안』, 『탐라기년』, 『탐라관풍안』에는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로 기재되고 있다. 특히 『국조문과방목』과 『탐라지초본』에는 그의 거주지가 ‘旌義’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한국학DB』의 「조선문과방목」에서는 그의 거주지가 ‘旌善’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DB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기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방목의 연구에 있어 주의점으로 밝힌다.

95) 命弘文提學李潭 科次濟州道科試券 依甲申例 取姜鳳瑞張漢喆金慶會等三人并賜第. (『영조실록』 권124 51년 1월 30일 무인조).

96) 丙科三十八人[···]金慶會[···]金海. (『국조방목』 권16 영조조 영조 51년 을미친림근정전경과정시문과별시방 5월 26일).

‘경주’로 표시되고 있다.⁹⁷⁾ 물론 여기서 방목과 선생안의 사료적 정확성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지만, 방목에 부명이 김석겸(金錫謙)인 점과 정조 7년(1783) 무과증광시(武科增廣試)에 병과(丙科) 45위로 급제한 김경초(金慶礎)의 부명이 같다는 데서 이 둘의 관계가 형제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김경초의 본관(本官)은 경주로 명시되고 있다. 김경초의 기록에는 김경희와는 달리 아버지의 직역(職歷)이 표시되고 있는데, 확인되는 김석겸의 직역은 ‘감목관(監牧官)’이다. 제주지역에서 감목관은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金萬鎰)”과 그의 아들 김대길(金大吉)과 사손(嗣孫) 여(礪)에 의하여 효종 9년(1658)부터 종6품의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을 경주 김씨가 고종 32년(1895)까지 세습직으로 맡고 있었다. 이 경주 김씨는 정의현 의귀리일대를 중심으로하는 지역사회의 유력세력 중 하나였다. 후술하겠지만, 경주 김씨는 이런 세습직을 통한 조선시대 양반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서 그들에게 과거를 통한 관직진출은 큰 의미가 없었다. 이는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되는 문과 급제자중 본관이 경주 김씨인 이가 바로 김경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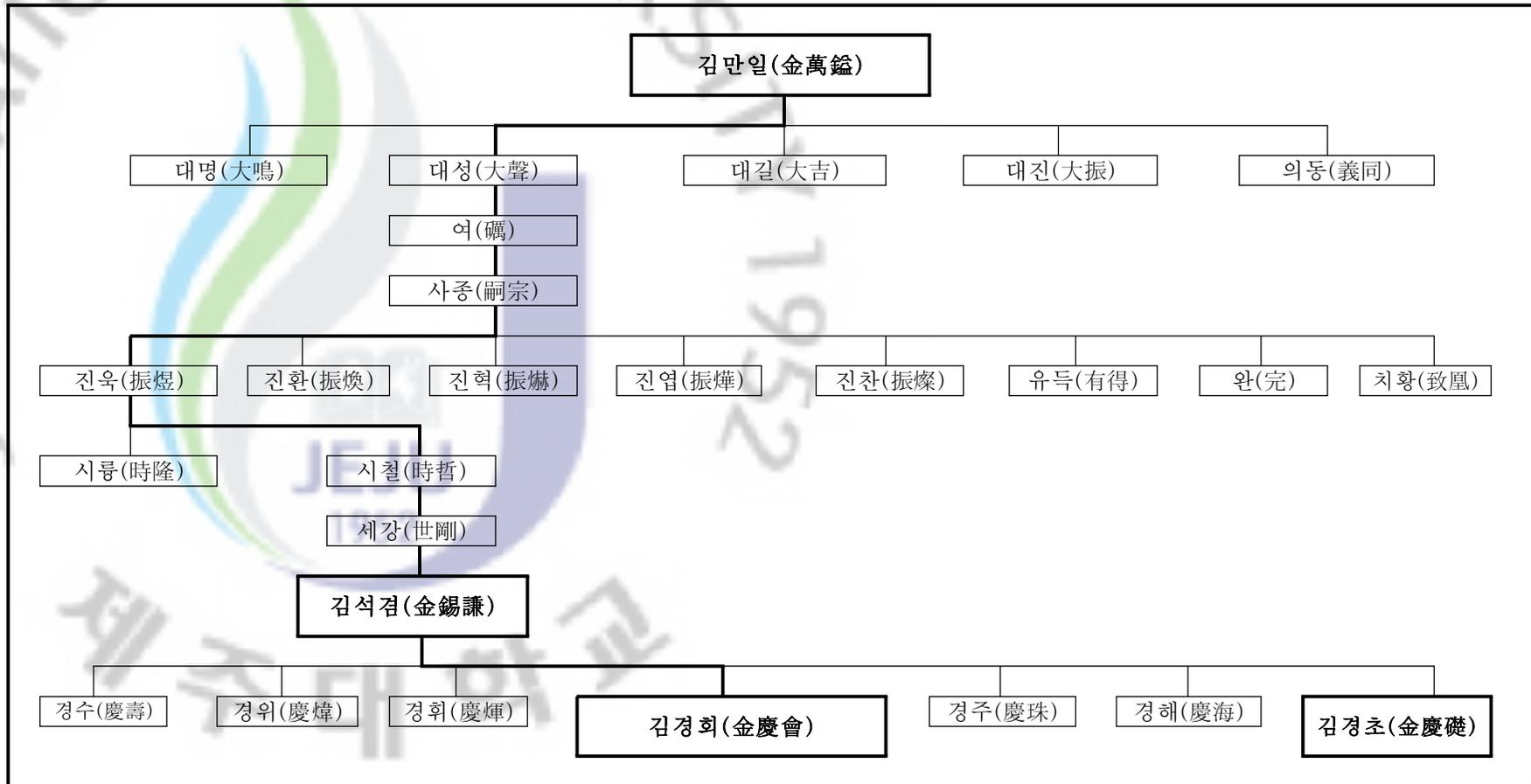
하지만, 방목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본관이 김해로 되어 있다. 방목의 기록을 근거하게 되면 그는 경주 김씨와 무관한 인물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신선생안』에 기록된 김경희는 본관이 경주란 점과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전술했듯이, 경주 김씨는 정의현 일대의 감목관직(監牧官職)을 대대로 세습하던 가문으로 약 210년 동안 83명이 감목관을 역임하였다.⁹⁸⁾ 김석겸 역시 그중 한 명이었고, 이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석겸(金錫謙)이 2필을 상래(上來)한다.”⁹⁹⁾는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97) 金慶會[...]慶州. (『진신선생안』 영종갑오방.)

98) 경주 김씨 김만일의 후손들은 이들의 세습적인 감목관을 통하여 양반신분을 공고히함으로써 지역내 높은 사회적 지위와 지배층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다른 성관의 경우 문과급제를 통한 양반으로서의 지위확보와 그에 동반한 혈연·학연·혼인을 통한 인척관계의 형성에 의한 지배층의 형성에서 경주 김씨의 문과 급제자는 김경희가 유일하며, 반면, 경주 김씨와의 혼인관계를 통한 인척관계를 형성이 나타난다.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 -경주 김씨가와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郷土史研究』 第5輯, 韓國郷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3, 181쪽.)

99) 李宜老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全柏齡遞任 進上馬二匹 山馬監牧官金錫謙 丁亥戊子 兩年條封進馬二匹上來 禾毛色別單書入 竝依例內廐立養之意敢啓 傳曰 知道.(『승정원일기』 영조 44년 10월 4일 무오조).

<그림 1> 경주 김씨 현마공신 김만일 가계도(김석겸, 김경회, 김경초)



(자료: 『국조문과방목』, 『진신선생안』, 『금제선생안』, 『경주김씨익화군제주파세보』¹⁰⁰ 참고)

100) 慶州金氏濟州道宗親會, 『慶州金氏益和君濟州派世譜』 1·2권(慶州金氏濟州道宗親會, 2005), 1권 144~149쪽, 2권 5쪽, 72~73쪽, 76~79쪽.

<그림 1>은 조선시대 제주지역 경주 김씨 가계도의 일부로서 여기서 김석겸의 4남과 7남으로 김경희와 김경초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김경초의 본관이 김해가 아닌 '경주'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이다. 즉, 두 사료의 인물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파악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같은 시기 중복되는 인물이라는 점과 여러 사료에 반복적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은 동일한 인물이었다. 또한, 사료의 정확성을 놓고 보았을 때, 『진신선생안』의 기록보다 『국조문과방목』의 기록을 더 중요시 되지만, 김경희는 방목의 기록보다는 『진신선생안』의 기록을 우선시하여, 본고에서는 이들의 본관을 김해와 남평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로 포함하겠다.

다음은 김명현이다. 김명현은 『국조문과방목』에 기록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다른 사료에서는 그의 기록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는 81세의 나이로 정조 18년(1794)에 제주지역에서 설행된 시재에 입격하게 된다. 고령의 나이였던 관계로 국왕 정조는 급제자 명단에 그의 이름을 등제(登第)하고 어사화(御史花)와 홍패(紅牌)를 내려 보내어 제주 객사(客舍) 뜰에서 사은숙배(謝恩肅拜)하게 하였다.¹⁰¹⁾ 하지만 그는 과방이 불기 전에 사망하여,¹⁰²⁾ 과방에 포함하지 못했다. 하지만 직부전시가 합격을 의미한다는 점과 국왕으로부터 급제를 의미하는 어사화와 홍패를 내려졌다는 점에서 그를 문과 급제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다음은, 한석규의 포함 여부이다. 『국조문과방목』에는 철종 5년(1863)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로 한석규(韓錫奎)를 기록하고 있다.¹⁰³⁾ 하지만, 다른 사료에서는 한석규란 인물은 등장하지 않고 한석윤(韓錫胤)이 등장하고 있다.¹⁰⁴⁾ 이 경우는 앞선 김경희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로 판단되기에 동일인물로 간주하여 『국조문과방목』에 기재된 이름으로 사용하고 역시 포함시키기로 하겠다.

101) 命大靜縣直赴儒生金命獻 明年唱第時 付之榜尾 花牌下送 使之唱名 肅拜於客舍庭 命獻年八十一 老不能越海 濟州牧使沈樂洙 以其狀聞 有是命. (『정조실록』 권40 18년 7월 12일 정유조).

102) 金命獻大靜人也 時年八十一對策居二 特命賜第未及唱榜 而卒贈戶曹參判. (『탐라기년』 권3 갑인 정조 18년).

103) 丙科三人[···]韓錫奎. (『국조방목』 동치 2년 6월 초2일 제주목별과문과시취방).

104) 韓錫胤. (『진신선생안』 철종계해방).

3) 김계충·정응정·이도남·이면재·백악순·홍현일 6인

마지막으로 『진신선생안』에 기록된 김계충, 정응정과 『국조문과방목』에 기록된 이도남, 이면재, 백악순, 홍현일의 포함 여부이다. 우선, 『진신선생안』에 기록된 김계충, 정응정의 포함 여부이다. 이들은 『진신선생안』에서만 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사료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료의 정확성을 문제로 제외하기로 하겠다.

『국조문과방목』에 기재된 이도남, 이면재, 백악순, 홍현일 4인의 경우 방목에는 각각 철종 10년(1859) 을미별시문과(乙未別試文科), 고종 22년(1885) 을유정시방(乙酉庭試榜), 고종 24년(1887) 정해정시방(丁亥庭試榜), 고종 25년(1888) 무자별시방(戊子別試榜)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하였는데¹⁰⁵⁾, 『조선왕조실록』은 이들 고시의 기록에, 이도남은 철종 권 1110년 1월 27일 무술조에 인일제에서 직부전시의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기록되어있다. 나머지 3인의 경우, 고종 권22 22년 3월 17일 병진조의 경무대(景武臺)에서 치러진 경과정시(慶科庭試), 고종 권24 24년 3월 15일 계묘조의 경무대(景武臺)에서 세자가 시좌(侍座)한 가운데 치뤄진 문무과 정시(文武科庭試), 고종 25권25년 8월 9일 무자조의 경무대(景武臺)에서 왕세자가 시좌(侍座)한 가운데 치러진 경과별시문무과(慶科別試文科)의 기록에서 비록 이름이 언급되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장원과 방목의 장원, 그리고 인원수가 일치하였기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결과로 본고에서 조선시대 제주 출신의 문과 급제자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났듯이 『국조문과방목』을 기준으로 『조선왕조실록』과 각 사료에서 중복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는 급제인원 47명에서 『국조문과방목』과 『진신선생안』등의 다른 사료에서 나타나는 불분명한 15명의 급제자 중 고득중·고태필·고태익·고태정·김경회·김명현·이도남·한석규·이면재·백악순·홍현일 11명을 포함하면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총 인원은 58명으로 산정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인원수 산

105) 丙科三十八人[...]幼學李道南. (『국조방목』 권20 철종조 철종 10년 3월 13일 경과증광별시문과전시방).
丙科四十一人[...]幼學李勉幸. (『국조방목』 권21 고종조 광서 11년 3월 13일 경과정시별시문과방).
乙科二人[...]幼學白樂舜. (『국조방목』 권21 고종조 광서 13년 3월 15일 경과정시별시문과방).
丙科三十五人[...]幼學洪顯一. (『국조방목』 권21 고종조 광서 14년 8월 초9일 경과별시문과전시방).

정이 100% 정확할 수 없겠지만, 본고에서는 앞으로 산정된 인원수 58명을 기준으로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2. 시기별 분석

지금까지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인원수 산정에 의해 파악된 급제자는 총 58명이다. 이들 58명의 문과 급제자들은 총 25성관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각 시기별 급제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주요 성관들에 의한 편중적인 급제추이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편중적인 현상은 제주지역의 시기별 유력성관의 변동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각 사료들을 통하여 파악된 58명의 급제자들의 성관과 시기별 급제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표 4>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성관(姓貫)

순번	성명	본(本)	순번	성명	본(本)	순번	성명	본(本)
1	고득중	제주	21	김계중	광산	41	강계우	진주
2	고태필	제주	22	이구성	고부	42	변경준	원주
3	고태익	제주	23	양덕하	제주	43	김영집	나주
4	고태정	제주	24	이수근	경주	44	김영업	나주
5	오섬	군위	25	변성운	원주	45	신상흠	거창
6	문영후	남평	26	변성우	원주	46	김유	광산
7	문징후	남평	27	김형중	나주	47	김명약	김해
8	고홍진	제주	28	장한철	인동	48	오승현	군위
9	김계룡	광산	29	강봉서	진주	49	박수용	밀양
10	김계창	광산	30	김경희	경주	50	이도남	홍주
11	김계홍	광산	31	변경우	원주	51	송상순	여산
12	고기중	제주	32	강성익	신천	52	고경준	제주
13	정희광	동래	33	김용	김녕	53	신재우	거창
14	오정빈	군위	34	홍달훈	남양	54	김병수	김해
15	정창원	동래	35	이태상	고부	55	한석규	청주
16	고만첨	제주	36	고명학	제주	56	이면재	연안
17	고처량	제주	37	부종인	제주	57	백약순	수원
18	정창선	동래	38	변경봉	원주	58	홍현일	남양
19	고만갑	제주	39	김명현	광산	총	58명(24성관)	
20	변시중	원주	40	정태인	동래			

(자료: 『국조문과방목』, 『진신선생안』, 본고 <부록 1, 2> 참고)

<표 5>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성관(姓貫)별 시기별 분포

성관 \ 시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총(명)
제주 고씨	4	-	2	4	1	11
원주 변씨	-	-	-	5	1	6
광산 김씨	-	-	3	2	1	6
동래 정씨	-	-	1	3	-	4
군위 오씨	-	-	1	1	1	3
나주 김씨	-	-	-	1	2	3
김해 김씨	-	-	-	-	2	2
남평 문씨	-	-	2	-	-	2
거창 신씨	-	-	-	-	2	2
고부 이씨	-	-	-	2	-	2
남양 홍씨	-	-	-	1	1	2
진주 강씨	-	-	-	1	1	2
경주 김씨	-	-	-	1	-	1
경주 이씨	-	-	-	1	-	1
김녕 김씨	-	-	-	1	-	1
밀양 박씨	-	-	-	-	1	1
수원 백씨	-	-	-	-	1	1
신천 강씨	-	-	-	1	-	1
여산 송씨	-	-	-	-	1	1
연안 이씨	-	-	-	-	1	1
인동 장씨	-	-	-	1	-	1
제주 양씨	-	-	-	1	-	1
제주 부씨	-	-	-	1	-	1
청주 한씨	-	-	-	-	1	1
홍주 이씨	-	-	-	-	1	1
계(명)	4	0	9	27	18	58(명)

(자료: 『국조문과방목』, 『진신선생안』, 본고 <부록 1, 2> 참고, 빈곳은 -로 표시)

<표 4>과 <표 5>을 통하여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는 각 시기별 급제자의 증감현상과 특정성관에 의한 집중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 58명 중 제주고씨는 17.2%인 10명, 원주 변씨와 광산 김씨는 10.3%인 6명, 동래 정씨는 각각 6.9%인 4명, 군위 오씨와 나주 김씨는 각각 5.2%인 3명, 김해 김씨, 남평 문씨, 거창 신씨, 고부 이씨, 남양 홍씨, 진주 강씨는 각각 3.4%인 2명, 그리고, 나머지 경주 김씨, 경주 이씨, 김녕 김씨, 밀양 박씨, 수원 백씨, 신천 강씨, 여산 송씨, 연안 이씨, 인동 장씨, 제주 양씨, 제주 부씨, 청주 한씨, 홍주 이씨는 각각 1.7%인 1명씩의 급제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는 시기별·성관별 급제인원이 15세기 3명, 16세기 0명, 17세기 9명, 18세

기 27명, 19세기 1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기별·성관별 급제자의 추이를 통하여 각 시기에 특징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15세기 향시설행 이전의 급제자인 고득중 일가의 문과급제는 15세기 제주지역에서 제주 고씨가 유력성관이었음을 말해 주며, 16세기 급제인원이 '0'이라는 것은 16세기 제주지역의 폐쇄성 및 단절성을 그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7세기는 특정 성관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지역 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18세기는 이전 시기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급제자의 증가를 통하여 숙종·영조·정조시기의 정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영·정조시기는 국왕의 과거정책에 의한 결과가 이전 17세기와 이후 19세기의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19세기는 순조~고종 시기로서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문란한 시기였다. 인사제도였던 과거제 역시 마찬가지였고, 후술하겠지만 소과 급제자의 증가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문과 급제자의 추이를 통하여 4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5~16세기로 태종 14년(1414) 제주지역 최초의 급제자인 고득중을 시작으로 15세기부터 급제자가 단절된 16세기로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인 17세기로 인조 2년(1601) 급제자인 오섬을 시작으로 숙종 6년(1680)의 급제자인 정희량까지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18세기로 숙종 33년(1807)에 급제자인 오정빈·정창원을 시작으로 정조 22년(1798)의 급제자 정태언까지 구분이 되며, 네 번째는 19세기로 순조 15년(1815)의 급제자 강계우·변경준부터 고종 25년(1887) 급제자 백약순·홍현일까지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별 급제자의 증감에 따른 추이변화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분석은 전술하였지만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제주지역의 시대별 유력 성관의 유동, 문과운영의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 중앙정부의 정치상황의 변동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이었다.

1) 15~16세기

15~16세기는 최초의 급제자 고득중의 등장에서부터 급제자의 단절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이 시기 문과 급제자의 특징으로는 급제자 전원이 제주 고씨인 고

득중 일가라는 점과 16세기의 급제자의 단절을 들 수 있다.

(1) 15세기

최초의 급제자인 고득중이 등장하였던 이 시기는 여말선초의 사회적 변동기를 겪고 있었다. 고득중 일가에 의한 문과 급제자의 배출은 그러한 선상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기 급제자 4인 고득중, 고태필, 고태정, 고태익은 모두 제주 고씨를 성관으로 하는 고득중 일가였다. 이들의 본관인 제주 고씨는 탐라시대 이래로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유력한 토성집단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문과 급제자를 통하여 제주토착 성씨인 제주 고씨와 양씨·부씨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삼성(三姓)의 경우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토착 성씨로서 조선시대 이전 제주지역의 근간을 이뤘은 주류 성씨였다. 하지만 <표 4>와 <표 5>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비율을 놓고 볼 때, 유력성관으로서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조선시대를 통틀어보더라도 제주지역내의 급제인원에서 각각 10명과 1명씩인 17.2%와 1.7%의 명확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내 유력성관이 제주 고씨였음을 의미한다. 전국단위의 급제율에서도 이원명의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에서 조선시대 제주 고씨의 급제자의 수는 34명, 제주 양씨는 13명, 제주 부씨는 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⁰⁶⁾ 이원명은 문과 급제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가문의 경우 주요 성관으로, 9명 이하를 배출한 가문을 소수성관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제주 고씨와 양씨는 주요 성관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전국단위의 급제자 수를 비교하여도 고씨는 양씨에 비하여 2배, 부씨에 비하면 30배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제주사회에서 제주 고씨의 위상이 양씨나 부씨에 비하여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5~16세기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만을 놓고 보아도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제주 고씨에 의한 제주지역의 유력화 현상은 세종 27년(1445)에 좌우도지관(左右都知管)을 혁파하기까지 존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⁰⁷⁾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106) 이원명, 앞의 책, 17~18쪽, 59쪽.

107) 議政府據兵曹呈啓 濟州雖在海外 然已爲郡縣治牧守 其鄉中諸事 固當依他例 京在所專掌糾理 而其州族姓稱爲左右都知管 至造印信 役使良民 非徒有違於例 民實受弊請革都知管 收其印信 減其奉足之半 鄉中諸事 依他例京在所考察 千戶百戶等職 沿邊各官通例 請仍其舊 奉足亦減其半 有闕勿補 從之. (『세종실록』 권108)

고득중일가의 문과급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주지역은 고려시대 관리가 파견되었지만, 토호세력에게 성주·왕자라는 작호를 두어 세습하게 하였고, 사실상 이들에 의해 지역이 관할되고 있었다. 제주 고씨의 이러한 지역의 유력세력으로서 위용은 고려시대의 과거급제자인 고유·고조기·고적이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제주 고씨의 성립에 대하여 진영일은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에서 고려 현종 15년(1024)의 고몰(高沒)을 시작으로 고려는 기미(羈靡)정책의 일환으로 제주의 세력가였던 탐라 성주층에게 무산개(武散階)라는 관직을 주고, 고씨(高氏)를 사성(賜姓)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⁰⁸⁾ 이러한 상황은 여말선초의 시기에도 이어지는데, 대표적 인물이 고봉례(高鳳禮)·고봉지(高鳳智) 형제였다. 이들은 여말선초에 제주지역 유력세력으로 제주 고씨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여기서 고봉례의 아들 상온(尙溫)에게 세직(世職)인 제주도주관좌도지관(濟州都州官左都知管)이 승습되었고, 고봉지는 조선 초기에 상호군(上護軍)과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냈다. 그런 그의 아들이 바로 고득중이었다.

이런 출신성분에 의하여 고득중은 음서(蔭敍)로 종7품(從七品)의 문관직인 직장(直長)으로 출사한 뒤에 조선시대 최초의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가 되었다. 그의 문과급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가문의 배경이 큰 작용을 하였다. 출신배경에 의한 급제추이는 방목에 기재된 응시당시의 전자(前資)에도 나타난다. 전자(前資)란 응시당시의 직역(職歷)을 뜻한다.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들의 경우 이 전자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밝히 수 있는데, 『국조문과방목』에 기재된 제주지역 57명의 급제자(김명헌 제외) 중, 유학(幼學)이 45명, 사과(司果)가 4명, 생원(生員)과 통덕랑(通德郎)이 각각 2명, 직장(直長)·현감(縣監)·장사(將仕)·사직(司直)은 각각 1명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방목에서 확인되는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기록 사항 중 각 급제자별 전자를 나타낸 표이다.

27년 6월 19일 신유조).

108)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76~332쪽.

<표 6>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전자(前資)¹⁰⁹⁾

순번	성명(姓名)	품계	전자(前資)	순번	성명(姓名)	품계	전자(前資)
1	고득중(高得宗)	종7품	직장(直長)	30	김경회(金慶會)	-	유학(幼學)
2	고태필(高台弼)	종6품	현감(縣監)	31	변경우(邊景祐)	정5품	통덕랑(通德郎)
3	고태익(高台翼)	종7품	장사(將仕)	32	강성익(康聖翊)	-	유학(幼學)
4	고태정(高台鼎)	정5품	사직(司直)	33	김용(金垆)	-	유학(幼學)
5	오섬(吳漣)	-	생원(生員)	34	홍달훈(洪達勛)	-	유학(幼學)
6	문영후(文榮後)	정6품	사과(司果)	35	이태상(李台祥)	-	유학(幼學)
7	문징후(文徵後)	정6품	사과(司果)	36	고명학(高鳴鶴)	-	유학(幼學)
8	고홍진(高弘進)	-	유학(幼學)	37	부종인(夫宗仁)	-	유학(幼學)
9	김계룡(金繼隆)	정6품	사과(司果)	38	변경봉(邊景鵬)	-	유학(幼學)
10	김계창(金繼敞)	정6품	사과(司果)	39	정태언(鄭泰彦)	-	유학(幼學)
11	김계흥(金繼興)	-	유학(幼學)	40	강계우(姜繼遇)	-	유학(幼學)
12	고기중(高起宗)	-	유학(幼學)	41	변경준(邊景俊)	-	유학(幼學)
13	정희량(鄭希良)	-	유학(幼學)	42	김영집(金英集)	-	유학(幼學)
14	오정빈(吳廷賓)	-	생원(生員)	43	김영업(金英業)	-	유학(幼學)
15	정창원(鄭敞遠)	-	유학(幼學)	44	신상흠(愼尙欽)	-	유학(幼學)
16	고만첨(高萬瞻)	-	유학(幼學)	45	김유(金柔)	-	유학(幼學)
17	고처량(高處亮)	-	유학(幼學)	46	김명악(金命岳)	-	유학(幼學)
18	정창선(鄭敞選)	정5품	통덕랑(通德郎)	47	오승현(吳承鉉)	-	유학(幼學)
19	고만갑(高萬甲)	-	유학(幼學)	48	박수용(朴秀龍)	-	유학(幼學)
20	변시중(邊是重)	-	유학(幼學)	49	이도남(李道南)	-	유학(幼學)
21	김계중(金繼重)	-	유학(幼學)	50	송상순(宋祥淳)	-	유학(幼學)
22	이구성(李九成)	-	유학(幼學)	51	고경준(高景峻)	-	유학(幼學)
23	양덕하(梁德夏)	-	유학(幼學)	52	신재우(愼栽佑)	-	유학(幼學)
24	이수근(李壽根)	-	유학(幼學)	53	김병수(金炳洙)	-	유학(幼學)
25	변성운(邊聖運)	-	유학(幼學)	54	한석규(韓錫奎)	-	유학(幼學)
26	변성우(邊聖遇)	-	유학(幼學)	55	이면재(李勉宰)	-	유학(幼學)
27	김형중(金衡重)	-	유학(幼學)	56	백악순(白樂舜)	-	유학(幼學)
28	장한칠(張漢喆)	-	유학(幼學)	57	홍현일(洪顯一)	-	유학(幼學)
29	강봉서(姜鳳瑞)	-	유학(幼學)	총	57명		

(자료: 『국조문과방목』, 본고 <부록 1> 참고, 이 글은 원유계자(原有階者), 이 글은 생원·진사, 무품계자(無品階者)는 -로 표시, 김명헌은 제외됨.)

<표 6>에서 고득중·고태필·고태익·고태정·문영후·문징후·김계룡·김계창·정창선·변경우 10인과 오섬·오정빈 2인의 전자가 나머지 급제자들의 전자와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전자가 생원 2명은 소과에 급제하여 얻은 직역으로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¹¹⁰⁾ 하지만 나머지 10인의 전자는 사회적

109)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전자(前資)분석에서 유학(幼學) 8명, 사과(司果) 2명, 생원(生員)·진사(進士)·통덕랑(通德郎) 각각 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고의 경우 주어진 기본자료인 『국조문과방목』을 재확인하는 작업에서 직장(直長) 1명, 현감(縣監) 1명, 장사(將仕) 1명, 사직(司直) 1명, 사과(司果) 4명, 통덕랑(通德郎) 2명, 유학(幼學) 4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金東柱, 앞의 책, 460쪽.)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원유계자(元有階者)이다. 이들 원유계자를 통하여 제주지역의 유력한 토성과 사회적 지위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15세기 급제자인 고득중·고태필·고태익·고태정의 전자(前資)는 나머지 원유계자 6인과 다르다. 이들 고씨 일가의 전자는 직장·현감·장사·사직으로 현직 관료를 뜻한다. 이들은 음보에 의한 이미 관직진출을 한 후, 문과에 응시한 원유계자(原有階者)였다. 원유계자의 문과 응시는 고려부터 시작하였고, 조선시대에 더욱 확대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참서관인 6품 이상의 현직관료였던 것에 반하여 조선의 경우는 정 3품인 통훈대부 이하로 규정되어 응시대상이 폭이 넓어졌다.¹¹¹⁾ 조선사회가 과거를 통한 관직진출을 명예로 생각했던 사회라는 점에서 이들의 음보에 의한 관직진출은 결코 명예롭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문과응시는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고득중과 그의 삼남도 음직에 의한 출사 후 원유계자로서의 문과급제는 향시설행 이전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양상에서 유력성씨인 제주 고씨에 의한 급제자의 배출은 당연한 결과였다. 또한, 세전(世傳) 양상은 고씨에 의한 지배계층이 형성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향시설행 이전의 15세기는 유력 토성세력이었던 제주 고씨가 가졌던 특권이었고, 이 시기 유일한 급제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세전(世傳)에 의한 문과 급제자의 연속적인 배출은 문과 급제에 있어 혈연관계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이들이 조선사회에서 양반 지배층으로 편입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16세기

이 시기 사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수는 '0'이다. 이러한 문과 급제자의 단절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첫째, 세종 27년(1445)의 좌우도지관의 폐지이다. 조선왕조의 중앙집권화에 의한 수령중심의 향촌지배체제로 전환과 토관세력의 약화에 의하여 제주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성을 상실하고 왕조내 지방으로서 편입과 변방지역으로의 전략에 따른 결과

1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0-조선 양반관료국가의 사회구조』(담구당, 1984), 122~123쪽.

111) 원창애, 앞의 책, 62쪽.

물로서 나타난 현상이었다.¹¹²⁾

둘째, 지리적인 요인에 따른 중앙과 연계성 부족현상이다. 최변방과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인 요인은 중앙과의 단절로 이어졌다. 고려왕조가 해상토호 집단이 배경이었던데 반하여, 조선왕조는 한강변에 중심점을 정한 내륙성왕조(內陸性王朝)였다. 조선은 대외교류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교류는 한양과 의주를 잇는 육로, 일본과 교류 역시 한양과 동래를 잇는 육로를 택했다는 데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¹¹³⁾ 이러한 상황에서 전조에 비하여 해상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시대에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중앙과 단절이 당연한 결과였고 이는 제주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교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셋째, 문과 급제자의 연속성 단절을 들 수 있다. 방목에서 거주지가 제주지역이 아닌 제주 고씨를 성관으로 하는 문과 급제자는 총 24명이다. 이들 중 고세창, 고한정, 고경허, 고경진, 고명설, 고몽성, 고익두, 고영중 7인은 고득종의 후손들이다. 이는 고득종일가가 상경종사(上京從仕) 후, 재경사족화에 의해 제주지역과 단절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를테면 지역유력성씨인 토착적의미의 토성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본관과 거주지가 분리되었고, 제주지역과 고득종 일가의 단절은 16세기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배출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지역내 유학교육의 취약함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문과에 있어서 근간은 유학이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 유학의 보급과 발전은 지리적 요인에 의해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위 네 가지 요인들 중 특히, 제주지역 유학교육은 문과급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제주지역에서 유학(儒學)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제주 유학의 보급에 관한 구체적 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조선의 건국과 함께 유학정책(儒學政策)이 실시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조선전기에 제주의 유학정책은 미비하였다. 『조선왕조실록』과 『탐라기년』에는 제주지역 유학정책에 대한 많은 기사가 기록되어졌다.¹¹⁴⁾ 각 기사들을 통하여 조선은 건국 이래

112) 金東柱, 「朝鮮時代 濟州道の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 創刊號(濟州道史研究會, 1991), 45~67쪽.

113) 金井昊, 「한양 가던 옛길 답사 小考 -湖南大路와 嶺南大路를 中心으로」, 『鄉土史研究』 第7輯(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5), 137~150쪽.

114) 鄉校成. (『탐라기년』 권2 임신 태조 1년).

都評議使司上言 濟州未嘗置學校 其子弟不入仕於國 故不識字不知法制 各所千戶 率皆愚肆作弊 乞自今置

국초부터 유학교육을 위하여 힘써 왔음을 알 수 있다. 건국 초에 제주향교(濟州 鄕校)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세종조에 대정(大靜)·정의(旌義)현에 향교가 건립되어 삼읍의 관학에서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제주지역은 유학의 보급과 발전을 이루진 못한다. 당시 제주 삼읍향교에 유학교육을 위하여 차송되어야 할 교수·훈도직의 관원들이 제주지역을 기피하였고, 삼읍에 향교가 설립된지 100년이 지난 뒤에도, 유학진흥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였다. 결국 제주지역은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학의 보급과 발전에 난항을 겪었다. 중종조에 들어서면 제주지역에도 관학 이외의 교육기관으로 각종 서당(書堂)·서원(書院)인 사학(私學)이 들어서지만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유학교육의 낙후화는 응시자의 능력 저하로 이어졌으며, 16세기 제주지역 문과 급제율에 반영된다.

지금까지 15~16세기의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들의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말선초 제주지역은 종래의 유력토성집단이었던 제주 고씨에서 향시설행 이전의 유일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하지만 세종 27년(1445)에 좌우도지관이 혁파되면서 이들 토호세력들의 약화와 종전의 급제자들의 재경사족화(在京士族化) 현상, 문과 급제에 필요한 유학교육의 낙후화, 그리고 이 같은 현상에 일조한 중앙과의 지리적 단절은 16세기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단절의 결과로 나타났다.

2) 17세기

教授官 士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 又以赴京侍衛從仕者 許爲千戶百戶 以給筭付 上從之. (『태조실록』 권5 3년 3월 27일 병인조).

復差濟州儒學教授官 禮曹據濟州牧官呈上言 州及任內儒生二百餘人 詞訟雜務煩劇 雖以判官兼教授官 實難教訓 請依前例 別差教授官 旌義大靜學校 竝令考察 以振文風從之. (『태종실록』 권35 18년 4월 18일 무술조).

濟州京在所上言 大靜旌義二縣 始置鄕校 兩縣生徒 各五十餘人 請選州人經明行修者爲教導. (『세종실록』 권10 2년 11월 15일 기묘조).

新置大靜 旌義兼教導. (『세종실록』 권11 3년 1월 13일 병자조).

文瓘又啓曰, 濟州三邑 邈在海外 水路險惡 故教授訓導 人皆厭憚 依博川以西 咸興以北例 加借給馬以送何如 上曰可. (『성종실록』 권238 21년 3월 6일 무오조).

冬濟州牧使宋仁粹馳啓曰 本州及旌義 大靜等邑 本是海中防禦之地 此土之人 皆以弓矢爲事 不知學習 日漸頑悍 校生性品開明 可爲儒業者 擇送于成均館下齋 教養成才以起頽風何如 命下于禮曹. (『중종실록』 권68 25년 6월 21일 기묘조).

이 시기는 16세기 문과 급제자의 단절 이후 급제자가 재등장하는 시기이다. 16세기 이후 제주지역에 급제자가 다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문과운영에서 밝힌 시재어사의 파견에 시재설행과 직부전시의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조정의 과거운영정책에 힘입어 제주지역에서는 제주 고씨 이외의 급제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한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열린 고시는 외방별시(外方別試)의 일종인 시재(試才)로서 식년·증광 등의 고시처럼 초시·복시의 응시절차를 거치지 않는 단일과의 성격을 가졌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에서는 응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과거정책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지리적·행정적 요인으로 문과응시에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 둘째, 지방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회유적인 면모가 있다. 실제로 오섬이 제주시재(濟州試才)에 급제한 인조 1년(1623)은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광해군(光海君)의 폐위(廢位)와 인조의 등극이 이루어 졌던 시기였다. 인조는 등극하자 전국에 대사령(大赦令)을 내렸는데,¹¹⁵⁾ 이 시기 제주지역의 시재는 민심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선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재어사 최진운의 시재설행에 의해 급제한 오섬에게는 15세기의 급제자 4인과 다른 급제추이 양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문과운영의 변화·정책적 사항·유학적 소양능력이었다. 이중 그가 급제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로는 전술한 시재와 전시직부, 민심의 회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가 가진 유학적 소양능력 또한 급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오섬의 급제시 전시직부의 부여는 오직 오섬 한명 뿐이었고, 이는 장원(壯元)을 의미했다. 그것은 문과의 근간인 유학적 소양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탐라기년』에는 오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하고 있다.

오섬(吳暹)은 본주이다. 무오년 사마시(司馬試)에 오르고 이 해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고을을 맡다가 관직이 장흥부사(長興副使)와 관동백(關東伯: 江原道觀察使)에 이르렀다.¹¹⁶⁾

115) 十三日癸卯 上舉義兵 奉王大妃復位 以大妃命 卽位于慶運宮 廢光海君 放于江華 誅李爾瞻等 大赦國中. (『인조실록』 권1 1년 3월 13일 계묘조).

116) 吳暹本州人也 戊午司馬是年登第 屢典郡邑至長興府使關東伯. (『탐라기년』 권2 계해 인조 1년).

위 기사는 오섬이 무오년(광해 10년: 1618) 사마시에 합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사마선생안』에는 그가 1618년에 ‘만력부오방(萬曆戊午榜)’에 합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¹⁷⁾ 이와는 조금 다르게 『사마방목』에는 오섬을 광해 7년(1615) 식년진사로 기록하고 있다. 두 사료의 기록에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가 문과급제 이전에 이미 소과(小科)에 급제를 했다는 것이다. <표 6>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방목에서도 그의 전자가 생원으로 표시되고 있다.

시재에 의한 급제율의 증가하였던 제주지역에서 오섬이 소과에 급제하였다는 것은 그가 유학적 소양능력을 겸비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마방목에 부친인 오몽열(吳夢說)의 품계가 ‘선무랑(宣務郎)’으로 기록되고 있다. 선무랑은 조선시대 중육품(從六品)의 문산계(文散階)로서 이를 통하여 오섬의 가문이 당시 제주지역의 유력세력 중 하나였다는 의미한다. 이러한 가문의 배경은 15세기의 급제자였던 제주 고씨의 세전(世傳)양상과 같이 문과 급제에 영향을 주었고, 문과급제란 결과물으로써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41년간 제주지역에서는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이 시기 시재가 설행되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제주지역 유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문과의 근간이었던 유학교육의 정체는 급제율과 연결되었다. 제주지역의 중앙과의 지리적 단절은 문화의 단절로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중앙의 선진유학을 접할 수 없게 되었다.

17세기는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제주도에 많은 유배인이 도래(渡來)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 시기 중앙정치는 왕권강화·붕당정치의 변화가 반복하였고, 이로 인한 각종 환국(換局)은 제주지역의 유배(流配)로 나타나게 되었다.¹¹⁸⁾ 이때, 유배인 간옹(良翁) 이익(李瀾)¹¹⁹⁾은 제주지역 유학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이들 유배인들의 선진 유학교육은 제주지역 유학발전에 구심점이 되었다.

이익의 문하에는 숙종 2년(1676) 문과에 급제한 고흥진(高弘進)과 김진용(金晉

117) 吳暹 字退而 生身乙酉 本軍威. (『사마선생안』 만력부오방).

118) 김재형, 앞의 논문, 10~14쪽, 16~18쪽.

119) 이익(李瀾): 조선 광해군 때의 문신으로 제주에 온 유배인이다. 자는 형여(洞如), 호는 옥포(玉浦), 간옹(良翁), 본관은 경주이다. 광해군 7년(1615)에 제주로 유배되어 교학(敎學)에 힘썼다. 참봉(參奉) 김진용(金晉鏞)과 전직(典籍) 고흥진(高弘進)은 그의 문하생이었다. 그의 교학은 제주 유학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는 제주에 유배기간 중 헌마공신(獻馬貢臣) 김만일(金萬鎰)의 딸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이인제(李仁濟)를 두었는데, 경주 이씨 국당공파(菊堂公派)의 입도조가 되었다. (金榮洽,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540쪽.)

鎔)이 있었다. 여기서, 김진용(金晉鎔)이란 인물을 주목하면, 그는 이익의 문하로서 1634년(인조 12) 사마시(司馬試)에 급제,¹²⁰⁾ 성균관(成均館)에 진학한 후, 귀향하여 효종 10년(1659)에 제주목사 이괴(李檜)가 남성(南城) 안 고득종(高得宗)의 옛 집터에 장수당(藏修堂)을 세웠을 때, 스승으로서 선비자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¹²¹⁾ 즉, 제주지역 유학발전의 시초는 유배인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후 그들의 문하생들에 의하여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되었다.

현종조를 시작으로 제주지역에서 배출되어진 급제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진흥과 발전의 결과물이었다. 현종 5년(1664)에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 윤심(尹深)이 파견되어 설행된 시재(試才)에서 문영후(文榮後)·문징후(文徵後)·고홍진(高弘進) 3인이 급제를 하고, 직부전시의 특권이 내려졌다. 여기서 고홍진은 유배인 이익에게 김진용과 함께 동문수학을 했었다. 또한, 문영후와 문징후는 제주향교 교수를 역임하였는데, 이들은 유학진흥을 떠나 그들의 문과급제 경력은 이후, 문과 응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현종 13년(1672)에 급제한 김계룡(金繼隆)·김계창(金繼敞) 형제는 장수당 김진용의 아들들이었다. 숙종 2년(1676)에는 김계흥(金繼興)·고기종(高起宗)이 급제하였고, 숙종 6년(1680)에는 정희량(鄭希良)의 급제를 마지막으로 17세기는 총 9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여기서, 급제자의 이면을 살펴보면, 서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유학이란 학연을 매개체로 혼인을 통한 인척관계(姻戚關契)의 형성이다. 이는 15세기 제주 고씨의 지방 유력토성에 의한 급제자 배출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15세기는 지방유력 토호세력이 세전양상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 나갔다면, 17세기도 특정가문에 의한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15세기와의 차이점으로 문과 급제에 필수요소였던 유학을 통한 학연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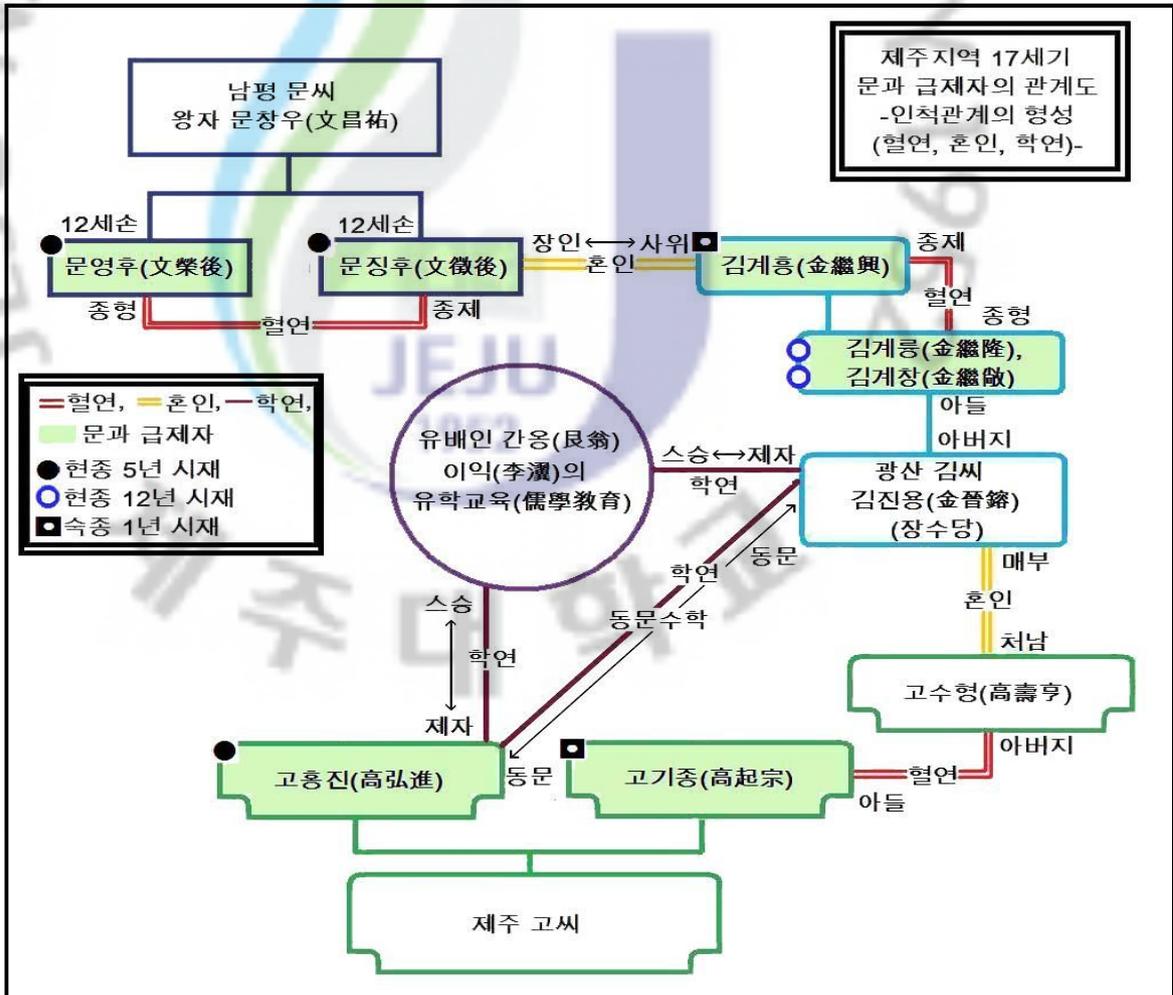
따라서, 유학의 보급은 문과급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제주지역 유학교육의 정점에 있었던 광산 김씨 김진용의 존재는 대단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내 유력세력의 형성에 있어 광산 김씨와의 혼인을 통

120) 金晉鎔 字晉叔 生身乙巳 本光山. (『사마선생안』 인조을해방).

121) 牧使李檜建藏修堂於南城內 初李檜勸獎三邑士子 邀進士金晉鎔爲之師至是因金晉鎔議遂 建學堂于南城內高得宗舊基 扁藏修仍以興學事請 得耗穀三百斛又割官儲數百石齎生廩料. (『탐라기년』 권2 기해 효종 10년).

한 인척관계의 형성은 문과급제의 유리한 위치를 설 수 있게 하였다. 다음은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를 통해 살펴본 17세기 인척관계의 형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 제주지역 17세기 문과 급제자 관계도



(자료: 『국조문과방목』, 『진신선생안』, 『탐라지초본』¹²²⁾, 『증보탐라지』¹²³⁾, 『제주사인명사전』¹²⁴⁾ 참고)

<그림 2>는 17세기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혈연·혼인·학연을 통한 인척관계의 형성과 문과급제에 의한 양반가문으로의 존속을 보여준다. 전술했듯이 출신배경을 통한 문과급제는 이미 15세기 제주 고씨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17세

122) 이원조 저, 고창석 역, 『耽羅誌草本』上·下(제주교육박물관, 2007~2008), 상 191~193쪽.
 123) 담수계 저, 홍순만 역, 『譯註 增補耽羅誌』(제주문화원, 2005), 608~638쪽.
 124) 金榮治, 앞의 책, 36쪽, 57쪽, 81쪽, 82~83쪽, 175쪽.

기가 15세기와 다른 점은 이전 시기의 제주 고씨가 혈연에 의한 세전양상으로 지역사회의 유력세력으로 존속하였다면, 이 시기는 혈연관계를 뛰어넘어 학연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여기에 혼인으로 인척관계를 형성, 지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편입과 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후기인 17세기에 이르면 제주지역 토관세력은 중앙정부의 권력에 완전히 융합되어지게 된다. 이러한 지방사회의 변화는 향촌지배체제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 중심에 유학교육이 있었다. 또 다른, 제주지역 토호세력이었던 남평 문씨의 문영후·문징후 역시 문과를 통하여 양반신분의 지위와 조선사회의 지배층의 구성원으로 편입을 원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현종 5년에 실시된 제주지역의 시재에 응시하여 동방 급제하였는데, <표 6>에서 전자(前資)인 정육품(正六品) 사과(司果)를 통해서 지역 내 유력세력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2>에서처럼 이들 또한 문과급제에 필수적 요소였던 유학교육을 위하여 김진용의 광산 김씨와 혼인으로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전 시기 유력세력이었던 제주 고씨에서도 고흥진(高弘進)·고기종(高起宗) 2인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는데, 고흥진은 유배인 간옹 이익의 문하로 김진용과 동문으로 광산 김씨와 학연을 형성하였고, 숙종 1년의 시재에 입격한 고기종은 그의 아버지가 김진용과 처남 매부사이로서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7세기 제주지역 마지막 급제자인 정희량은 1750년 굴림서원원록(橋林書院院錄)에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加資)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⁵⁾ 정희량에 대한 뚜렷한 언급을 찾을 수 없지만 그는 18세기 제주사학의 대표였던 굴림서원원장(橋林書院院長)으로 있었으며, 이 시기 학연관계에 중심에 있었다. 이는 이후 급제자의 관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17세기에는 15세기처럼 지역내 유력세력인 특정 성관들을 중심으로 문과 급제자가 배출되고 있었다. 하지만, 15세기와 다른 점은 제주 고씨의 세전양상에 의한 급제자의 배출이 아닌 혈연·학연·혼인이란 인척관계의 형성과 그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유력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문과 급제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됨으로서 특정성관들에 의한 급제자의 편중적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15세기에 비하여 약화된 토호세력에게 문과급제란

125) 김지홍·원창애 역, 『제주삼읍교학사료집』(전국문화원연합회, 2003), 307~309쪽.

지역사회의 지위 확보 수단이었고, 다른 유력성관과 혼인을 통한 인척관계를 형성하여 지배세력으로서 지위를 존속시킨 결과였다.

이러한 17세기의 전환점은 문과운영의 변화와 유학교육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16세기에 단절되었던 문과 급제자들을 다시금 배출하면서, 급제자가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3) 18세기

앞선 15~17세기의 급제추이를 통하여 유력성관들에 의한 편중적인 급제자의 배출양상을 확인하였다. 18세기에 도 이러한 급제자의 편중적 현상이 나타난다. <표 6>에 나타나는 이 시기 대표적 성씨로 원주 변씨, 제주 고씨, 광산 김씨, 동래 정씨가 있었고, 이들에 의한 급제자의 편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가장 큰 특징은 <표 6>에서 나타나듯이 15, 17세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급제율의 증가이다. 18세기에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는 총 27명으로 파악하는데, 17세기의 3배, 15세기의 7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조선시대 제주지역 급제자 총 인원수의 절반에 가까운 46.5%에 달한다. 그리고 이 시기 주요 성관의 판도 또한 바뀌는데, 27명의 급제자중 원주 변씨 5명, 제주 고씨 4명, 동래 정씨 3명, 광산 김씨와 고부 이씨가 각각 2명, 군위 오씨·나주 김씨·김해 김씨·남양 홍씨·진주 강씨·경주 이씨·김녕 김씨·신천 강씨·인동 장씨·제주 양씨·제주 부씨에서 각각 1명씩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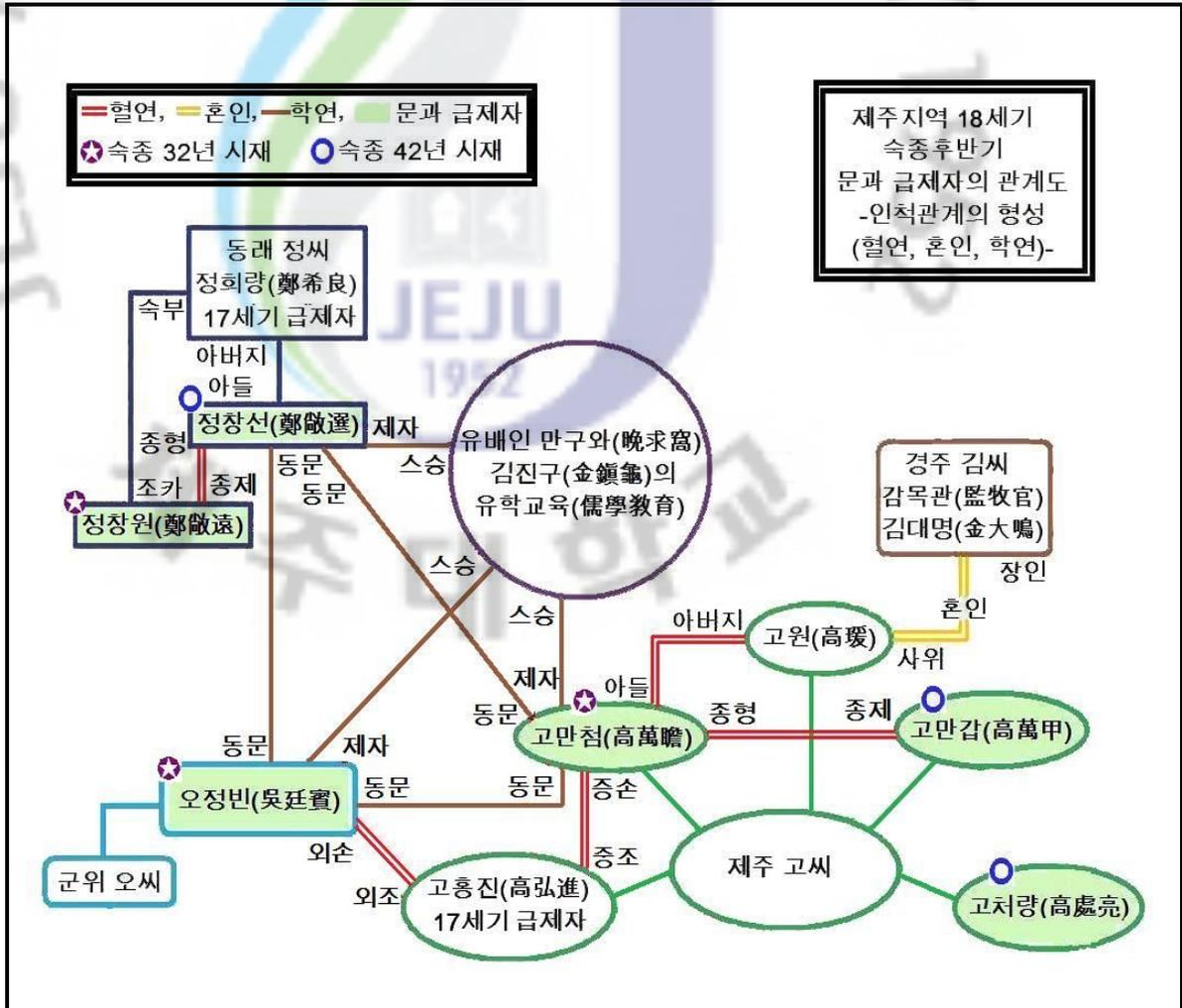
18세기의 경우도 15, 17세기와 마찬가지로 특정성관들에 의한 급제의 편중적인 양상이 남아있지만, 급격한 급제율의 증가를 보더라도 이전 시기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성관에서 급제자의 배출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양상과 다양성은 후술하겠지만, 17세기 제주지역의 유학의 발전·정착과 영·정조의 과거정책 때문이었다. 18세기는 이전 15, 17세기와 이후 19세기의 과도기로서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들이 배출했던 이유를 보여준다.

(1) 숙종후기의 급제자

이 시기 급제자로는 숙종 32년(1706)의 급제자 오정빈(吳廷賓)·정창선(鄭敞選)·

고만첨(高萬瞻)과 숙종 42년(1716)의 급제자 정창원(鄭敞遠)·고만갑(高萬甲)·고처량(高處亮)이 있다. 이들은 17세기의 급제자들처럼 문과 급제를 위한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3> 제주지역 18세기 숙종후반기 문과 급제자 관계도



(자료: 『국조문과방목』, 『진신선생안』, 『탐라지초본』¹²⁶⁾, 『증보탐라지』¹²⁷⁾, 『제주사인명사전』 참고)¹²⁸⁾

<그림 3>은 숙종후기(숙종 26~46년)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관계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에서처럼 급제자들은 서로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

126) 이원조 저, 고창석역, 앞의 책, 상 191~195쪽, 하 145~146쪽.
 127) 담수계 저, 홍순만 역, 앞의 책, 608~638쪽.
 128) 金榮洽, 앞의 책, 38~39쪽, 52쪽, 94쪽, 656~657쪽, 662~663쪽.

히 오정빈·정창선·고만첩은 학연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들은 숙종 15년(1689)에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제주로 유배온 김진구(金鎭龜)¹²⁹에게 수학하여, 숙종 32년(1706) 시재에 급제하여 직부전시의 자격을 얻는다.

이들은 또한 혼인을 통한 혈연관계를 이루며,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오정빈의 외조(外祖)는 17세기 급제자였던 고흥진이었고, 고흥진의 증손은 고만첩으로 오정빈과 혈연관계를 이룬다. 또한 고만첩은 숙종 42년 급제자 고만갑과 재종형제(再從兄弟)였다. 또한, 그는 이익의 아들 이인제의 사위였으며,¹³⁰ 그의 외조는 감목관을 지낸 김대명(金大鳴)으로 그는 정의현의 유력세력이었던 경주 김씨와도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창선과 정창원은 아버지¹³¹이자 숙부였던 정희량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세전(世傳)양상과 <표 7>에서 정창선의 전자인 정5품인 문산계 통덕랑(通德郎)은 지역내 유력성관임을 밝혀준다. 또한, 정희량이 향교교수와 굴림서원 원장을 지냈다는 것은 학연관계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숙종 42년(1716)의 급제자였던 고처량의 경우도 지방 유력세력인 제주 고씨였다. 이들 급제자를 통하여 18세기 전반까지 제주지역의 특정성관들에 의한 급제의 편중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영·정조시기로 넘어가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2) 영·정조시기의 급제자

이 시기의 급제자들은 18세기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성관들에서 급제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급제자의 양상은 당시 과거정책과 제주지역 내의 유학의 정착되어지는 과정과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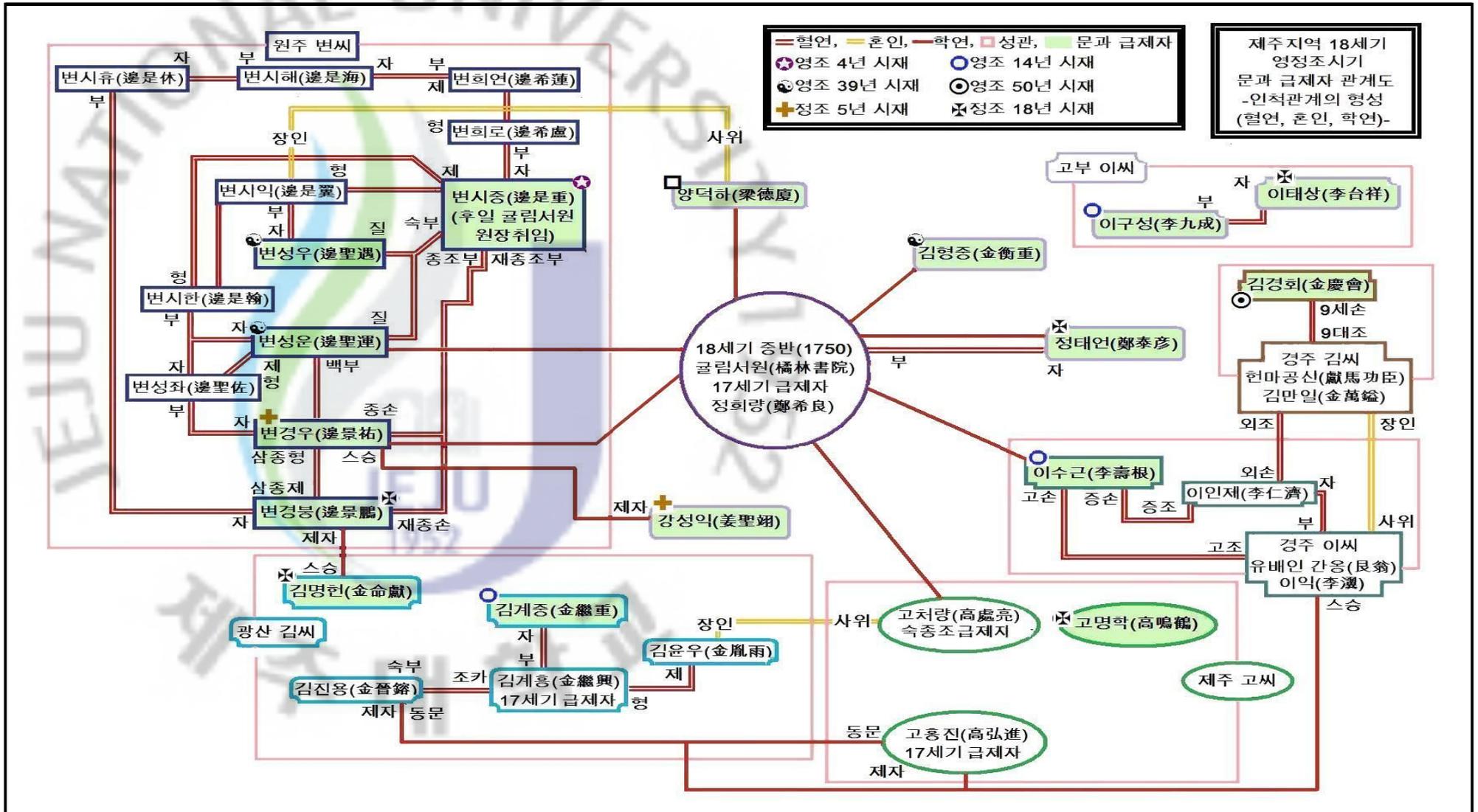
다음은 18세기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인척관계형성도이다.

129) 1651년(효종 2)~1704년(숙종 30) 조선 숙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 자는 수보(守甫), 호는 만구와(晩求窩)이다.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오빠였다. 1689년 기사환국에 의하여 남인정권이 들어서자 가혹한 수법으로 남인을 숙청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제주도에 위리안치 되었다. 그는 제주에 정배되었는 동안, 제주에 경사학풍(京師學風)을 전수시켰다. 그의 밑에서 수학하던 오정빈, 고만첩, 정창선 등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학국학중앙연구원.)

130) 丙科二十七人[...]高萬瞻[...]曾祖高弘進 妻父李仁濟. (『국조방목』 권13 숙종 34년 3월 16일 무자식년방).

131) 丙科三十二人[...]鄭啟選[...]父鄭希良. (『국조방목』 권13 숙종 43년 10월 초9일 동년식년방(정유)).

<그림 4> 제주지역 18세기 영·정조기 문과 급제자 관계도



(자료: 『국조문과방목』, 『진신선생안』, 『탐라지초본』¹³²⁾, 『증보탐라지』¹³³⁾, 『제주사인명사전』¹³⁴⁾, 『원주변씨훈련공파보』¹³⁵⁾ 참고)

132) 이원조 저, 고창석역, 앞의 책, 상 191~195쪽, 하 145~146쪽, 185~185쪽.

133) 담수계 저, 홍순만 역, 앞의 책, 2005, 608~638쪽.

134) 金榮治, 앞의 책, 17쪽, 40~41쪽, 80, 82, 100쪽, 189쪽, 280~282쪽, 284~285쪽, 375~376쪽, 659쪽.

135) 原州邊氏濟州道宗親會, 『原州邊氏訓練公波譜』(原州邊氏訓練公派編輯委員會, 1980), 23쪽, 62~78쪽, 94~95쪽, 124~127쪽, 140~151쪽, 176~185쪽, 190~193쪽.

<그림 4>는 영정조시기 제주지역 문과급제자의 관계도를 나타낸 그림으로 이 시기 대표적인 성관은 원주 변씨였다. 원주 변씨는 조선시대 제주지역에서 총 6명이 문과에 급제하였고, 18세기에만 변시중(邊是重)·변성운(邊聖運)·변성우(邊聖遇)·변경우(邊景祐)·변경봉(邊景鵬) 5인을 배출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원주 변씨가 크게 대두되었던 원인은 이전 시기 급제자에게서 나타났던 유력가문과의 혼인과 학연을 통한 인척관계의 형성이었다.

이 시기 급제자 5인 중 변시중·변성운·변성우는 제주도 유래의 세족이었던 제주 고씨·제주 양씨·남평 문씨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으며,¹³⁶⁾ 변경봉은 그의 문집을 통하여 광산 김씨의 김명헌(金命獻)과 사제지간이었음을 밝히고 있다.¹³⁷⁾ 원주 변씨는 이러한 인척관계의 형성을 통한 지역내에서 입지를 다지는 한편, 17세기 광산 김씨를 잇는 18세기 후반 제주지역 유학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었다.

변시중은 상경종사 하다가 낙향한 후 굴림서원 훈장으로 취임하여 후학양성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전해진다.¹³⁸⁾ <그림 4>에서처럼 실제로 1750년 굴림서원(楡林書院) 원록(院錄)에는 17~18세기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였던 정희관(鄭希寬: 정희량), 고처량(高處亮), 변시중(邊是重), 이수근(李壽根), 양덕하(梁德廈), 김형중(金衡重), 변성운(邊聖運), 변경우(邊景祐) 8명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¹³⁹⁾ 그런데, 이들은 방목에 기재된 가족관계 사항에서 18세기 제주지역의 상당수 문과 급제자들과 혈연·학연을 통한 인척관계의 형성을 발견할 수 있다.¹⁴⁰⁾

변시중은 또한, 형인 변시익(邊是翼)과 아우인 변시한(邊是翰)의 아들들인 변성운, 변성우의 경우 혈연적 관계와 굴림서원의 등록에서 학연적 연관성을 찾을 수

136) 丙科十一人[...]邊是重[...]外文得立. (『국조방목』 권14 영조 4년 9월 27일 동년별시방(무신)).
乙科七人[...]邊聖運[...]外高濟嶺[...]丙科四十二人[...]邊聖遇[...]妻父文武成. (『국조방목』 권14 영조 41년 3월 초6일 을유식년방).

137) 夫宗仁及先師金命獻氏. (변경봉, 『通政大夫司憲府掌令邊景鵬文集』 戊午年放逐時顛末記).

138) 이원조, 앞의 책, 상 193쪽, 답수계, 앞의 책, 617쪽, 김찬흡, 앞의 책, 285쪽.

139) 김지홍·원창애, 앞의 책, 307~308쪽, 참고.

140) 丙科二十七人[...]高萬瞻[...]曾祖高弘進 妻父李仁濟. (『국조방목』 권13 숙종 34년 3월 16일 무자식년방).
丙科三十二人[...]鄭敬選[...]父鄭希良. (『국조방목』 권13 숙종 43년 10월 초9일 동년식년방(정유)).
丙科十一人[...]邊是重[...]外祖文得立. (『국조방목』 권14 영조 4년 9월 27일 동년별시방(무신)).
丙科十六人[...]梁德廈[...]妻父邊是翼. (『국조방목』 권15 영조 15년 9월 28일 동년정시방(기미)).
乙科七人[...]邊聖運[...]外祖高濟嶺[...]丙科四十二人[...]邊聖遇[...]妻父文武[...]金衡重[...]妻父吳大振. (『국조방목』 권15 영조 41년 3월 초6일 을유식년방).
丙科四十三人[...]鄭泰彥[...]祖鄭敬選曾祖鄭希良. (『국조방목』 권15 정조 22년 3월 12일 무오친림명정문식년문과전시방).

있다. 양덕하는 변시익의 사위로서, 변성우와는 처남매부지간으로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변성운의 조카인 변경우는 <표 7>의 전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가문의 배경을 통하여 통덕랑(通德郎)으로서 산계(散階)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변경봉이다. 그는 변경우의 삼종제(三從弟: 8촌)로 정조 18년(1794)에 파견된 어사 심락수에 의해 설행된 시재에서 부종인, 고명학, 김명현, 이태상, 홍달훈, 정태언과 함께 급제하게 된다. 그는 급제과정을 개인문집에서 변경봉은 “등과시몽조록(登科時夢兆錄)¹⁴¹⁾” 즉, 자신이 과거급제 당시 꿈을 기록하였다하며, 갑인년 제주시재에 급제하기까지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원래 정조 5년 안핵어사 박천형(朴天衡)이 제주에 왔을 때 설행된 시재에 응시하여 낙방하였다. 하지만, 그는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급제하기 전까지 문과향시에서 두 번 급제했음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그는 어느 정도 학식을 겸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6세의 어린나이에 대정향교의 훈장으로 취임했다는 대목을 통해서도 그의 유교적 소양능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회시응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한양으로 회시응시는 그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그런 그에게 정조 18년(1794)의 설행된 시재에서 마지막 기회로서 도전하게 되는데, 당시 설행된 시재에 많은 응시인원이 몰려 종지와 벼루를 구하기 힘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제주지역에서 초시·복시·전시의 삼단계, 동당삼장(東堂三場)의¹⁴²⁾ 응시절차와 많은 고시과목, 머나먼 과거로의 여정은 사실상 급제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비교적 손쉬운 단일과인 시재가 급제의 관문으로 작용하였던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태정이 급제한 이후인 세조 5년

141) 及其出榜也 三從兄及金埴康聖翊三人中第 余則渡瀾矣[……]五六年間 由吾手得鄉試解者 凡五人 余亦再中也 [……]又入儒領薦中 仍爲鄉校訓長 時年三十六 以年淺固辭 不獲 四年[……]同年臘月望日 偶聞京耗 則自朝家特遣繡衣于濟州 設科取木云[……]迫臨科場 寫手爲勢者所奪 陶泓爲有力者所攘[……]耽羅設科以後 未有若甲寅榜之盛且多也 登科者七人 而高夫參榜 其餘五人 亦皆三姓之重重彌甥 則三姓穴群龍登天之夢 豈非冲漠中兆朕也耶 此皆耳聞目擊而躬覽者 故略其顛末。(邊景鵬, 『通政大夫司憲府掌令邊景鵬文集』 登科時夢兆錄).

142) 초시와 복시의 경우 각 고시마다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으로 나누어 하루씩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를 동당삼장(東堂三場)이라 하였다. 즉, 6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야 최종 합격을 의미하는 전시로 나아갈 수 있었다. 관리등용시험인 문과의 경우, 초장은 경학(經學), 중장은 시(時)·부(賦)·표(表), 종장은 시무책(時務策)을 시험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일대일 대면을 통한 구두시험인 강경(講經)과 논술시험인 제술(製述)이 있었는데, 제주지역의 시재의 경우는 강경은 제외하고 과목으로는 시(時)·부(賦)·표(表)·책(策) 중 1편을 골라 고시를 보았으므로 다른 고시에 비하여 급제자의 수준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曹佐鎬, 앞의 책, 134~138쪽.)

(1459)~순조시대(1834)의 360여년, 제주지역에 시재가 설행된 인조(1624)~순조(1834)시대의 200여년에 이르는 시기동안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가 모두 시재에 의한 문과급제였음이 증명해준다. 변경봉은 자신의 문집에서 이런 제주지역 유생들의 치열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표 6>에서도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전자에서 후반부에 갈수록 원유계자나 생원·진사의 급제자는 사라지고 유학에 의한 급제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6세기 별시의 증가에 따른 급제자의 증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촌지배층에서 문과란 지역지배계층으로서 유지 및 신분상승의 도구였고, 이를 위하여 유력가문간의 혼인으로 인척관계를 형성하였었다. 실제로 변경봉은 문집에서 급제자 전원이 제주지역 삼성과 거듭되는 인척관계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동반 급제한 김명헌을 스승으로 기록하며,¹⁴³⁾ 학연관계 형성이 문과급제에 필수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들 원주 변씨를 통하여 문과급제가 신분유지와 지배층으로의 편입에 이용되었고, 이를 위해 유력가문간의 혼인관계와 문과의 근간이 되는 유학을 위한 학연관계를 통한 인척관계의 형성, 그리고 제주지역에 운영되었던 별견어사의 과전을 통한 시재설행이라는 두 가지 작용으로 문과 급제자가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혈연·학연에 의한 인척관계는 이 시기 또 다른 급제자인 김계중(金繼重)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김진용의 조카이자 김계창·김계룡의 종제(從弟)인 김계홍의 아들로서 김명헌과 함께 광산 김씨의 급제자였다. 그의 조(祖)인 김치용은 김진용의 아우로서 <그림 4>에서처럼 김치용의 아들 김윤우(金胤雨)는 고처량의 장인이었다.¹⁴⁴⁾ 그리고 이수근과 김형중의 경우는 원록에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수근의 경우 간옹 이익의 현손(玄孫)으로서 김진용·고홍진과도 연관을 갖는다. 이외에 강성익(姜聖翊)은 변경우의 문하생으로서 학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구성(李九成)의 손자 이태상(李台祥) 역시 혈연관계였다.

18세기에 인척관계가 형성된 급제자는 총 16명이었다. <표 5>에서처럼 18세기 급제자의 절반을 넘는 59.3%로서 유력성관들에 의한 편중적 급제를 보여주고 있

143) 夫宗仁及先師金命獻氏 中策第. (邊景鵬, 『通政大夫司憲府掌令邊景鵬文集』 戊午年放逐時顛末記).

144) 丙科三十二人[...高處亮[...]妻父金胤雨. (『국조방목』 숙종 43년 10월 초9일 동년식년방(정유)).

다. 이러한 유력가문간의 인척관계의 형성은 양반가문이 세습화를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문과에 입격한 급제자들 중 나이가 60세 이상인 급제자가 5명이었던 것은 급제를 통한 개인의 입신양면이라는 측면 이외에 가문의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한 경우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시재가 비록 10~20년이라는 기간을 주기로 설행되었던 부정기고시였으나 제주지역에서 시재가 아니고서는 문과급제가 힘들었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결국 18세기에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급제자의 비약적 증가는 영·정조의 과거정책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술한 이전 시기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기타성관에서의 급제자 등장이다. 이 시기 대표성관이었던 원주 변씨를 포함한 나주 김씨, 고부 이씨, 남양 홍씨, 진주 강씨, 김녕 김씨, 신천 강씨, 인동 장씨, 제주 부씨가 그러하다. 이는 영·정조의 왕권강화책에 의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영·정조시기는 선조이래로 숙종까지 이어져왔던 붕당정치가 노론(老論)에 의한 일당독재(一黨獨裁)의 양상으로 나타난 시기였다. 이러한 양상은 양반관료(兩班官僚)층이 지속적인 증가와 한정적인 관직의 수를 매우기 위한 양반신분층 내에서의 대립과 갈등인 당쟁의 격화로 인한 각종 사화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과거는 권력을 차지한 노론에 의한 지배층의 재생산도구로 사용되어진다.¹⁴⁵⁾ 이에 영·정조는 탕평(蕩平)에 의거한 과거정책을 실시하였다.

과거정책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에서도 과거급제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영·정조 시기에만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수는 21명에 이른다. 이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급제자의 1/3을 넘는 36.2%에 해당한다. 또한 총 23번의 시재(외방별시포함) 중 이 시기에 설행된 8번의 시재와 나머지 15번의 시재는 평균 급제인원수에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정조시기에 설행된 8번의 시재는 평균 3명, 이외의 15번의 시재는 평균 2명의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실제로 숙종 36년과 영조 4년을 제외한 18세기에 설행된 시재의 최소급제인원은 3명이었다. 정조 18년에 치러진 시재는 7명의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영조 50년(1774)과 정조시기에 치러진 시재에서 급제한 13명이 성관이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시기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9세기와도 연결되고, 이때부터 문과 급제자의 편중적 성향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145) 車美姬, 앞의 책, 8~9쪽.

지금까지 18세기 급제추이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세기는 종전과 같은 특정성관들에 의한 급제편중현상과 이전시기에 찾아볼 수 없었던 기타성관들에 의한 급제자가 배출된 시기였다. 이러한 양상은 숙종시기와 영·정조시기의 급제추이를 통하여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숙종후기는 종전의 연장선상에서 특정성관에서 급제자를 배출하였고, 영·정조시기는 원주 변씨를 시작으로 기타성관에서 급제자가 배출되고 있다. 이는 당시 정책이었던 탕평책의 일환이었던 과거정책의 영향으로 급제인원수의 증가하였고, 기타 성관의 응시자들에게 기회로서 작용되었다. 하지만 18세기까지는 지배세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문과급제를 이용하였고, 인척관계형성으로 지배층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기였다.

4) 19세기

19세기는 이전시기의 특정성관들에 의한 편중적인 급제양상을 벗어나 15개의 성관에서 18명의 급제자가 고르게 배출되고 있다. 또한, 이 시기는 3번의 시재와 2번의 외방별시로 제주지역 내에서 총 5번의 문과가 설행되고 있다. 외방별시는 철종시기에 시행되었는데 이전에 치러진 시재가 외방별시로 승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방방(放榜)에 의한 등과의 변동과 직부전시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었고 둘 모두 제주에서 설행된 단일과였다.

이 시기 제주지역에서 설행된 고시는 과거 본연의 의미인 새로운 인재등용의 목적이 퇴색되고, 민심 회유책으로서 문과가 설행되었다. 거기다 고종 시기부터는 제주지역에 문과가 설행되지 않았던 관계로 결국 도성 한양에서 열린 경과(慶科)에서 급제자가 배출되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대변하는 결과로 이때부터 제주지역에 소과 급제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사마방목을 기준으로 조선시대 제주지역에서 소과 급제자는 총 26명인데 80.77%인 21명이 19세기에 배출되었다.

(1) 순조시기에 설행된 3번의 시재

전술하였듯이 이 시기에 설행된 시재의 목적은 회유책이란 짙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순조 이후 19세기부터 조선은 극도로 문란해지기 시작하였고 과거 역시 집권층이었던 소수 족벌(族閥)의 지배권 유지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짐에 따라 기

타 성관들, 특히 지방의 유생들에게 문과를 통한 출사의 문은 사실상 닫혀있었다. 결국 과거제 문란은 지방 세력의 불만으로 이어진다.

정조의 뒤를 이은 순조 원년~3년까지는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였다. 이때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잡은 노론세력에 의해 남인(南人)은 중앙정치에서 도태된다. 노론은 남인의 공석을 매우기 위하여 3년간 과거를 시행하여 138명의 인원을 선발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과거는 모두 노론 세력의 집권층을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이후의 상황에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던 중소성관은 관료사회의 폐쇄적 구조에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¹⁴⁶⁾

결국, 지방에서도 자신의 세력유지를 위하여 인사권을 향한 각종 청탁이 만연하였고,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양제해(梁濟海)의 모변(某變) 역시 인사제도였던 과거제의 문란에 의한 결과로 불만의 표출이 변란으로 이어졌다.¹⁴⁷⁾ 하지만 이러한 반란들은 결국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실패로 종결되었고, 조정은 회유책으로 시재를 설행하였다.

순조 14년(1814)의 시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파견되었던 찰리사 이재수에 의해 설행되었고, 강계우, 변경준, 김영집, 김영업은 이때 급제자였다. 순조 22년(1822) 제주위유어사(濟州慰諭御史)로 파견된 조정화(趙廷和)에 의하여 설행된 시재 역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민심회유책으로서 설행되어졌다. 순조 25년(1825)에는 대정현정(大靜縣庭)의 전패(殿牌)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차관(敬差官) 윤제홍(尹濟弘)이 파견되어 사건이 수습되었다.¹⁴⁸⁾ 역시 사건의 마무리로 시재가 설행되어졌다.

결국, 순조시기에 치러진 3번의 시재는 모두 제주지역의 불만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회유책이었다. 또한 순조 14년의 시재를 제외한 2번의 시재설행에서 각각 1명씩의 급제자가 나왔다는 것은 정책적인 생색내기의 일환이었던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중앙의 집권층과의 연대감이 없었던 변방인 제주지역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였다.

146) 金在勳, 「純祖代 文科의 운영과 응시자들의 동향」(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5~46쪽.

147) 權仁赫, 앞의 책, 129~132쪽.

148) 春 大靜縣庭殿牌 見移 牧使任聖臯 以聞 遣敬差官尹濟弘來 捕賊處斬. (『탐라기년』 권4 순조 25년).

(2) 철종시기의 2번의 외방별시

철종시기에 치러진 제주지역의 고시는 외방별시였다. 이 시기에 설행된 제주지역의 고시는 갑인년(1854, 철종 5)에 치러진 갑인제주별시(甲寅濟州別試)와 계해년(1863, 철종 14)에 치러진 계해제주별시(癸亥濟州別試)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서는 이 시기 제주지역에 외방별시로 승격과 고시가 실시된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탐라기년』 권4 철종 5년의 기록에 당시 영상 김좌근(金佐根)에 의해 제주별시가 설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¹⁴⁹⁾

철종조는 세도정치에 의한 전횡이 극심하였시기로 김좌근은 세도정치의 핵심 세력이었던 안동김씨의 중심인물로 집권층의 핵심인물이었다. 그런 김좌근이 제주지역에 시제도 아닌 외방별시를 설행하였는지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 길이 없다. 다만, 『탐라기년』 권4 철종 5·6년의 기록¹⁵⁰⁾에서처럼 제주지역과 연관성을 갖고 있었고 제주지역에서는 이를 기리기 위하여 그의 영당을 세우게 된다.

철종 14년(1863)의 제주별시는 철종 13년(1862)~철종 14년(1863)에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제주민란(濟州民亂)의 최종해결책으로 안핵사(按覈使) 이건필(李建弼)에 의하여 설행된 별시였다. 이 역시 회유책으로서 송상순, 고경준, 신재우, 한석규, 김병수 6인이 급제하게 된다. 결국 이 시기의 문과설행은 회유책에 의해 시행되어졌던 것으로 인재를 가려서 뽑는다는 의미에서의 과거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다.

거기다 당시 과거제의 문란은 제주지역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실제로 『고종실록』에는 고종 1년과 16년에 거주지가 ‘제주’가 아니면서 제주인을 사칭하여 급제되었다 발각된 상황이 기록되고 있다.¹⁵¹⁾ 또한 고종 20년의 기록¹⁵²⁾에

149) 設別試領相金佐根奏 遣禮郎金觀燮齎題以來 令牧使陸仁培設場收卷試取 文科金命岳吳承鉉朴秀龍三人 武科李彥吉(後改友補)等九人也 依西北道科例遣宣傳官來 頒賜花紅牌文武科壯元特授典籍主簿. (『탐라기년』 권4 철종 5년).

150) 秋 啓聖祠成 初 臺臣金英業慎尙欽等 前後上疏請建 至是儒生高泗澄又上言 領相金佐根 覆啓蒙允 遂建于州之鄉校. (『탐라기년』 권4 철종 5년).

建領相金佐根影堂于橘林書院傍 以建啓聖祠 與特設別科俱是 領相之力故也. (『탐라기년』 권4 철종 6년).

151) 傳教內曰 各書道名 又書濟州 凡居濟州人士 莫不蹈舞歡忭及伏見榜眼 所謂具星喜爲名者 敢稱濟州幼學 圖占參榜 豈有如此無嚴之習哉. (『고종실록』 권1 1년 5월 14일 계축조).

今番慶科之各書道名也 李禧憲非濟州人 而冒書參榜 進身之初敢犯欺君之罪 不可仍置 亟施當律焉 批曰豈有如許士習乎. (『고종실록』 권16 16년 3월 13일 정사조).

152) 則以爲生等所居絕島 處在八道之外 每於設科取士之時 多有朝家區別處分者 職由乎柔遠之澤 而昨今兩年別試 只令八道薦學 濟州則初不學論 當此舉國同慶之會 不無闕島向隅之歎 雖有若箇才行 莫之上達. (『고종실

는 거주지에 '제주' 기입의 혜택을 이용한 과거부정이 늘어나게 되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제주유생들이 상소를 올리고 있다. 이처럼 조선말기는 인사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과거제가 극도로 문란해졌고 제주지역 역시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처럼 순조 이후부터의 제주지역의 문과설행은 인재시취의 목적보다는 지방을 단속하기 위한 회유책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그나마 설행되어졌던 문과에서 급제하더라도 일당독재와 세도정치에 따른 일부 소수지배층의 권력 독점에 의한 양반관료층의 폐쇄성은 급제자로 하여금 문과에 대한 입신양명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 속에서 제주지역에서도 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3) 소과 급제자의 증가

이후 제주지역에서 문과설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목과 실록에서도 그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고종조의 급제자인 이면재, 백악순, 홍현일은 도성인 한양에서 열린 경과(慶科)의 급제였다. 이에 제주지역에서는 문과 응시보다는 소과, 즉 사마시의 급제로 진사·생원의 지위를 통한 양반으로서의 위신을 얻고자 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순조이후 사실상 문과로의 등용문의 통제와 제주지역 문과설행의 단절에 기인한 결과였다. 결국 고종조의 소과 급제자의 증가는 문과급제에 의한 관직진출보다는 비교적 손쉬운 소과급제를 통해 생원·진사의 칭호를 얻음으로 양반의 지위와 수단을 지키는 방법을 택한 현상의 결과였다.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소과 급제자 명단을 찾을 수 있는 사료로는 『사마방목(司馬榜目)』과 『사마선생안(司馬先生案)』으로도 불리는 『연방록(蓮榜錄)』, 『탐라관풍안(耽羅觀風案)』이 있다. 하지만, 이들 사료들은 『국조문과방목』에 비하여 그 정확성이나 급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문과(대과) 급제자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기에 소과 급제자인원수를 정함에 있어 중복되지 않은 인원을 급제자로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후 연구될 제주지역 소과 급제자의 분석에 있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다음은 각 사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한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소과 급제자목록이다.

『국조문과방목』 권20 20년 4월 16 병인조.

<표 7> 제주지역 시기별 소과 급제자 명단¹⁵³⁾

시기	사료	사마방목	사마선생안	탐라관풍안
	증중조	-	-	김양필
	1510(증중 10)	김양필	-	-
	명중조	-	김양필	-
	1615(광해 7)	오섬	-	-
	1618(광해 10)	-	오섬	오섬
	1635(인조 13)	-	김진용	김진용
	1663(현종 4)	김계룡	김계룡	김계룡
	1687(숙종 13)	오정빈	오정빈	오정빈
	정조조	-	-	오점
	1786(정조 10)	오점	오점	-
	1825(순조 25)	정익환	정익환	정익환
		-	-	김석린
	1828(순조 28)	김석린	김석린	-
	1834(순조 34)	안영수 오태직	안영수 오태직	안영수 오태직
		-	김용징	-
	1843(헌종 9)	김용징	-	김용징
	1858(철종 9)	강기석	강기석	강기석
	1859(철종 10)	김성호	김성호	김성호
	1873(고종 10)	신재진	신재진	신재진
	1874(고종 11)	김양수 김치용	김양수 김치용	김양수 김치용
		-	-	채구석
	1879(고종 16)	채구석	채현석	-
	1880(고종 17)	김병윤 박승규 김익추	김병윤 박승규 -	김병윤 박승규 김익추
	1885(고종 22)	김문용	김문용	김문용
	1891(고종 28)	김우종 김학현 - - 황각연	김우종 김학현 김항유 전군형 -	김우종 김학현 김항유 전군형 -
	1984(고종 31)	강재립 김준현 백인수	- - -	- - -
각 사료의 총인원 수		26명	24명	26명
총인원		총 29명(각 사료의 총인원 76명에서 중복인원 47명 제외.)		

(자료: 『사마방목』, 『사마선생안』, 『탐라관풍안』 참고, 이 글씨체는 사마방목에 없는 인원(채현석은 채구석과 동일인물로 제외), 빈 곳은 -로 표시.)

153)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물과 『사마방목』, 『사마선생안』, 『탐라관풍안』의 각 사료를 비교하여 재확인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소과 급제자명단의 경우 자료의 비교부분에서 방목에 비하여 정확성이나 인물의 확인 부분에서 자료가 모자란 관계로 여기서는 중복되지 않은 인원의 경우 급제자로 포함시켰음을 밝힌다. (金東柱, 앞의 책, 445~457쪽, 1133~1135쪽, 梁鎭健, 앞의 책, 513쪽.)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29명의 사마시 급제인원 중 79.3%인 23명이 19세기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사마방목』의 급제인원 수로만 보더라도 26명 중 80.8%인 21명의 급제자가 19세기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종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과 급제자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확인된 고종이후의 문과 급제자가 3명인데 비하여 소과인 사마시 급제자는 16명이다.

본래 소과는 관리임명제와 직결되는 제도가 아니었다. 사마시 응시자 중에는 후기에 올수록 고령자가 많아 그 평균연령이 문과급제자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는 관계 진출이나 문과에 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고시에 응시한 것이 아니라 생원·진사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위하여 응시했었음을 의미한다.¹⁵⁴⁾ 다음은 조선시대 제주지역 소과·문과 급제자의 급제당시 연령을 나타낸 표이다.

<표 8> 제주지역 소과·문과 급제자의 급제당시 연령¹⁵⁵⁾

과종		연령						총(명)
		15~30	31~40	41~50	51~60	61~70	71~85	
소과 급제자	고종이전	7	5					12
	고종시기	7	4	4	1			16
문과급제자		19	20	9	2	1	3	54

(자료: 『국조문과방목』, 『탐라기년』 『사마방목』, 『사마선생안』 참고, 소과급제자 김양필과 문과급제자 고득중·고태필·고태정·고태익은 생몰년 미상으로 제외.)

<표 8>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급제당시 연령을 통하여 문과급제를 통한 개인의 영달과 양반으로서의 명예·지위를 위한 노력이다. 각 연령층을 보면 청년·중년층인 15~30세와 31~40세가 각각 19, 20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장년·노년층인 41~50세와 51~85세에도 각각 9, 6명의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가문의 양반이란 신분과 지역사회에서의 지배층형성을 위한 노력이 문과급제란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

154) 崔珍玉, 『朝鮮時代 生員進士 研究』(集文堂, 1998), 121쪽, 253쪽.

155) 선행연구에서 문과 급제자의 연령분석을 통하여 70세 이상의 급제자 4인을 통하여 급제자가 실직 진출보다는 입격자체에 뜻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문과급제가 출사와 직결되는 고시였고, 후술할 급제자의 관력(官歷)에서 급제자의 대부분이 관직에 진출했다는 점, 급제자 중 당상관에 오른이가 7인이었다는 점에서 문과급제를 통한 입신양명이 내재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고종조 제주지역 고시가 선행되지 않자 출사와 관련이 없는 소과 급제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요인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과 급제자의 연령 비교이다. 고종 이전에는 청년·중년층인 15~40에 서만 급제자가 배출되는데, 고종시기에 들어서 장년층 이후에서 급제자가 배출되고 있다. 여기서 소과 급제자를 19세기 이전·이후시기로 나누면, 순조 이전시기의 소과 급제자 6인 중 중년층의 급제자는 김진용과 김계룡 2인만이 존재하고 나머지 4인은 모두 20대의 청년층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문과설행이 없었던 고종이후의 소과 급제자들에게서 장년층 이후의 급제자 배출은 결국 사실상 문과급제를 포기하여 소과급제를 통한 신분상의 명예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로서 19세기 이전에 제주지역에서의 소과 급제자 6인과 이후의 22인이라는 인원수의 차이를 통하여 문과급제를 통한 지위상승과 유지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소과 급제자의 증가는 문과 급제자의 전자(前資)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원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과는 대과(大科)를 말한다. 문과는 소과와 대과로 나뉘는데, 소과는 일종의 예비고시였다. 이는 고려조의 과거제인 국자감시(國子監試)를 이어받은 것으로, 무과나 잡과에는 없었고, 오로지 문과에만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의 문과는 소과의 초시·복시의 2단계와 대과인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인 총 5단계를 거쳐야 했다. 즉, 소과에 급제하여 생원·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16세기 별시의 증가에 의한 응시자격의 완화와 유학(幼學)의 문과응시는 생원·진사시험의 가진 의미를 퇴색시켰고, 16세기 이후 전자가 유학인 급제자의 증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지역도 15세기 고득중일가 4인과 17세기 오섬, 문영후, 문징후, 김계룡, 김계창, 18세기 오정빈, 정창원, 변경우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46명의 전자는 유학이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생원·진사의 비율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들이 대부분이 외방별시의 일종인 시재에 의한 급제자였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과의 경우 초시·복시라는 2단계 고시와 출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굳이 소과응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거기에 다른 문과고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손쉬운 단일과의 시재가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¹⁵⁶⁾

156) 16세기 이후 별시의 증가에 의한 응시자격의 완화로 인한 생원·진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게 됨으로써

하지만, 고종시기가 되면 조선시대 총 인원 28명의 절반을 넘는 55.17%의 소과 급제자가 배출된다. 이는 현종이후 고종조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의 문과고시의 설행이 없었다는 것과 문과고시로의 관직진출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결국, 19세기의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들은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해 나갔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응시자들은 양반관료로의 출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이는 19세기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꾸준한 배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문과 급제자의 성관의 분포는 이전 시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정성관들에 의한 편중적 급제현상에서 벗어나 15성관에서 18명의 급제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영·정조시기의 성관별 급제자 분포와 연결되는 현상인데, 이 시기 제주지역의 유학의 발전의 단계를 지나 정착화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된 유학적 소양능력을 현실에서 발휘하지 못하였고, 일부 양반층들은 현실적인 출사를 포기하고 소과응시가 급증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 지역별 분석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행정은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의 삼읍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행정의 중심에는 제주목이 있었다. 조선의 지방행정 기반은 군현제였다. 군현이란 지방의 군과 현을 지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영을 제외한 목, 도호부, 군, 현 등 지방의 행정구획 전부를 총칭하여 부른 명칭이었다. 이때 제주도 군현의 수령으로 제주목에 목사(정3품) 1인, 양현에 현감(종6품) 각각 1인이 파견되었다.

조선의 군현에는 일반적으로 군현상호간에 수령의 품계(品階)에 있어서 고하

조선후기 생원·진사에 의한 급제자의 수는 줄어들고 반면, 유학에 의한 급제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이러한 외방별시의 일종인 시제에 따른 급제자의 배출로 인하여 급제지 총원의 79.31%가 유학으로 집계되며, 이들 모두 16세기 이후의 급제자들이었다. (鄭時采, 앞의 책 291~292쪽, 車美姬, 앞의 책 23~66쪽, 車長燮, 앞의 책 114~116쪽.)

(高下)가 있었으나 군현간에는 상하관계가 없었다. 수령간의 관계는 직접 도(道)와 연결되는 병렬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오직 각 도에 파견된 관찰사만이 직접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주목사가 양현감을 통제하면서 행정적·군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¹⁵⁷⁾ 따라서, 조선시대 제주지역은 제주목을 중심으로 정치·행정 그리고 학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과 급제자의 거주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 문과 급제자의 거주지를 통한 분석

방목을 토대로 각각의 사료를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는 제주목에서 47명, 정의현에서 7명, 대정현에서 4명이라는 급제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총인원 중 제주목은 81%의 비율로 급제자의 대다수가 제주목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제주삼읍 중 제주목이 제주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정의·대정현에 비하여 제주목 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유학교육에 있어서 다른 두 현보다 유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⁵⁸⁾

문과급제와 유학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였으며, 이에 유학교육을 중심으로 문과 급제자의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유력가문의 세거지(世居地)와 연관되어

157) 凡職御先階次司 宗親儀賓及忠勳府堂上官不稱司 次職 如稱領事之則領字在司上 階高職卑則稱行階卑 職高則稱守七品以下不得越二階六以上不得越三階以守 行守字在司上 兵曹同. (『경국대전』 권1 「이진」 경관직).

제주목사의 직임은 경국대전의 행수법(行守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수행법은 자기 관품보다 높은 품계의 관직을 재수받게 되면 관직명 앞에 수(守)자를 붙이고 자기 관품보다 나은 관직을 임명 받았을 경우에 행(行)자를 붙였다. 조선시대는 중6품 이상의 각 품에 각각 상하 2계로 나누어 정3품 상계(上階) 통정대부(通政大夫)이상은 당상관(堂上官), 정3품 하계(下階)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는 당하관·참상(堂下官·參上)이라 하였다. 당시 외관직인 목사의 품계는 당하관의 통훈대부였으나 당상관의 품계인 통정대부를 재수 받은 자가 제주목사로 임명되어 제주를 통치하게 하였다. (부만근,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64~68, 70~76쪽.)

158) 鄉校成. (『탐라기년』 권2 임신 태조 1년).

冬牧使沈蓮源建鄉學堂于南城內. (『탐라기년』 권2 갑오 증종 29년).

牧使李禕建藏修堂於南城內 初李禕勸獎三邑士子 邀進士金晉鎔爲之師至是 因金晉鎔議遂 建學堂于南城內高得宗舊基扁藏修仍以興學事請 得耗穀三百斛又割官儲數百石齋生廩料. (『탐라기년』 권2 기해 효종 10년).

判官崔鎮南移建冲菴廟于藏修堂南(揭額橋林書院). (『탐라기년』 권2 을사 현종 6년).

冬牧使金政建三泉書堂東城內設 齋生廩料以教凡民俊秀. (『탐라기년』 권3 병진 영조 12년).

設三邑學田教士因建旌義書堂以廢場稅穀補諸生廩料. (『탐라기년』 권3 을미 정조 2년).

是歲大靜縣監高漢祚設書堂于城中捐月廩勸諸生. (『탐라기년』 권3 을묘 정조 19년).

牧使李禮廷建左右學堂(東在細花西在明月)說齋生廩料. (『탐라기년』 권4 신묘 순조 31년).

春牧使韓應浩建南西學堂(南在梧登西在上加). (『탐라기년』 권4 계사 순조 33년).

있다. 보통 세거지를 중심으로 교학이 설립되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제주도 행정의 중심지였던 제주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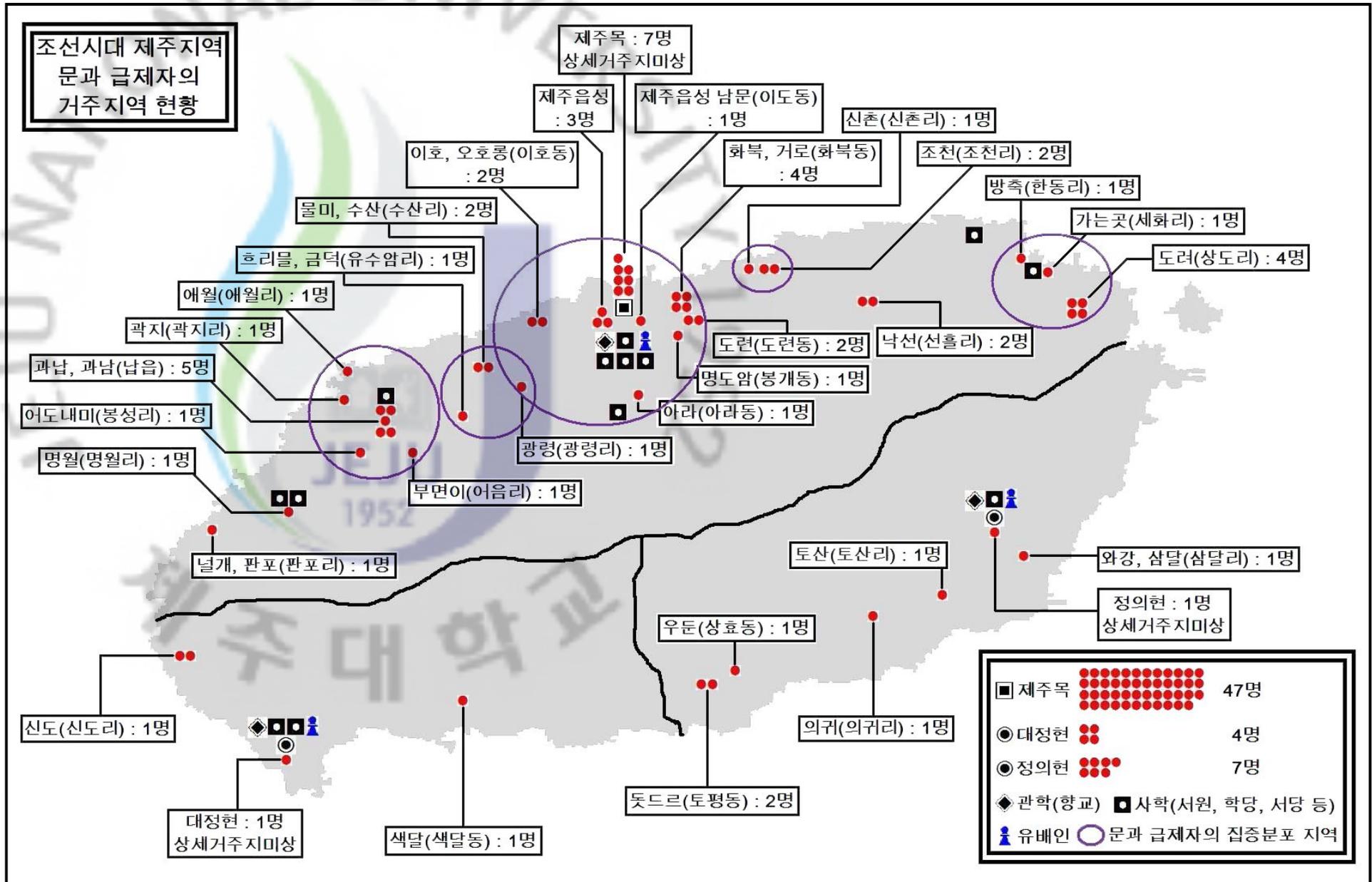
실제로 양현의 향교와 서당이 각각 1개씩 설치되었던 것에 비하여 제주목은 향교를 중심으로 중앙의 사학을 모방한 좌우학당·동서학당·남서학당 등이 존재하였으며, 굴림서원(橋林書院)·삼천서당(三泉書堂)·삼성사(三性祠) 등의 사학(私學) 역시 제주목을 중심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학제의 분포는 문과 급제자들의 거주지 분포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의 거주지 현황을 파악한 표와 그림이다.

<표 9>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지역별 거주현황

번호	성명	방목	옛명칭	현주소	번호	성명	방목	옛명칭	현주소
1	고득중	제주	읍성남문	제주시 이도동	30	김경희	정의	토산	표선면 토산리
2	고태필	제주	-	-	31	변경우	제주	도련	제주시 도련동
3	고태익	제주	-	-	32	김용	제주	신도	대정읍 신도리
4	고태정	제주	-	-	33	강성익	정의	와강(삼달)	성산읍 삼달리
5	오섬	제주	아라	제주시 아라동	34	홍달훈	제주	물미(수산)	애월읍 수산리
6	문영후	제주	부면이	애월읍 어음리	35	이태상	제주	제주읍성	-
7	고홍진	제주	오호룡	제주시 이호동	36	고명학	정의	우둔	서귀포시 상호동
8	문징후	제주	낙선	조천읍 선흘리	37	부종인	정의	돛드르(토평)	서귀포시 토평동
9	김계룡	제주	광령	애월읍 광령리	38	변경봉	대정	신도	대정읍 신도리
10	김계창	제주	명도암	제주시 봉개동	39	김명현	대정	색달	서귀포시 색달동
11	김계홍	제주	가는곳	구좌읍 세화리	40	정태언	제주	도려	구좌읍 상도리
12	고기중	제주	방축	구좌읍 한동리	41	강계우	제주	호리물(금덕)	애월읍 유수암리
13	정희량	제주	도려	구좌읍 상도리	42	변경준	제주	과납(과남)	애월읍 납읍리
14	오정빈	정의	돛드르(토평)	서귀포시 토평동	43	김영집	제주	거로	제주시 화북동
15	정창원	제주	도려	구좌읍 상도리	44	김영엽	제주	거로	제주시 화북동
16	고만철	제주	의귀	남원읍 의귀리	45	신상흠	제주	조천	조천읍 조천리
17	정창선	제주	도려	구좌읍 상도리	46	김유	제주	널개(판포)	한경면 판포리
18	고만갑	제주	이호	제주시 이호동	47	김명약	제주	과납(과남)	애월읍 납읍리
19	고치량	제주	화북	제주시 화북동	48	오승현	정의	-	-
20	변시중	제주	과납(과남)	애월읍 납읍리	49	박수용	제주	곽지	애월읍 곽지리
21	이구성	대정	-	-	50	이도납	제주	-	-
22	양덕하	제주	명월	한림읍 명월리	51	송상순	제주	조천	조천읍 조천리
23	이수근	제주	제주읍성	-	52	고경준	제주	물미(수산)	애월읍 수산리
24	김계중	제주	낙선	조천읍 선흘리	53	신재우	제주	신촌	조천읍 신촌리
25	변성운	제주	과납(과남)	애월읍 납읍리	54	한석규	제주	거로	제주시 화북동
26	변성우	제주	도련	제주시 도련동	55	김병수	제주	제주읍성	-
27	김형중	제주	과납(과남)	애월읍 납읍리	56	이먼재	제주	-	-
28	장한철	제주	애월	애월읍 애월리	57	백악순	제주	-	-
29	강봉서	제주	어도내미	애월읍 봉성리	58	홍현일	제주	-	-
총					58명				

(자료: 『탐라지초본』, 『증보탐라지』, 『제주인명사전』, 본고 <그림 2, 3, 4> 참고, 상세거주지 미상은 -로 표시)

<그림 5>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거주지 분포도



(자료: 『탐라지초본』, 『증보탐라지』, 『제주인명사전』, 본고 <그림 2, 3, 4> 참고)

<표 9>과 <그림 5>는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들이 문과에 응시당시 거주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림 5>는 급제자의 대다수가 제주목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조문과방목』에는 제주지역 급제인원 58명 중 84.5%인 47명을 제주목 출신, 12.1%인 7명을 정의현 출신, 6.9%에 해당하는 4명을 대정현 출신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다른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상세거주지가 기록된 급제자들 중 제주목은 총 급제인원의 절반이 넘는 69%를 차지하며, 확인되는 상세거주지 인원만을 포함하면 81.6%라는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조선시대 성관이 확인되는 전체 급제자의 지역별 급제현황에도 나타난다. 조선의 중심지인 한양은 전체 11,747명의 급제자 중 45.9%인 5,395명의 급제자를 배출하는데,¹⁵⁹⁾ 제주지역 역시 제주행정의 중심지인 제주목에서 높은 급제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시기별 분석을 통하여 제주지역 급제자들에게서 특정성관에 의한 급제자의 배출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들 거주지는 대부분 제주목이었고,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분포되는 모습이 <그림 5>에 나타난다. 우선 제주목을 중심으로 제주읍성에 제주 고씨·경주 이씨·고부 이씨·김해 김씨 각각 1명, 화북동에 나주 김씨 2명·제주 고씨·청주 한씨 각각 1명, 도련·봉개동에 원주 변씨 2명·광산 김씨 1명, 조천·신촌리에 거창 신씨 2명과 여산 송씨 1명, 이도동에 제주 고씨 1명, 아래동에 군위 오씨 1명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읍성에서 서쪽지역인 광령·수산·유수암리 일대에는 광산 김씨·진주 강씨·남양 홍씨·제주 고씨가 각각 1명씩 분포하고, 남읍리를 중심으로 애월·곽지·봉성·어음리 일대는 원주 변씨 3명, 인동 장씨·나주 김씨·김해 김씨·밀양 박씨·진주강씨가 각각 1명씩 분포하고 있다. 또한, 명월리에 제주 양씨 1명, 판포리에 광산 김씨 1명이 급제자가 분포한다. 제주목 동쪽지역은 선흘리 일대에 남평 문씨·광산 김씨 각각 1명, 상도·세화·한동리 일대에 동래 정씨 4명, 광산 김씨·제주 고씨가 각각 1명씩 분포한다.

이들 급제자의 거주지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으로 제주목에 포함된다. 이들 40명은 상세 거주지가 확인된 49명의 81.6%로 급제자의 대부분이 제주목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세거주지 미상을 포함한 급제자의 분포를

159) 이원명, 앞의 책, 95~96쪽.

살펴보더라도, 제주목의 경우 81%의 급제분포를 보여준다. 결국 제주지역의 급제자는 대부분이 제주지역 중심지인 제주목에서 배출되고 있다.

2) 학제의 분포를 통한 분석

제주목이 지역내 정치·행정상 급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학제 역시 급제 지역의 편중현상에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하였지만, 제주지역의 유학의 발전에 있어서 유배인을 통한 사학의 진흥이 가장 큰 공헌을 했다. 그런데, 상세 거주지가 파악된 49명의 각 지역별 급제인원을 살펴보면, 구좌읍 상도리와 애월읍 남읍리 일대, 그리고 제주읍성을 주변으로 하는 급제인원의 집중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학제는 17세기에 당쟁에 의한 유배인들이 제주로 입래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유학교육에 있어 낙후지역이었던 제주지역에서 유배인들은 선진유학을 제공하였다. 특히 간옹 이익과 김진구는 유학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들 문하에서 고흥진, 고만첨, 오정빈, 정창선 등이 문과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조선 후기인 17세기 유배인을 통해 보급되고 발전하기 시작한 유학은 효종 10년(1659) 장수당(藏修堂)이 건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장수당에서 학생을 훈학했던 이가 광산 김씨 김진용이었다. 장수당의 건립과 후학양성을 시작으로 이후 굴림서원과 삼천서당, 도내 여러 곳의 서당(書堂)·학당(學堂)들이 생기기 시작한다.¹⁶⁰⁾ 다음은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의 거주지역과 당시 학제를 표시한 그림이다.

160) 冬牧使沈蓮源建鄉學堂于南城內. (『탐라기년』 권2 갑오 중종29년).

牧使李繪建藏修堂於南城內 初李繪勸獎三邑士子 邀進士金晉鎔爲之師 至是因金晉鎔議遂 建學堂于南城內高得宗舊基 扁藏修仍以興學事請 得耗穀三百斛又割官儲數百石齋生廩料. (『탐라기년』 권2 기해 효종 10년).

判官崔鎮南移建冲菴廟于藏修堂南.(揭額橋林書院). (『탐라기년』 권2 을사 현종 6년).

冬牧使金政建三泉書堂東城內設 齋生廩料以教凡民俊秀. (『탐라기년』 권3 병진 영조 12년).

設三邑學田教士因建旌義書堂以廢場稅穀補諸生廩料. (『탐라기년』 권3 을미 정조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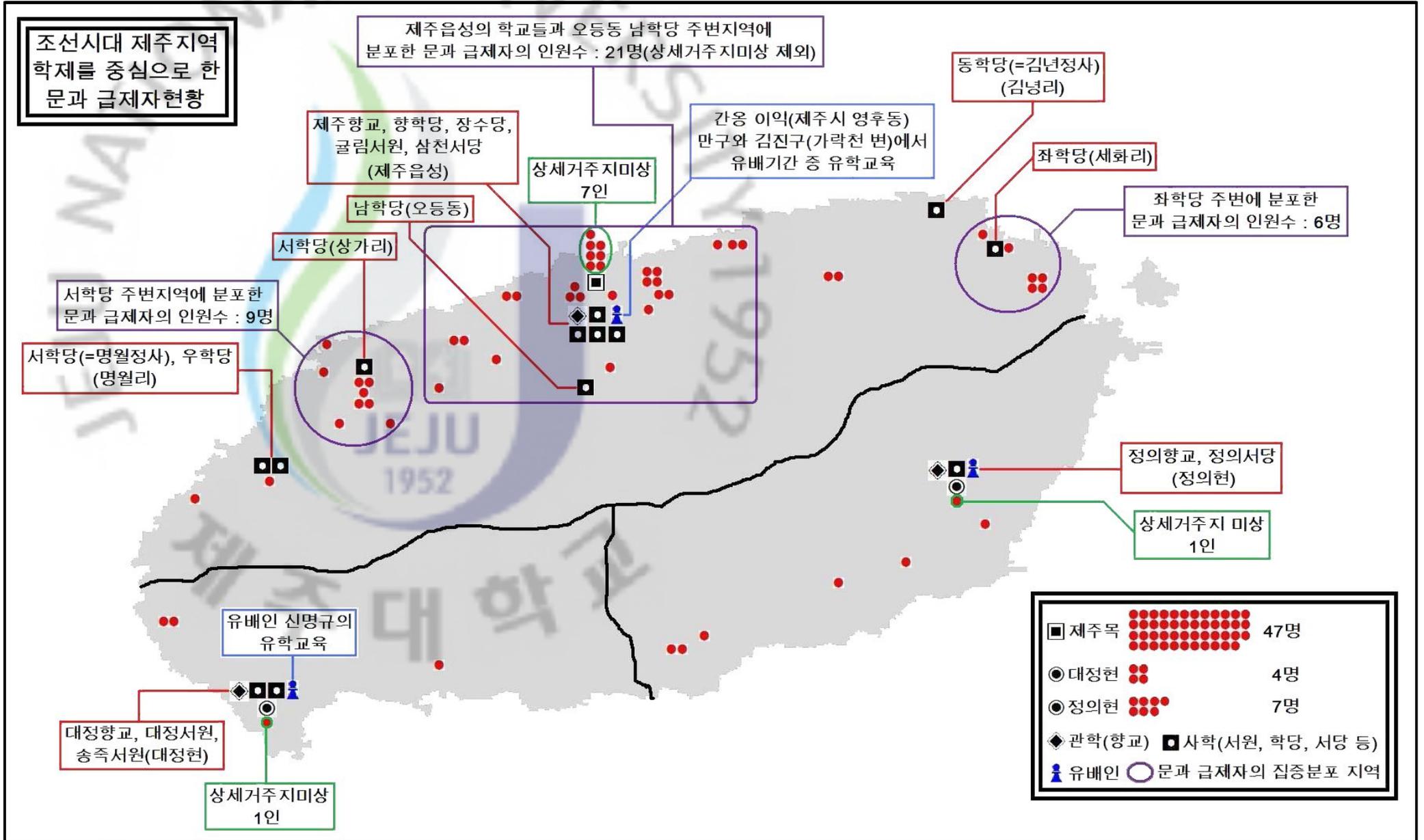
是歲大靜縣監高漢祚設書堂于城中捐月廩勸諸生. (『탐라기년』 권3 을묘 정조 19년).

牧使李禮廷建左右學堂(東在細花西在明月)說齋生廩料. (『탐라기년』 권4 신묘 순조 31년).

春牧使韓應浩建南西學堂(南在梧登西在上加). (『탐라기년』 권4 계사 순조 33년).

(이상 朴用厚, 「三邑鄉校의 設置」, 『濟州濡脈六百年史』, 學文社, 1997, 212~213쪽.)

<그림 6> 조선시대 제주지역 학제를 중심으로 한 문과 급제자 분포도



(자료: 『탐라지초본』, 『증보탐라지』, 『제주인명사전』, 본고 <그림 2, 3, 4> 참고)

<그림 6>는 조선시대 제주의 학제를 표시한 그림이다. 그림에는 관학인 향교를 제외하고 사학이 대부분은 제주목 관할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가 설립되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분포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대정·정의 양현에서는 학교와 급제율과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지만, 제주목은 두 고을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제주목은 학교주변지역으로 급제자가 집중·분포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¹⁶¹⁾

우선 제주읍성의 학교주변지역에 분포되는 급제자를 살펴보면, 거주지가 확인된 급제인원 중 제주읍성을 중심으로 분포된 인원은 총 11명이다. 『탐라기년』의 기록에는 중종 29년(1534)에 목사 심연원이 남성 내에 향학당(鄉學堂)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¹⁶²⁾ 효종 10년(1629)에 장수당(藏修堂)의 건립,¹⁶³⁾ 현종 6년(1665)에 굴림서원(楡臨書院),¹⁶⁴⁾ 영조 12년(1736)에는 목사 김정이 삼천서당(三泉書堂)을 동성 안에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⁶⁵⁾

여기서 장수당은 유배인 간옹 이익의 문하생이었던 김진용을 통한 후학양성과 그의 자제들의 문과급제를 함에 따라 제주유학의 발전에 있어 시발점이 되었던 중요한 곳이었다. 굴림서원과 삼천서당은 조선시대 제주를 대표하는 사학으로 쌍벽을 이루었다. 이러한 제주 유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학의 발원지를 중심으로 총 급제자의 36.7%인 11명의 급제자가 분포되고 있다.

다음으로 납읍리 일대 급제자의 양상을 살펴보면, 거주지가 파악된 급제자 중 이 일대의 급제자는 총 9명으로 총 급제자의 30%를 차지한다. 납읍리 일대는 인종 1년(1545)에 김녕의 동학당(東學堂)과 명월의 서학당(西學堂) 건립,¹⁶⁶⁾ 순조 31년(1831)에 목사 이에연이 좌우학당(左右學堂)을 설립하는데, 이때 세화(細花)와 명월(明月)에 건립되었고,¹⁶⁷⁾ 순조 33년(1833)에는 목사 한응호가 남서학당(南西學堂)을 세웠는데, 이때 서쪽은 상가(上加)에 건립되었다.¹⁶⁸⁾ 하지만 이들 학당

161) 高昌錫, 「朝鮮時代 濟州의 私學」, 『濟州道史研究』 第5輯(濟州道史研究會, 1996), 9~30쪽.

162) 冬牧使沈蓮源建鄉學堂于南城內. (『탐라기년』 권2 갑오 중종 29년).

163) 牧使李繪建藏修堂于南城內 初李繪勸獎三邑士子 邀進士金晉鎔爲之師 至是因金晉鎔議遂 建學堂于南城內高得宗舊基扁藏修仍以興學事請 得耗穀三百斛又割官儲數百石齋生廩料. (『탐라기년』 권2 기해 효종 10년).

164) 判官崔鎮南移建沖菴廟于藏修堂南(揭額楡林書院). (『탐라기년』 권2 을사 현종 6년).

165) 冬牧使金政建三泉書堂東城內設 齋生廩料以教凡民俊秀. (『탐라기년』 권3 병진 영조 12년).

166) 정사(精舍)의 경우, 김녕과 명월의 동서학당은 향학당의 건립시기를 성종 17년 이전시기로 추측하고 있다. (高昌錫, 앞의 책, 洪淳晚, 「朝鮮時代 儒學政策」, 『濟州濡脈六百年史』, 學文社, 1997. 212쪽.)

167) 牧使李禮延建左右學堂(東在細花西在明月)設齋生廩料. (『탐라기년』 권4 신묘 순조 31년).

168) 春牧使韓應浩建南西學堂(南在梧登西在上加). (『탐라기년』 권4 계사 순조 33년).

의 건립은 급제자의 배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¹⁶⁹⁾ 그것은 순조 시기 이미 46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단, 철종시기 급제자인 김명약은 바로 이 납읍리 출신이었고, 박수용은 광지리 출신이었다는 것은 이곳의 하교에 의한 유학발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좌읍 상도리 일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곳은 거주지가 파악된 인원의 16.7%인 5명의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5명의 급제자 중 4명은 동래 정씨를 성관으로 하는 정희량·정창원·정창선·정태언 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학당의 건립과 급제자의 배출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당의 건립시기가 납읍리의 경우처럼 급제자의 배출이전·이후 시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동서지역의 학당들은 문과 급제자의 배출보다는 급제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된 지역, 그리고 유력성관의 세거지였다는 점에서 순조시기 이 지역에 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동·서지역의 학당은 건립이후 급제자의 배출에 영향을 주었기 보다는 배출이후에 영향을 받아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실질적으로 문과 급제자의 배출에 큰 영향을 주었던 학제는 제주읍성의 장수당과 굴림서원·삼천서당이 큰 역할을 하였고, 이들 중요 사학기관이 제주읍성내 건립에 힘입어 제주목에서 47명의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주는 단적인 예로서 오정빈을 들 수 있다. 오정빈은 정의현 출신이었지만 신명규가 유배되어 대정에 적거하였을시 대정현으로 들어가 수학하였으며, 김진구가 도래시에는 김진구에게 수학을 하였다. 유학교육이 가능한 곳이라면 지역내 유생들은 천리길을 마다치 않고 배움을 닦았다. 즉, 조선의 문과의 중심에는 유학이 있었고, 제주지역에서 문과에 급제하기 위해서는 유학교육의 중심지였던 제주목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배출되었었다.

제주지역은 이러한 학제를 기반으로 유학이 발전·전파되면서 점차 정착화 되어간다. 이러한 유학의 발전은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고,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지역별 분석을 통한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추이를 살

169) 罷南西右三學堂查櫛 三學堂齋生試講汰額以充賤後說別牙兵銃手一千二百名. (『탐라기년』 권4 을유 현종 15년).

이들 사학의 경우, 양인신분이면 누구나 입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유학교육의 목적보다는 액내생(額內生)이 되어 군역(軍役)을 면제받고자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高昌錫, 앞의 책, 20쪽.)

펴보면, 제주지역은 행정·학제를 중심으로 문과급제가 이루어졌고, 이를 중심으로 급제자의 거주지가 분포되고 있다. 또한 시기별·지역별 집중현상은 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받았다. 결국, 급제자의 지역별 분포를 통하여 제주지역에서 유학의 전파·발전·정착의 3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유배인들에 의한 유학의 전파와 그들 후학에 의한 발전과 이를 통한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배출을 설명할 수 있다.

IV.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출사

과거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인재를 가려 뽑는다는 의미에서 인재등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과는 문관(文官)을 뽑는 시험이었고, 문과 급제란 그에 합당한 관료로의 진출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문과급제를 통한 양반관료의 편입은 사회·경제적인 신분상승과 유지장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응시자들은 자신들의 영달(榮達)과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문과에 응시하였고, 제주지역은 가문의 존속과 향촌사회의 지배권의 유지를 위하여 급제를 중요시 여겼다.

그런데 급제자의 관료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제자의 증가와 관직수의 한계로 포화상태에 이른다. 특히, 16세기 각종 별시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세조이후 집권세력의 훈구화와 정국운영의 독주, 그리고 정치세력기반이 한양으로 국한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국왕은 외방유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지역적 기반을 둔 정치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별시를 시행하였다. 이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별시는 관직의 포화상태로 이어지고, 급제자 전원에게 실직(實職)을 제수할 수 없게 되자 분관(分館)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¹⁷⁰⁾

조선시대 관직진출에서 새로운 등과자가 나오면 갑과 제1인에게는 중6품, 제2·3인에게는 정7품, 을과에게는 정8품, 병과에게는 정9품의 품계를 주었다. 이때 갑과 3인에게만 실직을 주고, 나머지는 승문원(承文院)·홍문관(弘文館)·교서관(校書館)·성균관(成均館) 등 사관(四館)에 권지(權知)로서 분속시켰다 후에 실직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이를 사관분관(四館分館)이라 하는데, 실직으로 나아가는 것은 1년에 3~4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¹⁷¹⁾ 분관은 임시 대기직에 불과하였다.¹⁷²⁾ 이들이 분관되어 배속되어지는 곳은 성균관 권지(權智) 학유(學諭), 승문원(承文院) 권지(權智) 부정자(副正字), 교서관(校書館) 권지(權智) 정자(正字)였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권지'를 떼고, 성균관 학유, 승문원 부정자, 교서관 정자가 되면

170) 朴弘甲, 「조선초기 문과 급제자의 분관과 진출」, 『史學研究』 第50號(한국사학회, 1995), 183~188쪽.

171) 朴贊植, 「出仕와 行蹟」, 『濟州濡脈六百年史』(學文社, 1997), 476~477쪽.

172) 차미희는 16세기 문과 급제자의 증가를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시의 증시를 통한 삼남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사립들을 회유하는 방법으로서 문과의 실행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제주도의 경우 이러한 전국적인 양상과는 반대로, 지역적 단절성으로 인한 급제자의 배출이 어려워진 상태였다. (車美姬, 「16세기 文科 及第者 배출의 증가」, 『朝鮮時代史學報』 6(조선시대사학회, 1998), 35~49쪽.)

서부터 9품의 실직으로 나아가게 된다.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들도 문과를 통한 출사로 입신양명을 목적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과 급제자를 분석함에 있어, 특정지역과 특정집단에 의한 편중적인 급제양상은 조선시대 전국적인 급제양상으로도 나타난다. 전국단위에서 급제자의 편중현상은 한양중심의 급제자 편중과 왕족인 전주 이씨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 유력성관의 편중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집권층에 의한 별열(閥閥)적 급제자의 배출 역시 한 몫을 하고 있었다. 이는 17~18세기인 제주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앙중심의 급제자 배출은 급제이후 관직진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집권층은 권력세습을 위해 관직배분을 하였고, 지방출신으로 집권층과는 연고가 없는 제주지역의 급제자들은 관직임용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방목에 기록된 급제자들의 직력(職歷)에 관직이 기록된 인원은 28명으로 나타나지만, 왕조실록 등의 각 사료에는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들 모두가 관직에 재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방목과 실록, 그리고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토대로 작성한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들의 관직을 나타낸 표이다.

<표 11>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관직¹⁷³⁾

성명	품계	관등	내외	관력(官歷)	성명	품계	관등	내외	관력(官歷)
고득중	정2품	당상	내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김경희	종9품	참하	내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
	정2품	당상	외						
고태필	종2품	당상	내	이조참판(吏曹參判) 개성유수(開城留守)	변경우	정6품	참상	내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종2품	당상	외			정4품	참상	내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고태익	정3품	당상	내	대사성(大司成) 부평부사(富平府使)	김용	정6품	참상	내	고산찰방(高山察訪)
	종3품	참상	외			정6품	참상	내	형조참판(刑曹參判)
고태정	정3품	참상	내	장악원정(掌樂院正) 봉상시정(奉常寺正)	강성익	종5품	참상	내	정의현감(旌義縣監)
	정3품	참상	내			종6품	참상	외	예조좌랑(禮曹佐郎)
오섬	종3품	참상	외	장흥부사(長興府使) 강원감사(江原監司)	홍달훈	정4품	참상	내	전적(典籍)
	종2품	당상	외						
문영후	종6품	참상	외	곡성현감(谷城縣監) 오수찰방(檜樹察訪)	이태상	종6품	참상	외	사천현감(泗川縣監)
	종6품	참상	외						
고홍진	정6품	참상	내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고명학	정4품	참상	내	장령(掌令)
	정6품	참상	외			종6품	참상	외	대정현감(大靜縣監)

문정후	종6품 종6품 종6품	참상 참상 참상	외 외 외	찰방(察訪) 구례현감(求禮縣監) 제주교수(濟州教授)	부종인	종6품 종5품	참상 참상	외 내	대정현감(大靜縣監) 예조정랑(禮曹正郎)
김계룡	종6품 종5품	참상 참상	외 내	벽사찰방(碧紗察訪) 예조정랑(禮曹正郎)	변경봉	정6품 종6품 정4품 정3품	참상 참상 참상 당상	내 외 내 내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대정현감(大靜縣監)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이조참의(吏曹參議)
김계창	정6품	참상	내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정태언	종5품 종6품	참상 참상	내 외	예조정랑(禮曹正郎) 현감(縣監)
김계홍	정5품 정6품	참상 참상	내 내	예조정랑(禮曹正郎)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김명헌	종2품	당상	내	호조참판(戶曹參判) 증직(贈職)
고기중	정9품	참하	내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	강계우	정3품 정3품	당상 당상	내 내	참의(參議) 병조참지(兵曹參知)
정희량	종6품 종6품 정2품	참상 참상 당상	외 외 내	유곡찰방(幽谷察訪) 제주교수(濟州教授) 병조판서(兵曹判書) 증직	변경준	정7품 종6품 종9품	참하 참상 참하	내 내 내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 봉상시주부(奉常寺主簿)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
오정빈	정6품 정6품	참상 참상	내 내	전적(典籍) 예조좌랑(禮曹佐郎)	김영집	정6품 종6품	참상 참상	내 외	예조좌랑(禮曹佐郎) 찰방(察訪)
정창원	정5품	참상	내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김영업	정4품 종5품	참상 참상	내 외	장령(掌令) 제주판관(濟州判官)
고만침	정6품 종5품 종4품	참상 참상 참상	내 내 외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예조정랑(禮曹正郎) 평해군수(平海郡守)	신상흠	종2품 종6품	당상 참상	내 외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창선	종6품 정9품	참상 참하	외 내	고성현감(固城縣監)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	김유	종6품	참상	외	대정현감(大靜縣監)
고만갑	정6품 정6품 종4품	참상 참상 참상	내 내 외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예조좌랑(禮曹佐郎) 고원군수(高原郡守)	김명악	정4품 정6품	참상 참상	내 내	장령(掌令) 예조좌랑(禮曹佐郎)
고치량	정6품 종6품 종6품	참상 참상 참상	내 외 외	이조좌랑(吏曹佐郎) 진해현감(鎭海縣監) 제주교수(濟州教授)	오승현	정4품 정6품 종6품	참상 참상 참상	내 내 외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병조좌랑(兵曹佐郎) 보안찰방(保安察訪)
변시중	정6품 종6품	참상 참상	내 외	예조좌랑(禮曹佐郎) 흥덕현감(興德縣監)	박수용	정4품	참상	내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이구성	종6품 정6품 종6품	참상 참상 참상	외 내 외	제주교수(濟州教授) 예조좌랑(禮曹佐郎) 삼례찰방(參禮察訪)	이도남	정6품 정5품	참상 참상	내 내	병조좌랑(兵曹佐郎) 지평(持平)
양덕하	종6품 종6품 정5품	참상 참상 참상	내 외 내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청암찰방(靑巖察訪)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송상순	정3품 종5품 종6품	참상 참상 참상	내 외 외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 제주판관(濟州判官)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수근	종6품	참상	외	찰방(察訪)	고경준	정6품 정6품	참상 참상	내 내	전적(典籍) 병조좌랑(兵曹佐郎)
김계중	정6품 종6품	참상 참상	내 외	전적(典籍) 정의현감(旌義縣監)	신재우	종5품 종5품 정5품	참상 참상 참상	내 내 내	헌납(獻納) 부사직(副司直) 지평(持平)
변성운	정9품	참하	내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	한석규	종5품	참상	내	예조정랑(禮曹正郎)

변성우	정5품 정7품 종6품	참상 참하 참상	내 내 외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교서관박사(校書館博士) 삼례찰방(參禮察訪)	김병주	정4품 종5품	참상 참상	내 외	장령(掌令) 제주판관(濟州判官)
김형중	정6품	참상	내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이면재	종9품 종6품 정5품	참상 참상 참상	내 내 내	학유(學諭), 부사과(副司果) 지평(持平)
장한철	종6품 종5품	참상 참상	외 외	정의현감(旌義縣監) 흡곡현령(歙谷縣令)	백약순	정7품	참하	내	주서(注書)
강봉서	종6품 정4품	참상 참상	외 내	찰방(察訪)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홍현일	정7품 종9품	참하 참하	내 내	가주서(假注書) 부정자(副正字)
					총	58명			

(자료: 『국조문과방목』,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증보탐라지』, 『제주사인명사전』, 본고 <그림 2, 3, 4> 참고)

<표 11>는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들이 모두 현직에 종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김명헌은 관직에 재수되기 전에 사망하여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이렇듯 58명으로 파악이 된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들은 모두 관료로 진출하였다.

제주지역 급제자 역시 처음에는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 교서관주서(校書館注書) 등의 권지로서 분속되었다가 후에 실직에 임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주지역 급제자는 대부분 외직으로 찰방(察訪), 참봉(參奉), 현감(縣監), 군수(郡守)등을 역임하였고, 때로는 중앙의 좌랑(佐郎), 정랑(正郎),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전기의 급제자 고득중, 고태필, 고태익, 오섬, 변경우, 변경봉, 신상흠 7인(정희량은 회방에 의한 승직, 김명헌은 증직으로 제외)을 제외하고는 당상관의 반열에 오른 이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급제자들은 중앙의 한직이나 지방의 외관직으로 재수되었었다. 중앙의 지배층과 인맥이 없던 제주지역의 급제자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로 파악된다. 또한 이들 중에는 제주판관·정의·대정현감·제주향교교수에 재임 한 자들이 보이는데, 아마도 제주지역으로의 관직차출을 꺼려했던 풍조에 이들을 제주지역 관원으로 차송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문과에 급제하였어도 지방출신이란 한계에 직면하였던 것이었다.

173) 선행되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국조문과방목』,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작성되어진 표이다. (濟州濡脈六百年史編輯委員會, 『濟州濡脈六百年史』, 학문사, 1997, 482~484쪽, 486~500쪽, 김찬흠, 앞의 책, 17쪽, 36쪽, 38~39쪽, 40~41쪽, 52쪽, 57쪽, 80~83쪽, 94쪽, 100쪽, 175쪽, 189쪽, 280~282쪽, 284~285쪽, 375~376쪽, 656~657쪽, 662~663쪽, 659쪽.)

이 같은 현상은 조선후기 과거제 문란과도 연결된다. 『고종실록』 고종 1년 5월 14일의 기사에는 지평 신재우가 고향을 속인 구성희의 처벌을 건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시에 ‘제주출신의 표기’를 통하여 제주지역 응시자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이 시기 타 지역의 응시자가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문과에 입격한 일이 빈번하였고, 구희성이란 인물이 발각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폐단은 고종 조에 종종 나타난다. 결국 제주지역도 조선후기 과거제의 문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문과 급제자의 배출에는 가문의 명망과 지연·학연 등의 배경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성향은 제주지역의 특정성관에 의한 문과 급제율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급제 후 관직진출에 있어서 중앙 지배층의 별열(闕閥)들에 의한 권력의 집중은 지방출신인 제주지역의 급제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결국 한직이나 외관직으로 차출되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제주지역 관원으로 차송되기도 하였다. 결국 지방출신으로 중앙과의 연계성 부족은 급제자의 출사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였고, 지역적 한계로 나타난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문과 급제를 통한 출사에 대한 열의는 과거제가 폐지되는 고종 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고, 이를 이용한 중앙정부의 회유책에 의한 문과설행은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된다. 현종이후 제주지역에서 문과설행이 단절되자 일부 응시자들은 도성인 한양에서 설행되는 경과에 응시하여 급제하기도 했지만, 시대적 상황에 순응하여 관료진출보다 양반의 신분과 지위를 지키기 위한 소과 급제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제주지역에서 문과급제란 출사의 이유보다 개인의 영달과 가문의 영광, 그리고 향촌사회에서 지배계층으로 신분상승과 유지의 성향이 강했으며, 이를 위하여 유력가문끼리 인척관계를 형성시켰다. 하지만, 중앙의 집권층인 소수별열과의 관계가 없었던 문과 급제자들은 관료진출에 있어 지역적 한계성을 보여주었고, 과거제가 문란해지는 현종~고종조에 이르게 되면, 문과로 인한 관직진출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에서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소과 급제자가 증가하게 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문과운영과 급제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에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조문과방목』, 『진신선생안』, 『탐라기년』, 『탐라관풍안』, 『탐라지초본』, 『왕조실록』 등의 비교를 통하여 정확한 급제자의 인원수를 파악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제주지역 응시자들에게 섬이라고 하는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성과 폐쇄성은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단절성에 의하여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문과운영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시기별 과거정책에 따라 그 급제추이의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제주지역의 문과운영은 인조원년을 기점으로 크게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조 이전시기의 제주지역의 문과운영에는 지리적 특수성에 의한 영향으로 급제자의 수에 있어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 시기에 유일하게 급제자를 배출한 지역 유력성관인 제주 고씨는 여말선초의 시대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출신성분을 바탕으로 유일한 급제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재경사족화는 제주지역과 단절로 이어지게 된다. 이 시기 제주지역은 문과의 근간이 되는 유학교육운영에 실패하였고, 결국 16세기에는 제주지역 급제자가 단절된다.

인조 원년을 기점으로 17세기에 들어서면 제주지역 문과운영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전 제주지역 문과응시에 있어 지역적 단절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행정적인 요인으로 문과응시를 위해 바다를 건너야하는 지리적 불리함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문과응시노정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유학교육의 낙후화를 들 수 있다. 하지만 17세기 제주지역에 설행된 고시는 다른 지역과 다른 차별성이 있었다. 그것은 외방별시의 일종인 별견어사의 파견에 따른 “시재”와 “직부전시”였고, 이를 통하여 급제자가 다시 배출된다. 이러한 문과운영의 변화를 통하여 제주지역에도 17세기 이후 꾸준히 급제자를 배출하게 된다. 하지만, 급제자의 배출과 증가를 단지 문과운영의 변화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것은 시기별·지역별

상황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시기별 문과 급제자의 변화양상이다. 제주지역은 총 4개의 시대를 통하여 문과 급제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고득중 일가 4인에 의한 급제자의 배출과 단절이 되었던 15~16세기, 인조 원년 오섬에 의해 제주지역에 문과 급제자가 다시 나타난 17세기, 비약적 급제자의 증가를 보여주는 18세기, 그리고 순조이후의 회유책에 의한 문과설행과 소과 급제자가 증가하는 19세기로 나타난다.

17세기의 급제추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6세기 이후 유학교육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전 시기 관학인 향교의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데 비하여 17세기의 유학교육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것은 유배인을 통한 유학의 보급이었다. 이때 대표적 인물이 바로 간옹 이익과 그의 밑에서 수학한 김진용였다. 이들은 제주지역의 유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유학발전은 이후 문과 급제자의 배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17~18세기의 문과 급제자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또 다른 양상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15~16세기와 같은 혈연관계에 의한 특정성관에 의한 급제자의 편중성향이다. 하지만 이전시기가 단순한 지역유력세력의 세전양상을 보인 반면, 17세기는 지역유력세력들의 혈연·혼인·학연을 통해 인척관계를 형성한 급제자의 편중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에도 이어지게 된다. 특히 숙종시기 유배인 김진구의 유학교육에 의한 문과 급제자의 배출은 이전 시기의 급제양상을 답습하였고, 영·정조시기의 원주 변씨가문은 인척관계의 형성을 통한 급제자의 편중현상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기타 소수성관들에서 급제자가 배출하는데 이는 영·정조시기의 과거정책의 영향에 따른 현상이었다. 18세기 후반은 선조 이후부터 숙종까지 이어지는 당쟁이 종지부를 찍고, 노론에 의한 일당독재가 이뤄지고 있었던 시기로 당시 국왕이었던 영·정조는 이들 신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탕평책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에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된 과거정책은 신권견제에 이용되었고, 결국 제주지역에서는 이전과 달리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게 된다. 이러한 급제자의 증가는 소수성관들에게 기회의 폭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이 시기가 유학이 정착화를 이루고 있었던 관계로 이전시기와는 다르게 유학보급이 넓어졌다는 것에서 이들의 급제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19세기는 이전 시기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소수 집권층에 의한 문과를 통한 입신양명이 문은 좁아지고 있던 시기였다. 결국 중앙지배층과 연고가 없는 지방응시자들은 점차 도태되었고, 이 시기 제주지역에서는 양제해의 모변·제주민란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양제해의 모변은 지방의 인사권에 대한 불만이 모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과로의 입사가 힘들어진 시기에 지역 내의 권력의 불평등과 함께 각종 수취제도의 문제가 모변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내 유력세력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시재를 설행하였는데, 이 시기 설행된 문과고시는 대부분이 지역의 불만을 회유하는 목적으로 설행되었다. 고종시기에는 19세기의 또 다른 특징인 소과 급제자의 증가현상이 나타난다. 『국조문과방목』에는 고종시기 제주지역 급제자는 3인으로 나타나는데, 철종 이후 제주지역에는 문과고시가 따로 열리지 않던 관계로, 이때 급제자들은 한양에서 열린 경과정시의 급제자였다. 지역내 문과설행이 중단되었던 이 시기 제주지역에서는 문과급제에 의한 입신양명보다는 현실에 순응하여 소과의 급제를 통한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지위를 살리려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그 결과 소과 급제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조선시대 전국적 양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은 행정상 중심지였던 제주목을 중심으로 급제자의 지역적 편중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요성관의 거주지에 따른 편중과 제주지역 학제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각 성관별 거주지역에 따른 급제의 편중현상에서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급제자의 81%인 47명이 제주목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각 성관들의 혈연적 관계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학연관계에 따른 편중현상도 존재하였다. 그것은 제주지역의 학제에서 찾을 수가 있다. 제주목을 중심으로 설치된 장수당과 굴림서원, 삼천서당, 좌우학당, 동서학당이 분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제자의 집중현상이 나타난다. 거기다 유배인에 의한 유학교육도 제주목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졌다는 데서 지역적 편중현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주지역의 문과 급제자들은 시기·지역별 분석을 통하여 그 급제추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문과급제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으로 시재와 직부전시가 작용하였던 것이다.

문과 급제자들은 현직에 종사하였지만, 이들 중 고위관료로서 승진한 이는 몇

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한직이나 지방 수령으로서 외직을 거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급제자의 출사와 행적은 중앙과는 연계성이 떨어진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의 지역적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제주지역의 문과운영과 급제자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단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의 시기별 변화에 따른 정책양상의 변화와 그에 의한 제주지역의 유력세력의 변화양상을 충분히 분석한 이후에 비로소 제주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부록 1> 『국조문과방목』에 기록된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 명단

순번	성명	자(字)	본(本)	생년	전자(前資)	급제연도	종류	과종(科種)	거주지
1	고득중(高得宗)	자전(子傳)	濟州	-	直長	1414(太宗 14)	甲子親試	乙科 3위	-
2	고태필(高台弼)		濟州	-	縣監	1451(文宗 1)	辛未增廣	丁科 26위	-
3	고태익(高台翼)	문좌(文佐)	濟州	-	將仕	1454(端宗 2)	甲戌式年	丁科 21위	-
4	고태정(高台鼎)	기수(箕叟)	濟州	-	司直	1459(世祖 5)	己卯式年	乙科 (壯元)	-
5	오섬(吳暹)	퇴지(退之)	軍威	1587(정해)	生員	1624(仁祖 2)	甲子增廣	丙科 19위	濟州
6	문영후(文榮後)	인경(仁卿)	福城	1629(기사)	司果	1666(顯宗 7)	丙午式年	丙科 8위	濟州
7	문징후(文徵後)	중구(仲久)	福城	1632(임신)	司果	1666(顯宗 7)	丙午式年	丙科 9위	濟州
8	고홍진(高弘進)	퇴이(退而)	濟州	1602(임인)	幼學	1666(顯宗 7)	丙午式年	丙科 27위	濟州
9	김계룡(金繼隆)	무경(茂卿)	光山	1633(계유)	司果	1672(顯宗 13)	壬子別試	丙科 16위	濟州
10	김계창(金繼敞)	국경(國卿)	光山	1636(병자)	司果	1672(顯宗 13)	壬子別試	丙科 17위	濟州
11	김계흥(金繼興)	성경(盛卿)	光山	1647(정해)	幼學	1676(肅宗 2)	丙辰庭試	丙科 5위	濟州
12	고기종(高起宗)	-	濟州	1632(임신)	幼學	1676(肅宗 3)	丙辰庭試	丙科 6위	濟州
13	정희량(鄭希良)	국경(國卿)	東萊	1662(임인)	幼學	1680(肅宗 6)	庚申別試	丙科 8위	濟州
14	오정빈(吳廷賓)	흥숙(興叔)	軍威	1663(계묘)	生員	1707(肅宗 33)	丁亥別試	丙科 8위	濟州
15	정창원(鄭敞遠)	-	東萊	1687(정묘)	幼學	1707(肅宗 33)	丁亥別試	丙科 9위	旌義
16	고만첨(高萬瞻)	-	濟州	1672(임자)	幼學	1708(肅宗 34)	戊子式年	丙科 26위	濟州
17	정창선(鄭敞選)	현보(顯甫)	東萊	1683(계해)	通德郎	1717(肅宗 43)	丁酉式年	丙科 8위	濟州
18	고만갑(高萬甲)	성백(星伯)	濟州	1681(신유)	幼學	1717(肅宗 43)	丁酉式年	丙科 22위	濟州
19	고처량(高處亮)	명숙(明叔)	濟州	1688(무진)	幼學	1717(肅宗 43)	丁酉式年	丙科 24위	濟州
20	변시중(邊是重)	중여(重如)	原州	1694(갑술)	幼學	1728(英祖 4)	戊申別試	丙科 8위	濟州
21	이구성(李九成)	자소(子韶)	古阜	1702(임오)	幼學	1739(英祖 15)	己未庭試	丙科 13위	大靜
22	양덕하(梁德夏)	대비(大庇)	濟州	1714(갑술)	幼學	1739(英祖 15)	己未庭試	丙科 14위	濟州
23	이수근(李壽根)	일지(一之)	慶州	1710(계인)	幼學	1739(英祖 15)	己未庭試	丙科 15위	濟州
24	김계중(金繼重)	-	光山	1663(계묘)	幼學	1739(英祖 15)	己未庭試	丙科 16위	濟州
25	변성운(邊聖運)	중휴(仲休)	原州	1717(정유)	幼學	1765(英祖 41)	己酉式年	乙科 6위	濟州
26	변성우(邊聖遇)	회숙(會叔)	原州	1721(신축)	幼學	1765(英祖 41)	乙酉式年	丙科 36위	濟州
27	김형중(金衡重)	-	羅州	1694(갑술)	幼學	1765(英祖 41)	乙酉式年	丙科 37위	濟州
28	장한철(張漢喆)	-	仁同	1744(갑자)	幼學	1775(英祖 51)	乙未庭試	丙科 27위	濟州
29	강봉서(姜鳳瑞)	-	晋州	1746(병인)	幼學	1775(英祖 51)	乙未庭試	丙科 28위	濟州
30	김경회(金慶會)	-	金海	1747(정묘)	幼學	1775(英祖 51)	乙未庭試	丙科 29위	旌義
31	변경우(邊景祐)	문보(文甫)	原州	1745(을축)	通德郎	1783(正祖 7)	癸卯增廣	丙科 18위	濟州
32	김용(金壙)	이덕(而德)	金寧	1744(갑자)	幼學	1783(正祖 7)	癸卯增廣	丙科 25위	濟州
33	강성익(康聖翊)	오응(五應)	信天	1747(정묘)	幼學	1783(正祖 7)	癸卯增廣	丙科 27위	旌義
34	홍달훈(洪達勛)	대여(大汝)	南陽	1756(병자)	幼學	1795(正祖19)	乙卯式年	丙科 20위	濟州
35	이태상(李台祥)	-	古阜	1756(병자)	幼學	1795(正祖19)	乙卯式年	丙科 25위	濟州
36	변경봉(邊景鵬)	-	原州	1756(병자)	幼學	1795(正祖19)	乙卯式年	丙科 26위	大靜
37	고명학(高鳴鶴)	-	濟州	1769(기축)	幼學	1795(正祖19)	乙卯式年	丙科 33위	旌義
38	부종인(夫宗仁)	자량(子諒)	濟州	1767(정해)	幼學	1795(正祖19)	乙卯式年	丙科 38위	旌義
39	정태언(鄭泰彦)	-	東萊	1744(갑자)	幼學	1798(正祖 22)	戊午式年	丙科 32위	濟州
40	강계우(姜繼遇)	-	晋州	1789(기유)	幼學	1815(純祖 15)	乙亥庭試	丙科 17위	濟州
41	변경준(邊景進)	-	原州	1787(정미)	幼學	1815(純祖 15)	乙亥庭試	丙科 18위	濟州
42	김영집(金英集)	-	羅州	1775(을미)	幼學	1817(純祖 17)	丁丑庭試	丙科 6위	濟州
43	김영엽(金英業)	-	羅州	1784(갑진)	幼學	1817(純祖 17)	丁丑庭試	丙科 7위	濟州
44	신상훈(愼尙欽)	-	居昌	1794(갑인)	幼學	1823(純祖 23)	癸未庭試	丙科 3위	濟州
45	김유(金柔)	강중(剛中)	光山	1775(을미)	幼學	1829(純祖 29)	己丑庭試	丙科 12위	濟州
46	김명악(金命岳)	-	金海	1821(신사)	幼學	1854(哲宗 5)	甲人濟州別試	甲科 1위	濟州
47	오승현(吳承鉉)	-	軍威	1807(정묘)	幼學	1854(哲宗 5)	甲人濟州別試	乙科 1위	濟州
48	박수용(朴秀龍)	-	密陽	1829(기축)	幼學	1854(哲宗 5)	甲人濟州別試	丙科 1위	濟州
49	이도남(李道南)	-	洪州	1811(신미)	幼學	1859(哲宗 10)	己未增廣	丙科 27위	濟州
50	송상순(宋祥淳)	-	礪山	1842(임인)	幼學	1863(哲宗 14)	癸亥濟州別試	甲科 1위	濟州
51	고경준(高景峻)	-	濟州	1839(기해)	幼學	1863(哲宗 14)	癸亥濟州別試	乙科 1위	濟州
52	신재우(愼栽佑)	-	居昌	1840(경자)	幼學	1863(哲宗 14)	癸亥濟州別試	丙科 1위	濟州

53	한석규(韓錫奎)	-	淸州	1845(을사)	幼學	1863(哲宗 14)	癸亥濟州別試	丙科 2위	濟州
54	김병수(金炳洙)	-	金海	1836(병신)	幼學	1863(哲宗 14)	癸亥濟州別試	丙科 3위	濟州
55	이먼재(李勉宰)	-	延安	1842(임인)	幼學	1885(高宗 22)	乙酉庭試	丙科 14위	濟州
56	백악순(白樂舜)	희천(希天)	水原	1814(갑술)	幼學	1887(高宗 24)	丁亥庭試	乙科 1위	濟州
57	홍현일(洪顯一)	-	南陽	1857(정사)	幼學	1887(高宗 25)	戊子庭試	丙科 11위	濟州

(자료: 『국조문과방목』 참고, 미상은 -로 표시)

<부록 2> 『진신선생안』에 기록된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 명단

순번	성명	자(字)	생신	본(本)	급제연도	급제자손	고시명
1	고득중(高得宗)	자전(子傳)	-	濟州	1414(甲午)	子 台弼, 子 台鼎, 後孫 準	太宗甲午榜
2	고득중(高得中)	희중(希中)	-	-	1435(乙卯)	十世孫 處亮	世宗乙卯榜
3	고태필(高台弼)	-	-	-	-	後孫 在桓	-
4	고태정(高台鼎)	-	-	-	-	-	-
5	김계중(金繼忠)	-	-	光山	-	五世孫 晉鎔, 後孫 泰圭	-
6	정응정(鄭應禎)	-	-	東萊	1601(辛丑)	曾孫 希寬	宣祖辛丑榜
7	오섬(吳暹)	퇴이(退而)	乙酉	軍威	1663(癸亥)	-	仁祖癸亥榜
8	문영후(文榮後)	-	-	南平	1664(甲辰)	-	顯宗甲辰榜
9	문징후(文徵後)	-	-	-	1664(甲辰)	-	顯宗甲辰榜
10	고홍진(高弘進)	-	-	-	1664(甲辰)	-	顯宗甲辰榜
11	김계릉(金繼隆)	술향(茂鄉)	癸酉	光山	1671(辛亥)	-	顯宗辛亥榜
12	김계창(金繼敞)	-	-	-	-	-	顯宗辛亥榜
13	김계흥(金繼興)	-	-	光山	1675(乙卯)	祀孫 鳳相	肅宗乙卯榜
14	고기중(高起宗)	-	-	-	1675(乙卯)	祀孫 在崙	肅宗乙卯榜
15	정희관(鄭希寬)	국향(國鄉)	壬寅	東萊	1680(庚申)	子 敞選	肅宗庚申榜
16	정창원(鄭敞遠)	-	-	東萊	1706(丙戌)	孫 利吉	肅宗丙戌榜
17	고만침(高萬瞻)	사양(士昂)	壬子	-	1706(丙戌)	祀孫 永儉	肅宗丙戌榜
18	오정빈(吳廷賓)	흥문(興文)	癸卯	軍威	1706(丙戌)	祀孫 達行	肅宗丙戌榜
19	김계중(金繼重)	-	乙亥	光山	1710(庚寅)	後孫 萬澤	肅宗庚寅榜
20	고처량(高處亮)	명숙(明叔)	戊辰	-	1716(丙申)	五世孫 景峻, 祀孫 承仁	肅宗丙申榜
21	정창선(鄭敞選)	현보(顯甫)	癸亥	東萊	1716(丙申)	孫 泰彦, 祀孫 在周	肅宗丙申榜
22	고만갑(高萬甲)	성백(星伯)	辛酉	-	1716(丙申)	祀孫 彦吉	肅宗丙申榜勳錄
23	변시중(邊是重)	중여(重如)	甲戌	原州	1727(丁未)	祀孫 德承	英宗丁未榜
24	이수근(李壽根)	-	-	慶州	1738(戊午)	從玄孫 基恒, 基塔	英宗戊午榜
25	이구성(李九成)	-	-	-	1738(戊午)	-	英宗戊午榜
26	양덕하(梁德夏)	대비(大庇)	甲午	-	1738(戊午)	祀孫 聖鉉	英宗戊午榜
27	변성우(邊聖遇)	회숙(會叔)	-	-	1763(癸未)	祀孫 ??	英宗癸未榜
28	변성운(邊聖運)	중휴(仲休)	丁未	原州	1763(癸未)	祀孫 用豪	英宗癸未榜
29	김형중(金衡重)	-	壬申	羅州	1763(癸未)	後孫 龍澤	英宗癸未榜
30	강봉서(姜鳳瑞)	-	丙寅	晉州	1774(甲午)	祀孫 永吉	英宗甲午榜
31	장한철(張漢喆)	-	甲子	仁同	1774(甲午)	後孫 智仁	英宗甲午榜
32	김경회(金慶會)	-	丙寅	慶州	1774(甲午)	祀孫 宗璜	英宗甲午榜
33	변경우(邊景祐)	-	-	-	1781(辛丑)	祀孫 宗燦	正宗辛丑榜
34	강성익(康聖翊)	-	丁卯	谷山	1781(辛丑)	後孫 始祿	正宗辛丑榜
35	김용(金埴)	-	甲子	慶州	1781(辛丑)	祀孫 日璨	正宗辛丑榜
36	부종인(夫宗仁)	-	丁亥	-	1794(甲寅)	祀孫 達觀	正宗甲寅榜
37	김명현(金命獻)	사충(士忠)	甲午	光山	1794(甲寅)	祀孫 世敏	正宗甲寅榜
38	변경봉(邊景鵬)	-	-	-	1794(甲寅)	-	正宗甲寅榜
39	이태상(李台祥)	-	-	-	1794(甲寅)	-	正宗甲寅榜
40	홍달훈(洪達勛)	-	-	-	1794(甲寅)	-	正宗甲寅榜
41	고명학(高鳴鶴)	-	己丑	-	1794(甲寅)	祀孫 德龍	正宗甲寅榜
42	정태언(鄭泰彦)	-	甲子	東萊	1794(甲寅)	祀孫 尙鎬	正宗甲寅榜
43	김영집(金英集)	여성(汝成)	乙未	羅州	1814(甲戌)	祀孫 履庸	純祖甲戌榜 聯壁

44	김영업(金英業)	중수(仲修)	甲辰	羅州	1814(甲戌)	祀孫 奎昌	純祖甲戌榜
45	변경준(邊景俊)	-	丁未	-	1814(甲戌)	祀孫 用燦	純祖甲戌榜
46	강계우(姜繼遇)	-	己酉	-	1814(甲戌)	子 安世	純祖甲戌榜
47	신상흠(愼尙欽)	윤약(允若)	甲寅	居昌	1823(癸未)	子栽 金栽祐, 祀孫 ??	純祖癸未榜
48	김유(金柔)	강중(剛仲)	甲寅	光山	1825(乙酉)	祀孫 垣	純祖乙酉榜
49	오승현(吳承鉉)	자창(子敞)	丁卯	軍威	1854(甲寅)	子 震浩	哲宗甲寅榜
50	김명악(金明岳)	-	辛巳	金海	1854(甲寅)	子 成重	哲宗甲寅榜
51	박수용(朴秀龍)	우공(雨公)	己丑	密陽	1854(甲寅)	子 奎三	哲宗甲寅榜
52	송상순(宋祥淳)	백후(伯厚)	己亥	礪山	1863(癸亥)	-	哲宗癸亥榜
53	김병수(金炳洙)	경문(景文)	丁酉	金海	1863(癸亥)	-	哲宗癸亥榜
54	고경준(高景峻)	진향(晉鄕)	己亥	-	1863(癸亥)	-	哲宗癸亥榜
55	신재우(愼栽祐)	경수(景受)	庚子	居昌	1863(癸亥)	-	哲宗癸亥榜
56	한석운(韓錫胤)	경조(景祚)	乙巳	淸州	1863(癸亥)	-	哲宗癸亥榜

(자료: 『진신선생안』 참고, 미상은 -로 표시.)

<부록 3> 『탐라기년』에 기록된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 명단

번호	성명	급제연도	종류	어사의 파견
1	고득중(高得宗)	1414(甲申, 太宗 14)	文科	-
2	고태필(高台弼)	1451(辛未, 文宗 1)	文科	-
3	고태정(高台鼎)	1460(己卯, 世祖 5)	文科	-
4	오섬(吳暻)	1623(癸亥, 仁祖 1)	文科	試才御史 崔振雲(최진운)
5	문영후(文榮後)	1664(甲辰, 顯宗 5)	文科	試才御史 尹深(윤심)
6	문징후(文徵後)	1664(甲辰, 顯宗 5)	文科	試才御史 尹深(윤심)
7	고홍진(高弘進)	1664(甲辰, 顯宗 5)	文科	試才御史 尹深(윤심)
8	김계룡(金繼隆)	1672(甲辰, 顯宗 12)	文科	慰諭御史 李夏(이하)
9	김계창(金繼敞)	1672(甲辰, 顯宗 12)	文科	慰諭御史 李夏(이하)
10	김계흥(金繼興)	1675(乙卯, 肅宗 1)	文科	巡撫御史李選(이선)
11	고기종(高起宗)	1675(乙卯, 肅宗 1)	文科	巡撫御史 李選(이선)
12	정희량(鄭希良)	1680(庚申, 肅宗 6)	文科	巡撫御史 李增(이증)
15	정창원(鄭敞遠)	1706(丙戌, 肅宗 32)	文科	巡撫御史 李海朝(이해조)
16	고만첨(高萬瞻)	1706(丙戌, 肅宗 32)	文科	巡撫御史 李海朝(이해조)
17	오정빈(吳廷賓)	1706(丙戌, 肅宗 32)	文科	巡撫御史 李海朝(이해조)
18	김계중(金繼重)	1710(丁亥, 肅宗 36)	文科	御史 洪錫輔(홍석보)
19	고처량(高處亮)	1716(丙申, 肅宗 42)	文科	監賑御史 黃龜河(황구하)
20	정창선(鄭敞選)	1716(丙申, 肅宗 42)	文科	監賑御史 黃龜河(황구하)
21	고만갑(高萬甲)	1716(丙申, 肅宗 42)	文科	監賑御史 黃龜河(황구하)
22	변시중(邊是重)	1727(丁未, 英祖 3)	文科	試才御史 金相錫(김상석)
23	이수근(李壽根)	1738(戊午, 英祖 14)	文科	巡撫御史 李度遠(이도원)
24	이구성(李九成)	1738(戊午, 英祖 14)	文科	巡撫御史 李度遠(이도원)
25	양덕하(梁德夏)	1738(戊午, 英祖 14)	文科	巡撫御史 李度遠(이도원)
26	변성우(邊聖遇)	1763(癸未, 英祖 39)	文科	巡撫御史 李壽鳳(이수봉)
27	변성운(邊聖運)	1763(癸未, 英祖 39)	文科	巡撫御史 李壽鳳(이수봉)
28	김형중(金衡重)	1763(癸未, 英祖 39)	文科	巡撫御史 李壽鳳(이수봉)
29	강봉서(姜鳳瑞)	1774(甲午, 英祖 50)	文科	監牧官 金義河(김의하)
30	장한철(張漢喆)	1774(甲午, 英祖 50)	文科	監牧官 金義河(김의하)
31	김경회(金慶會)	1774(甲午, 英祖 50)	文科	監牧官 金義河(김의하)
32	변경우(邊景祐)	1781(辛丑, 正祖 5)	文科	按覈御史 朴天衡(박천형)
33	강성익(康聖翊)	1781(辛丑, 正祖 5)	文科	按覈御史 朴天衡(박천형)
34	김용(金桶)	1781(辛丑, 正祖 5)	文科	按覈御史 朴天衡(박천형)
35	부종인(夫宗仁)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36	김명헌(金命獻)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37	변경봉(邊景鵬)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38	이태상(李台祥)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39	홍달훈(洪達勛)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40	이명학(李鳴鶴)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41	정태언(鄭泰彦)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42	김영집(金英集)	1814(甲戌, 純祖 14)	文科	御察理史 李在秀(이재수)
43	김영업(金英業)	1814(甲戌, 純祖 14)	文科	御察理史 李在秀(이재수)
44	변경준(邊景俊)	1814(甲戌, 純祖 14)	文科	御察理史 李在秀(이재수)
45	강계우(姜繼遇)	1814(甲戌, 純祖 14)	文科	御察理史 李在秀(이재수)
46	신상흠(愼尙欽)	1822(壬午, 純祖 22)	文科	慰諭御史 趙廷화(조정화)
47	김유(金柔)	1825(壬午, 純祖 25)	文科	禮曹佐郎 李必玉(이필옥)
48	오승현(吳承鉉)	1854(甲寅, 哲宗 5)	文科	禮曹佐郎 金觀燮(김관섭)
49	김병악(金明岳)	1854(甲寅, 哲宗 5)	文科	禮曹佐郎 金觀燮(김관섭)
50	박수용(朴秀龍)	1854(甲寅, 哲宗 5)	文科	禮曹佐郎 金觀燮(김관섭)
51	송상순(宋祥淳)	1863(癸亥, 哲宗 14)	文科	察理使 李健弼(이건필)
52	김병수(金炳洙)	1863(癸亥, 哲宗 14)	文科	察理使 李健弼(이건필)
53	고경준(高景駿)	1863(癸亥, 哲宗 14)	文科	察理使 李健弼(이건필)
54	신재우(愼栽祐)	1863(癸亥, 哲宗 14)	文科	察理使 李健弼(이건필)
55	한석윤(韓錫胤)	1863(癸亥, 哲宗 14)	文科	察理使 李健弼(이건필)

(자료: 『탐라기년』 참고, 미상은 -로 표시)

<부록 4> 『탐라관풍안』에 기록된 제주지역 문과 급제자 명단

번호	성명	급제연도	종류	어사의 파견
1	고득종(高得宗)	1414(甲申, 太宗 14)	文科	-
2	고태필(高台弼)	1451(辛未, 文宗 1)	文科	-
3	고태정(高台鼎)	1460(己卯, 世祖 5)	文科	-
4	오섬(吳暹)	1623(癸亥, 仁祖 1)	文科	-
5	문영후(文榮後)	1664(甲辰, 顯宗 5)	文科	御史 尹深(윤심)
6	문징후(文徵後)	1664(甲辰, 顯宗 5)	文科	御史 尹深(윤심)
7	고홍진(高弘進)	1664(甲辰, 顯宗 5)	文科	御史 尹深(윤심)
8	김계룡(金繼隆)	1672(甲辰, 顯宗 12)	文科	御史 李夏(이하)
9	김계창(金繼敞)	1672(甲辰, 顯宗 12)	文科	御史 李夏(이하)
10	김계흥(金繼興)	1675(乙卯, 肅宗 1)	文科	御史 李選(이선)
11	고기종(高起宗)	1675(乙卯, 肅宗 1)	文科	御史 李選(이선)
12	정희량(鄭希良)	1680(庚申, 肅宗 6)	文科	御史 李增(이증)
15	정창원(鄭敞遠)	1706(丙戌, 肅宗 32)	文科	御史 李海朝(이해조)
16	고만첨(高萬瞻)	1706(丙戌, 肅宗 32)	文科	御史 李海朝(이해조)
17	오정빈(吳廷賓)	1706(丙戌, 肅宗 32)	文科	御史 李海朝(이해조)
18	김계중(金繼重)	1710(丁亥, 肅宗 36)	文科	御史 洪錫輔(홍석보)
19	고처량(高處亮)	1716(丙申, 肅宗 42)	文科	御史 黃龜河(황구하)
20	정창선(鄭敞選)	1716(丙申, 肅宗 42)	文科	御史 黃龜河(황구하)
21	고만갑(高萬甲)	1716(丙申, 肅宗 42)	文科	御史 黃龜河(황구하)
22	변시중(邊是重)	1727(丁未, 英祖 3)	文科	御史 金相錫(김상석)
23	이수근(李壽根)	1738(戊午, 英祖 14)	文科	御史 李度遠(이도원)
24	이구성(李九成)	1738(戊午, 英祖 14)	文科	御史 李度遠(이도원)
25	양덕하(梁德夏)	1738(戊午, 英祖 14)	文科	御史 李度遠(이도원)
26	변성우(邊聖遇)	1763(癸未, 英祖 39)	文科	御史 李壽鳳(이수봉)
27	변성운(邊聖運)	1763(癸未, 英祖 39)	文科	御史 李壽鳳(이수봉)
28	김형중(金衡重)	1763(癸未, 英祖 39)	文科	御史 李壽鳳(이수봉)
29	강봉서(姜鳳瑞)	1774(甲午, 英祖 50)	文科	御史 洪相聖(홍상성)
30	장한철(張漢喆)	1774(甲午, 英祖 50)	文科	御史 洪相聖(홍상성)
31	김경회(金慶會)	1774(甲午, 英祖 50)	文科	御史 洪相聖(홍상성)
32	변경우(邊景祐)	1781(辛丑, 正祖 5)	文科	御史 朴天衡(박천형)

33	강성익(康聖翊)	1781(辛丑, 正祖 5)	文科	御史 朴天衡(박천형)
34	김용(金堉)	1781(辛丑, 正祖 5)	文科	御史 朴天衡(박천형)
35	부종인(夫宗仁)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36	김명헌(金命獻)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37	변경봉(邊景鵬)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38	이태상(李台祥)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39	홍달훈(洪達勛)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40	이명학(李鳴鶴)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41	정태언(鄭泰彦)	1794(甲寅, 正祖 18)	文科	御史 沈樂洙(심낙수)
42	김영집(金英集)	1814(甲戌, 純祖 14)	文科	御史 李在秀(이재수)
43	김영엽(金英業)	1814(甲戌, 純祖 14)	文科	御史 李在秀(이재수)
44	변경준(邊景俊)	1814(甲戌, 純祖 14)	文科	御史 李在秀(이재수)
45	강계우(姜繼遇)	1814(甲戌, 純祖 14)	文科	御史 李在秀(이재수)
46	신상흠(愼尙欵)	1822(壬午, 純祖 22)	文科	御史 趙廷화(조정화)
47	김유(金柔)	1825(壬午, 純祖 25)	文科	禮郎 李必玉(이필옥)
48	오승현(吳承鉉)	1854(甲寅, 哲宗 5)	文科	禮郎 金觀孝(김관효)
49	김병익(金明岳)	1854(甲寅, 哲宗 5)	文科	禮郎 金觀孝(김관효)
50	박수용(朴秀龍)	1854(甲寅, 哲宗 5)	文科	禮郎 金觀孝(김관효)
51	송상순(宋祥淳)	1863(癸亥, 哲宗 14)	文科	察理使 李健弼(이건필)
52	김병수(金炳洙)	1863(癸亥, 哲宗 14)	文科	察理使 李健弼(이건필)
53	고경준(高景峻)	1863(癸亥, 哲宗 14)	文科	察理使 李健弼(이건필)
54	신재우(愼栽祐)	1863(癸亥, 哲宗 14)	文科	察理使 李健弼(이건필)
55	한석운(韓錫胤)	1863(癸亥, 哲宗 14)	文科	察理使 李健弼(이건필)
56	고성겸(高性謙)	1896(丙申, 高宗 33)	文科	鄉貢
57	홍종율(洪鍾律)	1904(甲辰, 高宗 41)	文科	鄉貢
58	정현구(鄭顯龜)	1907(丁未, 純宗 1)	文科	鄉貢

(자료: 『탐라관풍안』 참고, 미상은 -로 표시.)

<부록 5> 『사마방목』에 기록된 제주지역 소과 급제자 명단

번호	성명	자(字)	생신	본(本)	급제연도	고시명	과종
1	김량필(金良弼)	몽득(夢得)		慶州	1510(庚午)	式年	生員
2	오섭(吳漣)	퇴지(退之)	丁亥	軍威	1615(乙卯)	式年	進士
3	김계용(金繼隆)	무경(茂卿)	癸酉	光山	1663(癸卯)	式年	進士
4	오정빈(吳廷賓)	흥숙(興叔)	癸卯	軍威	1687(丁卯)	式年	進士
5	오점(吳霽)	시지(時之)	甲申	和順	1786(丙午)	式年	生員
6	정익환(鄭益煥)	우보(友輔)	辛酉	東萊	1825(乙酉)	式年	進士
7	김석린(金錫麟)	공서(孔瑞)	丙寅	金海	1828(戊子)	式年	生員
8	안영수(安永綏)	공리(孔履)	丁卯	順興	1834(甲午)	式年	生員
9	오태직(吳泰稷)	여대(汝大)	丁卯	和順	1834(甲午)	式年	進士
10	김용징(金龍徵)	운경(雲卿)	己巳	金海	1843(癸卯)	式年	進士
11	강기석(姜琦奭)	공규(公圭)	壬午	晋州	1858(戊午)	式年	生員
12	김성호(金性昊)	호연(浩然)	甲申	羅州	1859(己未)	增廣	生員
13	신재전(愼栽全)	성여(聖汝)	甲申	居昌	1873(癸酉)	式年	生員
14	김양수(金亮洙)	자명(子明)	戊子	金海	1874(甲戌)	增廣	進士
15	김치용(金致用)	순소(舜韶)	壬辰	羅州	1874(甲戌)	增廣	生員
16	채구석(蔡龜錫)	대여(汝汝)	庚戌	平康	1879(己卯)	式年	生員
17	김병운(金炳胤)	원지(元之)	戊戌	金海	1880(庚辰)	增廣	生員
18	박승규(朴升奎)	극로(極老)	丙午	密陽	1880(庚辰)	增廣	進士
19	김익추(金翼樞)	남유(南有)	壬子	慶州	1880(庚辰)	增廣	生員
20	김문용(金汶龍)	운거(雲擧)	丁巳	金海	1885(乙酉)	式年	進士
21	김우종(金禹鍾)	여찬(女贊)	己未	金海	1891(辛卯)	增廣	生員
22	김학현(金學鉉)	-	-	-	1891(辛卯)	式年	進士

23	황각연(黃珪淵)	-	甲戌	昌原	1891(辛卯)	增廣	進士
24	강재림(康在林)	공유(公儒)	甲戌	谷山	1894(甲午)	式年	生員
25	김준현(金俊鉉)	영보(英甫)	乙未	光山	1894(甲午)	式年	進士
26	백수인(白脩仁)	-	甲戌	水原	1894(甲午)	式年	進士

(자료: 『사마방목』 참고, 미상은 -로 표시.)

<부록 6> 『사마선생안』에 기록된 제주지역 소과 급제자 명단

번호	성명	생신	본(本)	급제연도	고시명
1	김량필(金良弼)	-	慶州	明宗朝	明宗朝
2	오섬(吳暹)	乙酉	軍威	1618(戊午)	萬曆戊午榜
3	김진용(金晉鎔)	乙巳	光山	1634(乙亥)	仁祖乙亥榜
4	김계웅(金繼隆)	癸酉	光山	1663(癸卯)	顯宗癸卯榜
5	오정빈(吳廷賓)	癸卯	軍威	1687(丁卯)	肅宗丁卯榜
6	오점(吳霽)	甲申	和順	1786(丙午)	正宗丙午榜
7	정익환(鄭益煥)	辛酉	東萊	1825(乙酉)	純祖乙酉榜
8	김석린(金錫麟)	丙寅	金海	1828(戊子)	純祖戊子榜
9	안영수(安永綏)	丁卯	順興	1834(甲午)	憲宗甲午榜
10	오태직(吳泰稷)	丁卯	和順	1834(甲午)	憲宗甲午榜
11	김용징(金龍徵)	己巳	金海	1834(甲午)	憲宗甲午榜
12	강기석(姜琦奭)	壬午	晋州	1858(戊午)	哲宗戊午榜
13	김성호(金性昊)	甲申	羅州	1859(己未)	哲宗己未榜
14	신재전(愼栽全)	甲申	居昌	1873(癸酉)	高宗癸酉榜
15	김양수(金亮洙)	戊子	金海	1874(甲戌)	高宗甲戌榜
16	김치용(金致用)	壬辰	羅州	1874(甲戌)	高宗甲戌榜
17	채현석(蔡玄錫)	-	-	1879(己卯)	高宗己卯榜
18	김병윤(金炳胤)	戊戌	金海	1880(庚辰)	高宗庚辰榜
19	박승규(朴升奎)	-	-	1880(庚辰)	高宗庚辰榜
20	김문용(金汶龍)	丁巳	金海	1885(乙酉)	高宗乙酉榜
21	김우종(金禹鍾)	己未	金海	1891(辛卯)	高宗辛卯榜
22	김학현(金學鉉)	庚申	金海	1891(辛卯)	高宗辛卯榜
23	김항유(金恒裕)	甲戌	金海	1891(辛卯)	高宗辛卯榜
24	전군형(全君亨)	甲戌	-	1891(辛卯)	高宗辛卯榜

(자료: 『사마선생안』 참고, 미상은 -로 표시.)

참고문헌

1. 문헌사료와 자료집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대전회통(大典會通)』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사마방목(司馬榜目)』

『속대전(續大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연방록(蓮榜錄)』

『용방록(龍榜錄)』

『제주계록(濟州啓錄)』

『제주읍지(濟州邑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탐라빈흥록(耽羅賓興錄)』

김석익, 『탐라기년(耽羅紀年)』

_____, 『탐라관풍안(耽羅觀風案)』

이원조,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이원진, 『탐라지(耽羅誌)』

慶州金氏濟州道宗親會, 『慶州金氏益和君濟州派世譜』 1·2권, 慶州金氏濟州道宗親會, 2005.

高瓚華, 『지난 歲月의 濟州人物錄 -國朝文科榜目外 16目案員簿記錄-』, 성민출판사, 2002.

김봉옥 역,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2001.

김석익 저, 오문복 역, 『濟州속의 耽羅 - 심재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_____, 杏文會 편저, 『心齋集』 2, 제주문화사, 1990.
- 김지홍·원창애 역, 『제주삼읍교학사료집』, 전국문화원협회제주도지회, 2003.
- 金榮洽,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 南平文氏南濟公派宗門會, 『南平文氏南濟公派世譜』 1권, 南平文氏南濟公派宗門會, 2001.
- 담수계, 『譯註 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 2005.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國朝榜目』, 서울大學校出版部, 1971.
- 東萊鄭氏參議公波編纂委員會, 『東萊鄭氏參議公波譜』, 東萊鄭氏參議公波編纂委員會, 1998.
- 변경봉 저, 허남춘 역, 『通政大夫 司憲府 掌令 邊景鵬 文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國朝人物考』,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
- 송준호·Edward W. Wagner, 『조선문과방목』, 동방미디어주식회사, 2008.
- 原州邊氏訓練公波譜編纂委員會, 『原州邊氏訓練公波譜』, 原州邊氏濟州道宗親會, 1980.
- 이원조, 『耽羅誌草本』上·下, 제주교육박물관, 2007~2008.
- 이원진, 『譯註 耽羅誌』, 푸른역사, 2002.
- 濟州道, 『濟州道史資料集書(I)』, 濟州道, 1998.
- 濟州道教育委員會, 『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 韓致文, 『耽羅實錄』, 漢進文化社, 1973.

2. 연구논저

1) 단행본

- 金昌鉉, 『朝鮮初期 文科及第者 研究』, 一潮閣, 1999.
- 부만근,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 宋俊浩, 『朝鮮社會研究』, 一潮閣, 1987.
- 梁鎮健, 『제주교육행정사』, 도서출판제주문화, 2001.
- 李秉然, 『朝鮮前期 論文選集』 21 科擧(2), 삼귀문화사, 1996.
-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度』, 集文堂, 1994.

- _____, 『韓國의 科擧制度史』, 民音社, 1997.
- _____, 『朝鮮兩班社會研究』, 一潮閣, 1995.
-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국학자료원, 2004.
- 임용한, 『조선전기관리등용제도연구』, 해안, 2008.
- 濟州濡脈六百年史編輯委員會, 『濟州濡脈六百年史』, 學文社, 1997.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0-조선 양반관료국가의 사회구조』, 탐구당, 1977.
- 曹佐鎬, 『韓國 科擧制度史 研究』, 범우사, 1996.
-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車美姬, 『朝鮮時代 文科制度 研究』, 國學資料院, 1999.
- 崔珍玉, 『朝鮮時代 生員進士研究』, 集文堂, 1998.
- 韓國人文科學院, 『韓國近代邑誌』 48 全羅道 15 長水誌·耽羅紀年·珍島邑誌, 韓國人文科學研究院, 1993.
- 許興植,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 _____, 최진옥,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2003.

2) 논문 및 기타

- 高昌錫, 「朝鮮時代 濟州의 私學 -精舍와 鄉學堂을 中心으로」, 『濟州島史研究』 第5輯, 제주도사연구회, 1996.
- _____, 「「자료소개」 巡撫御史 朴天衡의 書啓」, 『濟州島史研究』 第8輯, 濟州島史研究會, 1999.
- 權仁赫, 「16세기초 梁濟海 某邊의 實狀과 그 性格」, 『耽羅文化』 第7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7.
- 金東柱, 「朝鮮時代 濟州道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 創刊號, 濟州島史研究會, 1991.
- _____, 『18·19世紀 濟州道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_____, 「朝鮮朝 濟州의 科擧運營과 入格者」, 『濟州濡脈六百年史』, 濟州濡脈六百年史編輯委員會, 1997.
- 金奉玉, 「朝鮮朝 濟州의 鄉校와 書院」, 『濟州島史研究』 第4輯, 濟州島史研究會, 1995.

- 김재형,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재훈, 「純祖代 文科의 운영과 응시자들의 동향」,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金井昊, 「한양 가던 옛길 답사 小考 -湖南大路와 嶺南大路를 中心으로-」, 『郷土史研究』 第7輯, 韓國郷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5.
- 김진옥, 한만봉, 「朝鮮朝 科擧試驗 方式의 政策的 분석」, 『論文集』 第23輯, 淸田大學, 2005.
- _____, _____, 「조선의 과거제도에 대한 정책적 연구」, 『論文集』 第24輯, 淸田大學, 2006.
- 金町洛, 「朝鮮時代 科擧制度에 關한 一考」, 『論文集』 第6輯, 대구보건대학, 1983.
- 金昌鉉, 「朝鮮初期 文科及第者의 出身 背景」, 『歷史學報』 第155輯, 역사학회, 1997.
- _____, 「朝鮮初期 文科及第者의 初職」, 『史學研究』 第53號, 한국사학회, 1997.
- 박노석, 「조선시대 전주출신의 문과 급제자 현황」, 『전북사학』 제30호, 전북사학회, 2007.
- 朴弘甲, 「조선초기 문과 급제자의 분관과 진출」, 『史學研究』 第50號, 한국사학회, 1995.
- 申常玟, 「朝鮮初期 科擧制 政策의 體制論的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 梁鎭健, 「朝鮮朝 濟州教育史 形成의 政策的 動因」, 『韓國教育史學』 第21輯, 한국교육사학회, 1999.
- _____, 「濟州島와 沖繩의 傳統教育 比較」, 『耽羅文化』 第11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 원창애, 「朝鮮時代 文科及第者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 李秉杰, 「麗末鮮初 官學의 實態와 科業教育」, 『東洋文化研究』 2, 경북대 동양문화연구, 1975.
- 이원재, 「朝鮮前期 別試 研究」, 『연세교육연구』 11권, 연세대학교교육연구소, 1998.

- 李貞和, 「朝鮮 純祖代 科擧의 特徵 -世宗·肅宗代와의 比較를 통해-, 西江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7.
- 이창걸, 「朝鮮時代 文科及第자의 分館實態에 관한 研究」, 『한국학논총』 3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이강선, 「朝鮮王朝 官僚採用制度에 관한 研究」, 『韓國行政史學誌』 第9號, 한국행정사학회, 2000.
- 鄭時采, 「朝鮮王朝時代의 科擧制度研究」, 『論文集』 第10輯, 건국대학교 대학원, 1979.
- 정지현, 「조선 초기 文科 講經科目的 변화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0.
- 정훈, 「조선시대 남원 지역 문과급제자에 대한 고찰」, 『전북사학』 제29호, 전북사학회, 2007.
-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 -경주 김씨가의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郷土史研究』 第5輯, 韓國郷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3.
- 車美姬, 「16세기 文科 及第者 배출의 증가」, 『朝鮮時代史學報』 6, 조선시대사학회, 1998.
- _____, 「16세기 文科 及第者의 初職 규정 변화」, 『한국사연구』 제103호, 한국사연구회, 1998.
- _____, 「英·正祖의 科擧改革政策 -科弊釐正綸音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車長燮, 「朝鮮前期 文科 及第者의 成分」, 『論文集』 第27輯, 三陟大學校, 1994.
- _____, 「朝鮮後期 文科 及第者의 成分」, 『大邱史學』 第7輯, 대구사학회, 1994.
- 한만봉·정덕희·김진욱, 「조선왕조 과거제도 인사정책연구」, 『현대사회행정』 15권, 한국행정관리학회, 2005.